

定本 退溪全書

定本 退溪全書 ㉘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9-11-992429-4-4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28

退溪先生輓祭錄

退溪學研究院 院長: 宋載邵

行政 支援: 李重煥, 金銀永

研究責任者: 李光虎

共同研究員: 金彥鍾, 文錫胤, 李俸珪, 李相夏

研究專擔人力: 姜志喜, 金太年, 柳浩珍, 尹璿香, 尹相洙

研究補助員: 朴秀英

28책 校勘 및 標點: 尹璿香

校閱: 李光虎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解題

《退溪先生輓祭錄》은 退溪 사후 知舊와 門人 114명이 지은 88편의 輓詞, 10편의 誄文, 68편의 祭文을 모아놓은 추도집으로 총 11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1607년 門人 鄭述(1543~1620)가 안동 부사로 부임할 때 묘소에서 제사한 글을 제외하면 모두 퇴계가卒한 1570년 12월부터 禮安에 葬事한 1571년 사이에 지어진 글이다.¹⁾

퇴계는 行狀이나 碑誌와 같이 사후 인물을 서사하는 글이 그 사람의 실상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였다. 자신의 碑誌를 쓰지 말라는 퇴계의 遺旨 때문에 문인들은 비지와 행장을 짓는 일은 꺼리는 대신 輓詞와 誄文, 祭文 등의 哀祭文을 통해 선생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였다. 퇴계 사후에 이들이 올린 추도문을 모아 따로 구성한 애제 문집이 《退溪先生輓祭錄》이다.²⁾ 《退溪先生輓祭錄》은 퇴계의 저서는 아니지만 그를 접하였던 문인 다수가 116편의 작품을 통해 퇴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기에, 퇴계라는 인물과 사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 이은영, 〈解題〉, 《退溪全書》 29, 退溪學譯注叢書 제29책, 퇴계학연구원, 2002.

2) 이은영, 〈《陶山輓祭錄》에 나타난 퇴계의 형상-인물 형상의 방식과 정의 표출 양상을 중심으로-〉, 81~83쪽.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1) 자료 상황

전존본으로는 《退溪全書》(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에 수록된 12行 26字鉛活字本《退溪先生輓祭錄》이 유일본으로 파악된다. 序와 跋이 없어 자세한 편찬 경위는 알 수 없으나 《退溪全書》에 실린 李家源의 해제에 의하면, 1935년 7월에 李齡鎬가 도산서원 所藏의 本草에 의하여 金泉에서 活字本으로 印行한 것이라고 한다.³⁾ 동일본이 《退溪先生文集附錄》이라는 제목으로 국립중앙도서관(표제는 ‘陶山輓祭錄’)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退溪學文獻全集》 제19책 (啓明漢文學研究會 研究資料叢書 II)에도 실려 있다. 번역서로서, 2001년 퇴계학연구원에서 退溪學譯注叢書 제29책으로 출간되었으며, 그에 앞서 중국어 역주본인, 賈順先 主編, 《退溪全書今注今譯》 1-8(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2~1996) 제8책에 포함되었다.

<鉛活字本>

《退溪先生輓祭錄》, 1책, 12行 26字本,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장.

公刊된 異本은 전하지 않으나 輓詞, 祭文의 내용이 상당수 일치하는 《退溪先生逸集》이 남아 있고, 각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각 저자들의 문집 자료를 대교본에 준하는 주요 참조본으로 삼는다.

3) 이가원, 〈解題〉, 《增補 退溪全書》, 대동문화연구원, 1978.

2) 基準本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판본은 12行 26字 鉛活字本 《退溪先生輓祭錄》(《退溪先生文集附錄》)이 유일본이므로 이를 기준본으로 삼는다.

3) 參照本の 선정 및 반영

《退溪先生輓祭錄》의 異本은 전하지 않으나 上溪 光明室에 소장되어 있던 2권 1책의 筆寫本 《退溪先生逸集》⁴⁾에 수록된 輓詞, 祭文과 상당수 내용이 일치한다. 鄭錫胎에 의하면 기준본인 鉛活字本 《退溪先生輓祭錄》은 《退溪先生逸集》을 모본으로 한 것이다.⁵⁾ 이에 《退溪先生逸集》을 草本에 준하는 주요 참조본으로 선정하고 본문을 상세히 대조하여 반영한다. 단, 《退溪先生逸集》은 異本은 아니므로 편성 및 수록 순서 등의 차이는 교감내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각 문장의 저자들의 문집 등에 해당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주요 참조본으로 삼아 상세히 대조하여 반영한다. 주요 참조본으로 활용된 기타 문집은 총 43여 종이다.

<주요 참조본으로 반영한 문집목록>

《忍齋集》·《思菴集》·《秋坡集》·《穌齋集》·《梅巖集》·《月川集》·《栢潭集》·

4) 《退溪先生逸集》은 퇴계학연구원 정본편성팀에서 2003년 도산서원 광명실 및 상계 광명실 소장 자료 촬영 시 처음 공개된 자료이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다.

5) 鄭錫胎, 〈도산서원 광명실 및 상계 광명실 소장 자료 촬영 결과 해제〉, 《退溪學報》 제114집, 퇴계학연구원, 2003, 257쪽.

凡例

《高峯集》續集·《雪月堂集》·《臨淵齋集》·《鶴峯集》·《坡谷遺稿》·《栢巖集》·
《艮齋集》·《勿巖集》·《賀淵集》·《碧梧集》·《龜村集》·《日休堂遺稿》·
《林塘遺稿》·《玉溪集》·《重湖集》·《春塘集》·《栗谷全書》·《開巖集》·
《鄒川集》·《默齋逸稿》·《龜巖集》·《惺齋集》·《芝軒集》·《三省齋逸稿》·
《謙庵集》·《瑟僂齋集》·《藥圃集》·《孤潭逸稿》·《寒岡集》

▶이상 자료출처: 韓國歷代文集叢書 DB.

《松巖集》續集·《草堂集》·《德溪集》·《岳麓集》·《蓬萊詩集》·《後凋堂集》·
《文峯集》

▶이상 자료출처: 韓國文集叢刊 DB.

2. 定本の 構成

1) 머리말: 固有番號

(1) 고유번호는 《退溪先生輓祭錄》에 실린 내용 전체의 一連番號이다.

(2) 고유번호는 ‘輓祭錄001-輓詞001’의 형식으로 부여한다. ‘輓祭錄001-輓詞001’에서 ‘輓祭錄’은 《退溪先生輓祭錄》을 뜻하며, 앞의 ‘001’은 《退溪先生輓祭錄》의 순차를 가리킨다. 뒤의 ‘輓詞001’은 輓詞· 誄文· 祭文별 수록 순서 및 번호를 나타낸다. 고유번호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定本の 편집순서와 일치하며, 기준본인 鉛活字本 《退溪先生輓祭錄》의 순차를 가리킨다.

예) 輓祭錄001-輓詞001
輓祭錄089-誄文001
輓祭錄099-祭文001

2) 題目

輓詞·誄文·祭文별수록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제목으로 한다.

3) 本文

- (1) 《退溪先生輓祭錄》의 本文을 기록한다.
- (2) 기준본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각주를 달아 밝히고 본문을 수정한다. 단, 최대한 기준본 본문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각주를 통해 그 내용을 밝힌다.
- (3) 追記, 頭註 등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집 범례에 준하여 교감주에 표시한다.
- (4) 基準本에 임금의 묘호 등의 앞에 빈칸을 둔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 (5) 基準本에 다음 순서를 의미하는 ‘又’ 자는 일련번호가 역할을 대신한다고 간주하고 생략한다. 작품이 바뀌면 페이지를 달리하고, 각주번호도 새로 시작한다.
- (6) 본문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자 처리 관련 범례를 따른다.
- (7) 諸 版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校勘記를 작성하여 각주의 형태로 배치한다. 校勘記 작성 범례는 아래를 참조.
- (8)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표점 범례 참조.
- (9)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된 글자

凡例

4) 題下註

1번 주석 위에 제하주로 ‘▶’표시를 하고 저자의 인명 정보(生沒年代, 字, 號)를 밝힌다. 단, 인명 정보가 미상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예)▶ 朴承任 : 1517~1586. 字는 重圃, 號는 嘯阜.

5) 校勘記

基準本과 參照本들 사이의 異同사항을 표시한다. 《退溪先生逸集》과 개인 문집 등 주요 참조본들은 일치하는 내용은 모두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 의견이 있다면 반영한다.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은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되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校勘記의 校勘 臺本들 가운데 《退溪先生逸集》은 《逸集》으로 略號를 사용하며, 기타 문집은 문집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3) 주요 참조본인 《退溪先生逸集》 및 기타 문집의 반영은 자료의 異同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異本の 교감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4) 校勘記는 먼저 기준본의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단어·구절을 맨 앞에 쓰고 ‘:’을 찍은 후에 대교본의 교감 사항을 차례로 기록한다. 이어서

참조본의 주요 반영 비율에 따라 《退溪先生逸集》, 기타 문집 순서로 교감 사항을 기록한다. 《退溪先生輓祭錄》은 異本이 없으므로 참조본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를 찍고 작성하는 방식은 생략한다.

예) 誠 : 《逸集》‘成’, 《秋坡集》‘戒’

(5)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하여 밝힌다. 교감내용이 동일한 대조본은 가운데점(·)을 쓰고 해당 글자를 한 번만 쓴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 없으면 ‘~에는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粉 : 《逸集》·《思菴集》‘紛’

예2) 兮 : 《逸集》에는 뒤에 ‘尊’이 있고 [추가 ‘尊’字當入‘道’字下.]가 있다.

(6) 각 대교본의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하며, 그 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가], [두주]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추가’는 臺本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기록을,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상란 주석 기록을 일컫는다.

(7)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校勘記를 달 수 있다.

(8)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9)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凡例

(10)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 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凡例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 】’로 표시한다.

(9) 밑줄(_)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

凡例

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退溪先生文集 附錄上

輓詞

輓祭錄001-輓詞001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洪暹	1
輓祭錄002-輓詞002	崇政大夫錦溪君都總府都總官 丁應斗	2
輓祭錄003-輓詞003	門下大提學 朴淳	3
輓祭錄004-輓詞004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德恩君 宋麒壽	5
輓祭錄005-輓詞005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 金貴榮	6
輓祭錄006-輓詞006	資憲大夫吏曹判書 朴忠元	7
輓祭錄007-輓詞007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 李鐸	8
輓祭錄008-輓詞008	門下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白仁傑	9
輓祭錄009-輓詞009	牧使 柳仲郢	10
輓祭錄010-輓詞010	侍生 盧守慎	11
輓祭錄011-輓詞011	折衝將軍行忠武衛上護軍 李湛	12
輓祭錄012-輓詞012	門人生員 金富弼	14
輓祭錄013-輓詞013	門下通政大夫兵曹參知 朴承任	15
輓祭錄014-輓詞014	門人進士 李叔樸	16
輓祭錄015-輓詞015	門人 趙穆	17
輓祭錄016-輓詞016	門人 成均館直講 金富儀	18
輓祭錄017-輓詞017	門人 成均館直講 鄭琢	20
輓祭錄018-輓詞018	門人 弘文館應教 具鳳齡	21
輓祭錄019-輓詞019	後學 高峯 奇大升	22
輓祭錄020-輓詞020	門下 前正郎 南彥經	23
輓祭錄021-輓詞021	門下 金富倫	24

輓祭錄022-輓詞022	門人 進士 權好文	25
輓祭錄023-輓詞023	嘉義大夫同知中樞府使 朴啓賢	27
輓祭錄024-輓詞024	門人 通政大夫知製教 許曄	28
輓祭錄025-輓詞025	門人通訓大夫議政府舍人 尹根壽	29
輓祭錄026-輓詞026	門人 星州牧使 金克一	30
輓祭錄027-輓詞027	門人 吏曹佐郎 吳健	31
輓祭錄028-輓詞028	門生 裴三益	32
輓祭錄029-輓詞029	門人 藝文館檢閱 金誠一	33
輓祭錄030-輓詞030	門人 權知承文院副正字 李誠中	34
輓祭錄031-輓詞031	門人 生員 金玔	35
輓祭錄032-輓詞032	門人 李德弘	36
輓祭錄033-輓詞033	門人 弘文館修撰 柳成龍	37
輓祭錄034-輓詞034	門人 南致利	38
輓祭錄035-輓詞035	門生 進士 沈喜壽	39
輓祭錄036-輓詞036	門人 金隆	40
輓祭錄037-輓詞037	門人 生員 陽川 許箴	41
輓祭錄038-輓詞038	門人 生員 許筠	42
輓祭錄039-輓詞039	門人 生員 申灝	43
輓祭錄040-輓詞040	後學 宜寧 南彥紀	44
輓祭錄041-輓詞041	門下 生員 南彥縝	45
輓祭錄042-輓詞042	門人 金堧	46
輓祭錄043-輓詞043	門人 侍生 生員 李純仁	47
輓祭錄044-輓詞044	門人 具贊祿	48
輓祭錄045-輓詞045	通政大夫 前 寧海府使 李仲樾	49
輓祭錄046-輓詞046	隣侍 李文樾	50
輓祭錄047-輓詞047	門人 司諫院正言 知製教 洪聖民	51
輓祭錄048-輓詞048	門人 通政大夫 刑曹參議 朴謹元	53
輓祭錄049-輓詞049	門人 承文院副正字 金泰廷	54

目錄

輓祭錄050-輓詞050	門人 嘉善大夫 兵曹參判 柳景深	55
輓祭錄051-輓詞051	門人 宗親寺 主簿 曹駿龍	56
輓祭錄052-輓詞052	門人 前成均館學錄 曹光益	57
輓祭錄053-輓詞053	門人 金生溟	58
輓祭錄054-輓詞054	門人 司果 姜文佑	59
輓祭錄055-輓詞055	門人 琴應夾	60
輓祭錄056-輓詞056	門人 通訓大夫 行 弘文館校理 知製教 金戮	61
輓祭錄057-輓詞057	門人 吏曹佐郎 鄭芝衍	62
輓祭錄058-輓詞058	門人 前 承文院判校 金彦琚	63
輓祭錄059-輓詞059	門下 通政大夫 禮曹參議 任鼎臣	64
輓祭錄060-輓詞060	門人 造紙署別提 權東美	65
輓祭錄061-輓詞061	門人 禮曹正郎 宋應漑	66
輓祭錄062-輓詞062	門下 林塘 鄭惟吉	67
輓祭錄063-輓詞063	門下 折衝將軍行義興衛司猛 林芑	68
輓祭錄064-輓詞064	進士 申莫秀	69
輓祭錄065-輓詞065	門人 前 參奉 裴紳	70
輓祭錄066-輓詞066	前 學官 權應仁	72
輓祭錄067-輓詞067	司饗正 張應旋	74
輓祭錄068-輓詞068	李良國	75
輓祭錄069-輓詞069	門人 迎曙察訪 驪江 李光軒	76
輓祭錄070-輓詞070	門人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 崔顥	77
輓祭錄071-輓詞071	通政大夫 弘文館副提學 盧禎	78
輓祭錄072-輓詞072	嘉善大夫 禮曹參判 朴應男	79
輓祭錄073-輓詞073	門人 白見龍	80
輓祭錄074-輓詞074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李後白	81
輓祭錄075-輓詞075	通政大夫 兵曹參議 知製教 洪天民	82
輓祭錄076-輓詞076	門人 通政大夫 工曹參判 沈義謙	83
輓祭錄077-輓詞077	門下 承文院 副正字 成洛	85

輓祭錄078-輓詞078 門人 戶曹佐郎 朴漸	87
輓祭錄079-輓詞079 門人 司諫院正言 知製教 尹卓然	88
輓祭錄080-輓詞080 弘文館校理 知製教 李海壽	90
輓祭錄081-輓詞081 折衝將軍 行 忠武衛上護軍 李山海	91
輓祭錄082-輓詞082 前 淮陽府使 楊士彥	92
輓祭錄083-輓詞083 姪 進士 吳守盈	93
輓祭錄084-輓詞084 門人 通政大夫 守 江原道觀察使 朴民獻	94
輓祭錄085-輓詞085 嘉善大夫吏曹參判兼藝文館提學 都總府副總管 尹毅中	95
輓祭錄086-輓詞086 門人 折衝將軍 忠武衛大護軍 金啓	96
輓祭錄087-輓詞087 門人 生員 金應生	97
輓祭錄088-輓詞088 門人 李珥	98

誄文

輓祭錄089-誄文001 生員 申澱	99
輓祭錄090-誄文 002 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權轍	102
輓祭錄091-誄文 003 門人 鄭琢	104
輓祭錄092-誄文 004 門人 生員 金晔	105
輓祭錄093-誄文 005 門人 承文院副正字 李敬中	107
輓祭錄094-誄文 006 門人 生員 李養中	109
輓祭錄095-誄文 007 門人 生員 閔應祺	111
輓祭錄096-誄文 008 門人 藝文館奉教 金宇宏	114
輓祭錄097-誄文 009 門人 中訓大夫行司諫院獻納知製教 金孝元	117
輓祭錄098-誄文 010 門人 少者 柳根	118

目錄

退溪先生文集 附錄下

祭文

輓祭錄099-祭文001 文命凱	121
輓祭錄100-祭文002 孫英濟	123
輓祭錄101-祭文003 辛弘祚	124
輓祭錄102-祭文004 李文樑	127
輓祭錄103-祭文005 李仲樑	130
輓祭錄104-祭文006 金生溟 朴士憲 等	133
輓祭錄105-祭文007 金夢得 等	136
輓祭錄106-祭文008 南致利	138
輓祭錄107-祭文009 李咸亨	139
輓祭錄108-祭文010 李龜壽 等	140
輓祭錄109-祭文011 李宗仁 等	141
輓祭錄110-祭文012 朴大立	143
輓祭錄111-祭文013 李碩幹	145
輓祭錄112-祭文014 俞大修	146
輓祭錄113-祭文015 李德弘	148
輓祭錄114-祭文016 李禎	152
輓祭錄115-祭文017 趙穆	155
輓祭錄116-祭文018 金富弼 等	156
輓祭錄117-祭文019 金富弼 等	160
輓祭錄118-祭文020 金克一	164
輓祭錄119-祭文021 柳誠 等	166
輓祭錄120-祭文022 金廷憲 等	168
輓祭錄121-祭文023 李憲	170
輓祭錄122-祭文024 李窩	172
輓祭錄123-祭文025 宋言慎	174

輓祭錄124-祭文026 李從仁 等	175
輓祭錄125-祭文027 權春蘭 等	179
輓祭錄126-祭文028 趙振	181
輓祭錄127-祭文029 鄭士誠	183
輓祭錄128-祭文030 孫興禮	185
輓祭錄129-祭文031 金守一	186
輓祭錄130-祭文032 尹斗壽	190
輓祭錄131-祭文033 張翼 等	193
輓祭錄132-祭文034 裴三益	194
輓祭錄133-祭文035 徐崦	197
輓祭錄134-祭文036 金應生	198
輓祭錄135-祭文037 李壽千	199
輓祭錄136-祭文038 許曄	200
輓祭錄137-祭文039 李湛	202
輓祭錄138-祭文040 鄭崑壽	206
輓祭錄139-祭文041 康倫 等	209
輓祭錄140-祭文042 金復一	211
輓祭錄141-祭文043 柳雲龍	213
輓祭錄142-祭文044 金隆	218
輓祭錄143-祭文045 李完	222
輓祭錄144-祭文046 吳守盈	224
輓祭錄145-祭文047 鄭惟一	228
輓祭錄146-祭文048 朴民獻	231
輓祭錄147-祭文049 鄭琢	233
輓祭錄148-祭文050 金富弼	235
輓祭錄149-祭文051 金富儀	237
輓祭錄150-祭文052 琴應夾 等	239
輓祭錄151-祭文053 孫宏濟	241

目錄

輓祭錄152-祭文054 許箴	242
輓祭錄153-祭文055 李弘器 等	244
輓祭錄154-祭文056 洪胖	246
輓祭錄155-祭文057 郭之關 等	247
輓祭錄156-祭文058 金富倫	249
輓祭錄157-祭文059 琴蘭秀	251
輓祭錄158-祭文060 朴頤	253
輓祭錄159-祭文061 李珥	252
輓祭錄160-祭文062 盧守愼	256
輓祭錄161-祭文063 奇大升	258
輓祭錄162-祭文064 具鳳齡	261
輓祭錄163-祭文065 申瀾 等	262
輓祭錄164-祭文066 鄭述	266
輓祭錄165-祭文067 琴輔	267
輓祭錄166-祭文068 林芸	269

退溪先生文集 附錄上

輓詞

輓祭錄001-輓詞 001

輓詞001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洪暹

傾心遐邇望經綸。況值君王眷注新！身退共嫌輕去國，
訃來方信久傷眞。圖成聖學期匡主。跡歛陶山肯混塵。
拭淚欲知情幾許。交遊四十四回春。
君歸恨未挽征驂，準擬郵筒月寄三。豈料隔年成死別。
贈言猶記戀終南。¹⁾

▶ 洪暹：1504~1585. 字는 退之, 號는 忍齋.

1) 君歸……終南：《忍齋集》에는 없다.

輓祭錄002-輓詞 002

輓詞002

崇政大夫錦溪君都總府都總官 丁應斗

生在今時志古¹⁾先。襟懷灑落脫塵緣。閑中味道踰菟蓂。
卷裏尋師對聖賢。沂水春風曾獨往。陶山霽月正無邊。
衰齡尚有從遊願，胡乃²⁾天乎不假年。
吾公美德在容儀，望表曾知是我師。學問精深通闡奧，
榮華發越煥文辭。儒林遽抱無依痛³⁾，黼袞偏懷不慈悲。
病我分携因永訣，此生何處更稽疑。

► 丁應斗：1508~1572. 字는 樞卿.

1) 古：《逸集》‘故’

2) 乃：《逸集》‘奈’

3) 痛：《逸集》‘慟’

輓祭錄003-輓詞 003

輓詞003

門下大提學 朴淳

神理元冥漠，公胡遽至斯。中天移柱石，鎮國毀山基。
墜緒嗟誰繼，遺編尚可窺。清涼一痕月，千古見襟期。¹⁾
先覺生南紀，斯文有棟樑。士林瞻出處，天意本蒼茫。
擢桂初登²⁾踏，棲³⁾霞晚晦藏。寂寥顏氏巷，瀟⁴⁾灑武夷
庄。講誦身忘老，鑽研德愈⁵⁾光。眞傳慕濂洛，高韻挹
羲皇。六籍師將絕，三才道更昌。紫泥頻被召，丹悃每
傾陽。異眷追先后，洪私報後王。卽呈⁶⁾寧俟駕，抱疾
尙連章。猿鶴餘幽思，貂蟬返⁷⁾舊行。《十圖》辭極懇，

► 朴淳：1523~1589. 字는 和叔, 號는 思菴.

1) 神理……襟期：《思菴集》에는 없다.

2) 登：《思菴集》‘騰’

3) 棲：《逸集》‘西’

4) 瀟：《思菴集》‘蕭’

5) 愈：《逸集》‘有’

6) 呈：《思菴集》‘程’

7) 返：《思菴集》‘反’

獨立志難張。忠信真堪仗，粉⁸⁾囂肯過防。講筵方密勿，
歸轡又蒼黃。江漢孤舟遠，雲霄一夢忙。野扉披碧草，
村碓掃黃梁。去國餘生幾，知天此樂長。世期司馬相，
人慟伯淳亡。留寫拋⁹⁾塵境，騎箕到帝鄉。緒言垂百代，
餘馥化群狂。久忝承函丈，無因拜若¹⁰⁾堂。別離移歲
律，存沒隔殊方。受誨慚終負，含情只斷腸。九原誰叫
起，空有淚淋浪。

8) 粉：《逸集》·《思菴集》‘紛’

9) 拋：《思菴集》‘遺’

10) 拜若：《逸集》‘若拜’

輓祭錄004-輓詞 004

輓詞004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德恩君 宋麒壽

星精鍾秀海東隔¹⁾，間世英豪絕代儒，學業遠追先聖緒，
風流還作後生模。²⁾ 江湖久抱憂君念，廊廟方期許國
謨³⁾，一疾那知天不憖？百身如贖世應趨。褒崇盛禮于
今重，謙挹⁴⁾冲心在古無，多士失依懷悵惘，蒼生無福
祇嗟吁。千秋季子嗚呼墓，留與雄名激懦夫。

► 宋麒壽：1506~1581. 字는 台叟, 號는 秋坡.

1) 隔：《逸集》‘隅’

2) 模：《逸集》‘謨’

3) 謨：《逸集》‘模’

4) 挹：《逸集》‘悵’

輓祭錄005-輓詞 005

輓詞005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 金貴榮

間氣分光岳，微言得會遍¹⁾，簪纓驚若浼？山斗望愈²⁾
隆，幸爲蒼生起，何斯大命窮？去年相送地，江上又春
風。

清修唯爲己，能事肯求聞，進退身空老，君民念尙勤，
人方思至理，天已喪斯文，白首吾誰慟，無仍丐牘薰。

► 金貴榮：1520~1593. 字는 顯卿, 號는 東園.

1) 遍：《逸集》‘宗’

2) 愈：《逸集》‘逾’

輓祭錄006-輓詞 006

輓詞006

資憲大夫吏曹判書 朴忠元

陶山屹立退溪波。舊卜菟裘此養痾。受命敢辭供藥石。
休官偏讓任調和。歸時未作靈芝別，老¹⁾去空成薤露歌。
賴有十圖精力在，聖明留案致研摩。
泮水逢山作隊遊。執鞭端擬²⁾拜低頭。傳心術學傾流輩，
瀝血忠言動冕旒。一代慟亡醫國手，九重驚失濟川舟。
屋梁落月分明照。到老情懷涕不收。

▶ 朴忠元：1507~1581. 字는 仲初, 號는 駱村·靜觀齋.

1) 老：《逸集》‘路’

2) 擬：《逸集》‘疑’

輓祭錄007-輓詞 007

輓詞007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 李鐸

論交却憶卅年餘。槐院書¹⁾衫筮仕初。幸托龍門承咳唾，
叨將珉石廁瓊琚。浮沅²⁾愧我猶尸素，棲遁多君任卷舒。
心上着功存敬義，靜中觀理覺乘除。經綸未遂扶³⁾廊廟，
明哲終歸臥草廬。函丈規模遵白鹿，清涼魚鳥狎青驢。
霜⁴⁾霖久係蒼生望，時雨方隆士子譽。臣節始終頻進退，
聖恩前後倍權與。那知齒髮纔中壽。忽遣情⁵⁾神返太虛。
化俗深功尊⁶⁾性理，格君⁷⁾餘眷在圖書。斯文統緒知無
主。震悼丁寧若喪予。簪祖縻身違執紼，緘辭千里淚盈
裾。

► 李鐸：1508~1576. 字는 善鳴, 號는 藥峰.

1) 書：《逸集》‘青’

2) 沅：《逸集》‘沉’

3) 扶：《逸集》에는 없고 [추가 ‘遂’字下恐缺字. ‘遂’下一本有‘扶’字.]가 있다.

4) 霜：《逸集》‘商’

5) 情：《逸集》‘精’

6) 存：《逸集》‘尊’

7) 君：《逸集》‘郡’

輓祭錄008-輓詞 008

輓詞008

門下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白仁傑

靜菴之後寂無人，賴有先生獨會神。豈意太山崩一夕，
群蒙從此啓無因。

▶ 白仁傑：1497~1579. 字는 士偉, 號는 休庵.

輓祭錄009-輓詞 009

輓詞009

牧使 柳仲郢

鶴姿仙骨似冰清，迥脫塵機皓月晴。道學¹⁾淵源尋泗水，
調塩事業屬商羹。樛摧一夕悲何極，文晦千秋²⁾孰更明。
寂寞³⁾陶山春欲晚，巖花池草爲誰榮。

▶ 柳仲郢：1515~1573. 字는 彦遇, 號는 立巖.

1) 道學：《逸集》‘學道’

2) 秋：《逸集》‘年’

3) 寂寞：《逸集》‘寞寂’

輓祭錄010-輓詞 010

輓詞010

侍生 盧守愼

吾道應遼左，斯人復嶺南，淵源宋賢四，統緒國儒三，
退谷饒時雨，陶丘鑽暮嵐，瑤琴空自響，妙訣定誰參。
興望歸伊鼎，宸衷¹⁾屬傳塩，行染²⁾國輕重，舒卷世涼
炎，木稼曾驚恐，山頽更戒嚴，天時苟如此，人事不容
占。

玉署欽高義，湖堂見至誠，儀刑頻³⁾入夢，討論賴開緘，
遽飭延平柳，難栽泗上機⁴⁾，百年言在耳，三慟淚盈衫。

▶ 盧守愼：1515~1590. 字는 寡悔，號는 蘇齋 · 伊齋 · 暗室 · 茹峰老人。

1) 衷：《逸集》‘情’

2) 染：《逸集》·《蘇齋集》‘違’

3) 刑頻：《逸集》·《蘇齋集》‘形費’

4) 機：《蘇齋集》‘杉’

輓祭錄011-輓詞 011

輓詞011

折衝將軍行忠武衛上護軍 李湛

岱岳新推第一峰，皇天無奈視夢夢。¹⁾ 朝廷共惜元龜喪，
士類咸嗟吾道窮。六事開陳資聖學，十圖精力見儒功。
易名不爽平生事，正議堂堂後世公。

靖陵文治²⁾靄³⁾都兪，共荷龍光贊聖謨。講析圖書坐西
省，吟招風月泛東湖。蠻鄉我「賦」承塵鵬，山縣公紆
竹使符。十載重逢兩肝膽，悲歡各歎白髭鬚。

先生志學卽伊·顏，小子愚蒙不可攀。景仰宗師如北斗，
濫呼吾友愧西山。看詳廟制心元在，研確朱書手自刪。
絮酒他年披宿草，蒼峰哀壑助潛潛。

一生芻豢志難迴，隨世功名心已灰。虛室晝靜陪讀
《易》，後岡花落共銜盃。溪山畫出悲龍逝，洪水栽生

► 李湛：1510~1575. 字는 仲久，號는 靜存齋。

1) 夢夢：《逸集》‘蓍蓍’

2) 治：《逸集》‘始’

3) 靄：《逸集》‘藹’

怕岸頹。想得山中梅定發。今春誰寄一枝來。
乞骸危懇出中情。恩許歸田荷寵榮。千里送人言已訣，
八吟⁴⁾莊壑句還清。計深窻竹憐閔老。約負探梅愧巨卿。
唯有廣津鳴咽水，年年只作別時聲。
平生出處信窮通。憂樂違行⁵⁾是忠。養病朝端四代舊，
抱經林下卅年功。哀榮兩盡儀刑⁶⁾隔，寵贈三師禮數崇。
一辨心香何處奠，緘哀千里寄深衷。

4) 吟：《逸集》‘音’

5) 摠：《逸集》‘都’

6) 刑：《逸集》‘形’

輓祭錄012-輓詞012

輓詞012

門人生員 金富弼

同邦同邑又同時，聖賢難逢歎者誰。學某語言猶不得，
論天先後詎能知。鱣堂追悔摳衣晚，講殿會憂賜食遲。
終始四朝行與止，青天白日瑩無疑。
心事平生日月參，晚年蹤跡退陶南。道同朱子無優劣，
壽比文宣少¹⁾二三。六事條陳宸有感，十圖書進學無慚。
山頽木拔斯文喪，哭向儒林慟不堪。

▶ 金富弼：1516～1677. 字는 彦遇, 號는 後彫堂.

1) 少：《逸集》‘小’

輓祭錄013-輓詞013

輓詞013

門下通政大夫兵曹參知 朴承任

安宅成¹⁾空正路蕪，帝衿²⁾斯世界醇儒。窮探闢奧臻純熟，開視³⁾盲聾識步趨。斗仰群情方嘆遠，山頽一夢遽徵符。晚年溝⁴⁾壑平生志，短碣千秋馬鬣隅。
螳垤徒勞企冢巔。鵬溟何擇納微涓。芝蘭未化情彌篤，糞土難朽脚不前。門戶崩心亡大老，鄉邦議祀屬先賢。深追不屑丁寧誨，針頂⁵⁾恩存骨已鐫。

▶ 朴承任：1517~1586. 字는 重圃, 號는 嘯臯.

- 1) 成：《逸集》‘城’
- 2) 衿：《嘯臯集》‘憐’
- 3) 視：《逸集》·《嘯臯集》‘示’
- 4) 溝：《逸集》·《嘯臯集》‘丘’
- 5) 頂：《逸集》‘釘’

輓祭錄014-輓詞014

輓詞014

門人進士 李叔樸

響輟關·閩道始東。精思力踐啓群蒙。雄文鉅筆眞餘事，
立教明倫是大功。寵厚生前官一品，禮加身後葬三公。
誰知泉裏埋幽¹⁾恨。遺戒牢辭意未通。
半²⁾生蹤迹客南天。白首歸來豈偶然。未受一經空悔晚，
時聞警語但追愆。摳衣尙忝三千後，楹夢還驚七十年。
何意違斯才隔月。承顏函丈更無緣。

▶ 李叔樸：1519~1592. 字는 大用, 號는 梅巖.

1) 埋幽：《梅巖集》에는 없다.

2) 半：《逸集》‘平’[추가 ‘平’, 一本作‘半’.]

輓祭錄015-輓詞015

輓詞015

門人 趙穆

東土斯文敦啓前，淵源統緒見無緣。精分光岳眞儒出，
學接濂閩正脈傳。瑩澈冰壺映秋月，高明白日在中天。
山頽樑壞終成慟¹⁾，復此胚胎問幾年。

▶ 趙穆：1524~1606. 字는 士敬, 號는 月川・東臯.

1) 慟：《逸集》・《月川集》‘痛’

輓祭錄016-輓詞016

輓詞016

門人 成均館直講 金富儀

淵源遠自晦翁傳. 何幸吾東日月懸. 實踐眞知誠卓爾,
潛思精詣獨超然. 窮經¹⁾樂道頻辭幣. 濟世憂民幾奏篇.
玉色金聲²⁾難再接, 茫茫長夜隔重泉.
天喪斯文降大殃, 岳頹樑壞士林傷. 淒涼溪上悲風響,
慘淡³⁾山中冷日光. 窻竹無人探⁴⁾韻格. 盆梅誰復玩冰
霜. 稀年萬事空驚電, 惟有高名百世長.⁵⁾
髫年幸得望儀刑.⁶⁾ 幾歲親陪杖屨行. 夜永山堂千籟靜,
春深庭院百花明. 薰陶縱遂摳衣志, 怠惰慚無立雪誠.

▶ 金富儀：1525~1582. 字는 愼仲, 號는 挹清亭.

1) 經：《逸集》‘料’

2) 聲：《逸集》‘精’

3) 淡：《逸集》‘檐’

4) 無人探：《逸集》‘人無耽’

5) 百世長：《逸集》에는 뒤에 ‘天喪斯文降大殃, 岳頹樑壞士林傷. 淒涼溪上悲風響, 慘
淡山中冷日光. 窻竹無人探韻格. 盆梅誰復玩冰霜. 稀年萬事空驚電, 惟有高名百世長.’
이 한 번 더 쓰여 있다.

6) 刑：《逸集》‘形’

痛哭南豐香一瓣，不堪臨⁷⁾穴淚河傾。

7) 臨：《逸集》‘林’[추가 ‘林’，一本作‘臨’.]

輓祭錄017-輓詞017

輓詞017

門人 成均館直講 鄭琢

陶山聳蒼昊，洛水更淵淵。函丈有眞契，摳衣知幾年。
恩深杏壇聖，禮愧端木賢。一瓣鑪¹⁾香盡，如泉雙淚懸。
吾道東來久，先生始大醇。工夫兼博約，學術究天人。
師範三韓表，儒宗百代眞。經綸竟未試，無祿柰斯民。

▶ 鄭琢：1526~1605. 字는 子精，號는 藥圃·侶谷。

1) 鑪：《逸集》‘爐’

輓祭錄018-輓詞018

輓詞018

門人 弘文館應教 具鳳齡

淵源會正脈。硬鐵擔雄桴。日月騰天皎，江河貫地流。
中原宗百聖，海域啓千秋。慟¹⁾矣山樑²⁾夢！皇穹問末
由。

下學嗟吾道！精金孰揀沙。高才淫易溺，歧徑眩生訛。
屹作中流柱，明成指路車。斯文忽無賴，慟哭向山阿。
濫竊承朝命，恩虧執拂³⁾時。夢驚人事異，醒罷客心知。
此日那堪說。平生不或疑。他年一掬淚，潭上讀遺詩。⁴⁾

▶ 具鳳齡：1526~1586. 字는 景瑞, 號는 栢潭.

1) 慟：《逸集》·《栢潭集》‘痛’

2) 山樑：《栢潭集》‘楹間’

3) 拂：《逸集》‘拂’

4) 濫竊……遺詩：《栢潭集》에는 없다.

輓祭錄019-輓詞019

輓詞019

後學 高峯 奇大升

駿步惟憂道，蓬心幾仰高。歸依慚薄劣，誘掖荷勤勞。
絃絕誰能續，山頽我獨遭。空懷知己死，短髮不勝搔。
遠跡風塵表，溪山慰暮年。養心思寡矣，觀象任隤然。
特達中和旨，沈潛格致篇。叨承誨諭切，慟¹⁾哭隔新阡。
末學多迷路，先生儘不差。有心安義命，無計佐邦家。
溫厲存三變，嚴恭勝百邪。如何遽觀化，揮淚向殘霞。
克協剛柔德，仍全寵辱身。研精如不及，利用更無磷。
大業光前輩，流風被後人。斯文天豈喪，謨訓日星陳。

► 奇大升：1527~1572. 字는 明彦, 號는 高峰·存齋.

1) 慟：《逸集》·《高峰集》‘痛’

輓祭錄020-輓詞020

輓詞020

門下 前正郎 南彦經

好學光前哲． 知言古所難． 己私顏氏克， 斯道孟軻閑．
獻替心彌切， 丘園樂更完． 東韓垂軌範， 百世仰陶山．

▶ 南彦經：1528~1594，字는 時甫，號는 東岡．

輓祭錄021-輓詞021

輓詞021

門下 金富倫

早尋源派抱遺經．年益尊來德益成．出處行藏惟適義，
云爲動靜儘存¹⁾誠。²⁾ 名高北斗人皆仰，道冠東方士盡
傾．千載冰壺秋月後，陶山更有李先生．

箕封僻在海東壩．幾度經過五百年．天降眞儒夫子出，
□□遺□哲人傳．平生至樂身心上，晚歲餘閑水石邊．曳
杖一歌樛已壤，³⁾ 不堪□□送新阡．⁴⁾

一自摳衣解讀書，悠悠蹤跡廿年餘．提撕每喜蒙求⁵⁾我，
伎倆空慚罪在余．精舍春深風煖後，虛堂夜靜月明初．
從前萬事森⁶⁾如昨．不耐今朝歸柳車．

► 金富倫：1531~1598. 字는 惇敍, 號는 雪月堂.

1) 儘存：《逸集》‘信尊’

2) 出處……存誠：《雪月堂集》‘萬事應時持敬義，一心齋處進明誠.’

3) 已壤：《逸集》‘已壤’，今按：‘已壤’가 옳은 듯하다.

4) 箕封……新阡：《雪月堂集》에는 없다.

5) 求：《逸集》‘丘’

6) 森：《雪月堂集》‘渾’

輓祭錄022-輓詞022

輓詞022

門人 進士 權好文

斯文千載賴誰傳。皇降先生間世賢。義勝早知超宦海¹⁾，
道高偏樂處林泉。閒中日月書千卷，靜裏乾坤屋數椽。
出處身²⁾謀求實地，榮枯人事驗諸天。含章頓覺³⁾黃裳
吉，招俊煩⁴⁾愁紫綬牽。玉署芸⁵⁾臺曾少駐，巖⁶⁾棲蘭
室⁷⁾好言旋。襟期閩·洛冰壺洞，風操塵波砥柱堅。猿鶴
幾同遊澗壑。鳶魚時復玩天淵。燕居事業非徒爾，觸
處⁸⁾身心⁹⁾竟洞然。向¹⁰⁾上忠深圖聖學，開來誠篤述賢

▶ 權好文：1532~1587. 字는 章仲, 號는 松巖.

1) 海：《松巖集》‘路’

2) 身：《逸集》‘神’

3) 頓覺：《松巖集》‘自占’

4) 煩：《松巖集》‘翻’

5) 芸：《逸集》‘雲’

6) 巖：《松巖集》‘雲’

7) 室：《逸集》에는 없다.

8) 處：《逸集》에는 [추가 ‘處’下恐‘精’.]이 있다.

9) 身心：《逸集》·《松巖集》‘心神’

10) 向：《松巖集》‘導’

編。儒家山斗人爭慕，王國蓍龜事不愆。承教無能嗟小子！養真¹¹⁾猶喜侍幽¹²⁾仙，吝蒙累歲愚如一，薰德當時善幾千。函丈每憐功未進，奠楹何料夢初圓。誰將《詩雅》題¹³⁾刪後。難把《義經》問畫前。退舍悵無披亂策，陶軒恨絕弄清絃。築場子貢悲難及，負土侯芭愧未肩。弘景白雲迷¹⁴⁾古隴¹⁵⁾，淵明綠柳繞新阡。思賢碑立知他日。下馬陵高想億年。花月滿山春色老，慟號空作血啼鵑。

11) 真：《松巖集》‘靈’

12) 幽：《松巖集》‘真’

13) 題：《松巖集》‘稱’

14) 迷：《逸集》‘悲’

15) 隴：《松巖集》‘壠’

輓祭錄023-輓詞023

輓詞023

嘉義大夫同知中樞府使 朴啓賢

封事猶餘論．無何進《十圖》．胡爲返泉石，終末盡謀謨。¹⁾ 梁壞吾安仰．人亡道益孤．哀榮軫宸念，端爲惜眞儒．

夫子初登對，追趨伏細氈．忠言動天意，漢水上歸船．未作江湖別，虛裁「召命」篇．驚心歌薤露，哀淚冷如鈿．

南服觀風日，新詩和數篇．從公勤請教，戒我不芸²⁾田．未立程門雪，空徂伯³⁾玉年．衣冠慟⁴⁾長夜．葬得舊林泉．

► 朴啓賢：1524~1580. 字는 君沃, 號는 灌園.

1) 謨：《逸集》‘模’

2) 芸：《逸集》‘耘’

3) 白：《逸集》‘伯’

4) 慟：《逸集》‘痛’

輓祭錄024-輓詞024

輓詞024

門人 通政大夫知製教 許曄

夙礪求仁志，潛心古聖書。何嘗不引退，夫豈喜林泉。¹⁾
懇懇務時敏，駸駸實若虛。天心爲斯道，篤出示門閭。
駑質容清量，時時問字音。提開兼砭瀉，誘掖欲浸淫。
感念何曾輟，門牆更莫尋。聊將千里淚，灑與一挽吟。

► 許曄：1517~1580. 字는 太輝，號는 草堂.

1) 泉：《草堂集》‘居’

輓祭錄025-輓詞025

輓詞025

門人通訓大夫議政府舍人 尹根壽

已矣斯文喪！蒼蒼不慙遺。微言更無緒。絕學欲憑誰。
灑落明誠業，從容進退期。陶山餘物色，千古祇深悲。
哲人生一域。自是會元期。喬岳傾¹⁾群望，遺經析衆疑。
清通盡²⁾有契，殄瘁忽成詩。歲晏南天濶。悲風日³⁾夕
吹。
漢北初聞訃，南雲慘不開。執經乖宿願。矯首結深哀。
水色猶清洛，天光映晚臺。茫茫穹壤裏，誰遣泰山頽。

► 尹根壽：1537~1616. 字는 子固, 號는 月汀·畏菴.

1) 傾：《逸集》‘驚’

2) 盡：《逸集》‘眞’

3) 日：《逸集》‘一’

輓祭錄026-輓詞026

輓詞026

門人 星州牧使 金克一

崖松骨格竹風流。鍊道功深問幾秋。高爵自臻非所願。
眞名難掩豈容求。身辭青鎖紅雲闕，憂切滄波白鳥洲。
一老于今天不慙，蒼生望切¹⁾士林愁。
早向名場勇退還。山阿廿載養眞閒。不同空谷駒留繫，
徒似幽居帝畫看。屏獻《十圖》惇典學，䟽陳屢紙乞休
官。黃墟更荷宣麻寵，只恐英靈却未安。
年前携弟謁柴門，半日親承笑語溫。豈料離違經一月，
遽聞²⁾薨逝在初昏。空留文字陶山上，永闕音容洛水³⁾
源。絕學陳編誰補綴。傷心無處問乾坤。

► 金克一：1522~1585. 字는 伯純, 號는 藥峯.

1) 切：《逸集》‘絕’

2) 聞：《逸集》‘問’

3) 洛水：《逸集》‘汾水’

輓祭錄027-輓詞027

輓詞027

門人 吏曹佐郎 吳健

遺經嗟聖¹⁾遠，妙²⁾旨獨心傳。脚踏明誠地，神通灑落天。
舜廊謨幾薦³⁾，顏巷樂心⁴⁾全。痛矣斯文喪！陶山空鑱烟。⁵⁾

負笈尋東⁶⁾洛，摳衣願講求。堂空陪⁷⁾靜坐，江濶更清遊。⁸⁾
羈枕懷山日，仙舟⁹⁾去國秋。瞻思今已矣，長慟淚難收。

► 吳健：1521~1574. 字는 子彊, 號는 德溪.

1) 聖：《逸集》‘世’

2) 妙：《德溪集》‘微’

3) 謨幾薦：《德溪集》‘裏已露’

4) 心：《德溪集》‘還’

5) 陶山空鑱烟：《德溪集》‘茫茫洛水邊’

6) 東：《德溪集》‘清’

7) 陪：《德溪集》‘看’

8) 更清遊：《德溪集》‘侍洄游’

9) 舟：《德溪集》‘搓’

輓祭錄028-輓詞028

輓詞028

門生 裴三益

濂·洛眞傳屬晦翁，微言昭載簡編中。先生獨自追前緒，
天意元應相我東。絕學復明知有賜，斯文不墜是誰功。
摳衣十載蒙恩重，慕切羹¹⁾牆淚欲空。

▶ 裴三益：1534~1588. 字는 汝友, 號는 臨淵齋.

1) 羹：《逸集》‘美’

輓祭錄029-輓詞029

輓詞029

門人 藝文館檢閱 金誠一

斯文天未喪，間氣鍾眞儒。統緒傳關·閩¹⁾，淵源接泗洙。卷舒時義大，獻替廟謨紆。²⁾ 教雨沾東海，民彝賴不虧。³⁾

喬嶽崩何遽。儒林失所宗。天時關否泰，世道屬汙隆。豈止私吾哭。終深爲國恫。洛江流不舍，源派更誰窮。朽木終無用，徒深教育恩。摳衣過一紀，飾柳忽三春。學愧升堂列，誠非築室人。宦遊身又絆，南望血沾⁴⁾巾。

► 金誠一：1538~1593. 字는 士純, 號는 鶴峯.

1) 關閩：《鶴峯集》‘閩洛’

2) 紆：《逸集》‘訏’

3) 虧：《鶴峯集》‘渝’

4) 沾：《鶴峯集》‘霑’

輓祭錄030-輓詞030

輓詞030

門人 權知承文院副正字 李誠中

烏川一派紫溪承，更得先生集大成。玉色金聲程伯子，
冰壺秋月李延平。明誠兩進無偏廢，出處時中不要貞。
此道今人少相信，百千年後仰高名。
當時暫出豈徒然。病乞歸休莫是天。白髮新承明主眷，
蒼生未卜太平年。公身進退雲舒卷，世道升沈海變遷。
萬事只今驚夢奠，幾人能自得心傳。
星斗當年仰大名。春風一月立牆屏。孤舟別後魂疑斷，
千里書來夢喚醒。幸免能言似鸚鵡，方期惟肖比螟蛉，
皇天不爲斯文計，只與先生七十齡。

► 李誠中：1539~1593. 字는 公著，號는 坡谷.

輓祭錄031-輓詞031

輓詞031

門人 生員 金玢

才全德備學兼純¹⁾，千載吾東祇一人。秉筆百年能衛道，
開衾一夕已全身。窗梅自老愁前臘，庭草空榮憶舊春。
小子那堪文喪慟。²⁾ 青山萬古照³⁾芳塵。

► 金玢：1540~1616. 字는 希玉, 號는 柏巖.

1) 純：《柏巖集》‘醇’

2) 慟：《逸集》‘痛’

3) 照：《柏巖集》‘寄’

輓祭錄032-輓詞032

輓詞032

門人 李德弘

伊洛心傳海外身。丘林獨樂太平春。躬行敬義光前哲，
首揭明誠啓後人。作聖規模《圖》與筭，隨時出處智兼
仁。¹⁾ 那知一夕春風²⁾冷。執紼令人³⁾淚滿巾。

► 李德弘：1541~1596. 字는 宏仲, 號는 艮齋.

1) 作聖……兼仁：《艮齋集》‘時雨化中羣物茁，仁風及處萬生新.’

2) 春風：《艮齋集》‘山齋’

3) 人：《艮齋集》‘朝’

輓祭錄033-輓詞033

輓詞033

門人 弘文館修撰 柳成龍

抱道幽居不計年，洛江雲物愔悠然。煙霞逸想中投紉，
廊廟深憂晚奏篇。千古淵源真有屬，一般風月自無邊。
如何遽作山頽夢，忍使瑤琴又絕絃。
聖門墜緒竟誰傳，天上文星恠氣纏。千里夢魂今寂寞，
一生函丈更無緣。空將濟世憂民意，遽值崩山拔木年。
庭草春來還自綠，不堪殘¹⁾日照新阡。

► 柳成龍：1542~1607. 字는 而見, 號는 西厓.

1) 殘：《逸集》‘斜’

輓祭錄034-輓詞034

輓詞034

門人 南致利

寥寥千載倡吾東，洛汭源流續晦翁。敬義夾持齊內外，
明誠互進貫初終。存心爲己開來學，衛道閑雅¹⁾繼往功。
天喪斯文何太亟，皋比誰復擊群蒙。

▶ 南致利：1543~1580. 字는 義中, 號는 賁趾.

1) 雅：《逸集》‘邪’

輓祭錄035-輓詞035

輓詞035

門生 進士 沈喜壽

學則顏淵志則伊。行藏隨處繫安危。南荒薄業餘三畝，
北闕嘉謨有《十》規。加額人懷歸洛恨。築場我¹⁾抱夢
楹悲。更無山斗將誰仰。終失蒼龜只自疑。

丘²⁾園空抱壽民丹。富貴浮雲夢亦寒。學到明誠天不愧，
理窮狙伏死猶安。千年大道還長夜。一脈斯文復異端。³⁾
南國春風梅獨發。龍門回首涕洟瀾。

角巾當日早歸休。浮世升沈儘謬悠。堂室常存朱子旨，
江湖長抱范公憂。閒中義理研精盡。望外官資寵錫優。
孑孑吾儒今已矣。宗師何處更相求。

南來已遂明農計。北望常輸補袞哀。⁴⁾夢斷周公身又去，
祇今遺像畫圖中。

▶ 沈喜壽：1548~1622. 字는 伯懼, 號는 一松·水雷累人.

1) 我：《逸集》‘人’

2) 丘：《逸集》‘邱’

3) 端：《逸集》에는 없고, [추가 ‘異’下恐‘端’.]이 있다.

4) 哀：《逸集》‘忠’

輓祭錄036-輓詞036

輓詞036

門人 金隆

廟堂棟折誰能柱．道學樑摧孰¹⁾任扶．輦轡從今開不得，
只揮寒涕管嗟吁．

▶ 金隆：1525~1594. 字는 道盛, 號는 勿巖.

1) 孰：《逸集》‘誰’

輓祭錄037-輓詞037

輓詞037

門人 生員 陽川 許箴

雲谷微言¹⁾絕，年今五百廻。淫辭優眩俗，夫子任開來。
聖賢²⁾平生學，經綸一世才。工夫至³⁾純熟，理義捨⁴⁾安
排。木鐸天將振，陶山道共頹。民悲傳霖靄⁵⁾，士哭孔
樸摧。妙談⁶⁾勤開示，宏規竟卷懷。青丘不盡恨！寂寞
舊書齋。

► 許箴：1548~1612. 字_々 功彥，號_々 岳麓·山前。

- 1) 言：《岳麓集》‘音’
- 2) 聖賢：《逸集》‘賢聖’
- 3) 至：《逸集》‘到’
- 4) 捨：《逸集》‘舍’
- 5) 靄：《逸集》‘渴’
- 6) 談：《逸集》‘訣’

輓祭錄038-輓詞038

輓詞038

門人 生員 許筠

瑞日開長夜，東方五百年。道風箕子後，心訣遜翁前。
灑落冰壺月，沈潛聖學編。陶山今寂寞，墜緒更誰傳。

▶ 許筠：1551~1588. 字는 美叔, 號는 荷谷.

輓祭錄039-輓詞039

輓詞039

門人 生員 申灝

考亭千載後，大道屬吾東。林壑平生志，藏修晚歲功。
清貧顏氏樂，高¹⁾節伯夷風。慟矣儀刑²⁾隔，何從擊此蒙。

► 申灝

1) 高：《逸集》‘苦’

2) 刑：《逸集》‘形’

輓祭錄040-輓詞040

輓詞040

後學 宜寧 南彥紀

天挺賢豪德業崇．退休中歲學彌隆．明誠深造¹⁾無遺力，
敬義交修實用功．陳閉忠餘《十圖》上，經綸²⁾兆在一
疏中．遙聞會葬多知道．題墓誰追潞國公．
彭澤柳新暗，濂溪草又青．鸚³⁾聲還似舊，落日照虛
楹．⁴⁾

▶ 南彥紀：1534~未詳. 字는 張甫·季憲, 號는 靜齋·考槃.

1) 造：《逸集》‘助’

2) 綸：《逸集》에는 [추가 ‘綸’下‘兆’.]가 있다.

3) 鸚：《逸集》‘鶯’

4) 楹：《逸集》‘櫺’

輓祭錄041-輓詞041

輓詞041

門下 生員 南彥縝

絕緒尋千載，眞誠積力多。規模濂·洛律，行止孟·顏
科。澤世雖留恨，開來永不磨。清涼舊山月，獨照退溪
波。¹⁾

素分身何累。研幾理不差。²⁾行藏隨世道，終始玉無瑕。

▶ 南彥縝：1531~1607. 字는 敬甫, 號는 雪厓.

1) 波：《逸集》‘叟’

2) 差：《逸集》‘嗟’

輓祭錄042-輓詞042

輓詞042

門人 金堧

學術師尼父，淵源接考亭。簞瓢寧改樂。雲水自娛情。
天爵知吾分。浮榮豈外營。退陶稱晚隱，千載煥名聲。
敬義交修業，明誠¹⁾竝進功。行言掀宇宙，仕止合時中。
天喪文何在，人亡國又空。摳衣當日事，揮淚灑東風。

► 金堧：1538~1576. 字는 子厚，號는 雪厓.

1) 明誠：《逸集》‘誠明’

輓祭錄043-輓詞043

輓詞043

門人 侍生 生員 李純仁

早卜桑鄉近，婆娑老一廛。波通紫溪月，山接戴尼烟。
白酒看花¹⁾夕，青燈讀易年。遙欽晚隱字，碑上又新²⁾
鐫。

此日云亡慟，茫茫欲問天。歸休漢太傅，經術宋諸賢。
後學知何托，蒼生更可憐。無人理餘韻，還斷匣中絃。³⁾

▶ 李純仁：1533~1592. 字는 伯生·伯玉, 號는 孤潭.

1) 花：《逸集》‘梅’

2) 新：《逸集》‘深’

3) 還斷匣中絃：《逸集》에는 뒤에 ‘千里含哀慕，陶山禮几筵。斯人眞不數，吾道復能傳。永負同安步，空伸處士處。春風吹客鬢，獨返意徒然.’이 있다.

輓祭錄044-輓詞044

輓詞044

門人 具贊祿

向來香瓣哭南豐．不吊天何降鞠凶，夢奠兩楹夫子沒¹⁾，
風顛萬木考亭空．橫流百世開文脈，絕學千年續道宗．
已矣忽分光岳氣，梁摧今古士林恫．
天意如何不吊東．人亡痛五百年窮．斯文已喪孔夫子，
吾道無傳朱晦翁．闕里杏壇絃誦斷，蘆峰 雲谷講筵空．
向來門下那堪慟²⁾，提耳詢詢亦不聰．

▶ 具贊祿：1519~1595. 字는 汝膺, 號는 松顔, 松顔亭.

1) 沒：《逸集》‘歿’

2) 慟：《逸集》‘痛’

輓祭錄045-輓詞045

輓詞045

通政大夫 前 寧海府使 李仲樾

平生心契在山村，終始寧忘聖主恩。禮極黃扉新寵眷¹⁾，
貧深白屋²⁾舊田園。潭邊永³⁾絕清羸影，梅下難招灑落
魂。越壑穿雲今已矣。芒鞋竹杖向誰門。

▶ 李仲樾：1504~1582. 字는 公幹, 號는 賀淵.

1) 眷：《賀淵集》‘錫’

2) 屋：《逸集》‘玉’[추가 ‘玉’, 一本作‘屋’.]

3) 永：《逸集》‘影’[추가 上‘影’字, 一本作‘永’.]

輓祭錄046-輓詞046

輓詞046

隣侍 李文樸

人皆求識面，我幸爲知己。人皆願卜隣，我幸居仁里。
相隨自妙齡，肝膽兩相視。良辰與美景，林園窮樂事。
此生不虛過，餘波之所被。近來各衰暮，相思懶相值。
人生本草草，豈意遽至此。奎壁忽淪精，南天收淑氣。
門徒舉國士，奔波來不已。自慚九牛毛，未堪齒諸子。
幽明隔一夜，孤負平生志。羊曇無限淚，聊復寫一二。
莫謂別多時。吾年七十四。

► 李文樸：1498~1581，字는 大成，號는 碧梧·綠筠。

輓祭錄047-輓詞047

輓詞047

門人 司諫院正言 知製教 洪聖民

天地眞元會，斯文正在茲。身承墜緒出，心向聖門期。
陋巷尋顏樂，陳編得孔思。直方功最密，繼續學彌熙。
名利關曾透，高堅德是追。微言歸妙¹⁾契，精義入眞知。
理徹誠明地，神融博約時。虛懷降玉札，抱懇赴丹墀。
堯·舜君民²⁾志，程·朱問學規。勤勤封事語，眷眷講筵
辭。經濟非無意，行藏要得宜。塵埃衣可拂，林壑意還
怡。嘉遯從貞吉，幽棲續武夷。薰陶時雨化，趨嚮³⁾世
風移。聲作三韓範，身爲百代師。昊天今不憖，那⁴⁾國
竟何爲。道廢眞由⁵⁾命，人亡遽至斯。山頽吾孰仰，龍
逝事堪悲。未復春風座，空吟薤露詞。天涯看日落，

► 洪聖民：1536~1594，字는 時可，號는 拙翁。

1) 妙：《逸集》‘渺’

2) 民：《逸集》‘臣’

3) 嚮：《逸集》‘向’

4) 那：《逸集》‘邦’

5) 由：《逸集》‘儒’

慟⁶⁾哭爲公私.

6) 慟：《逸集》‘痛’

輓祭錄048-輓詞048

輓詞048

門人 通政大夫 刑曹參議 朴謹元

墜緒茫茫孰更尋 先生千載用功深 文章豈但驚時世 德
業還應耀古今 進退終知皆有義 經綸未必本無心 陶山
寂寞吾安仰 南望題詩淚滿襟。

▶ 朴謹元：1525~1585, 字는 一初, 號는 駱峯·望日齋.

輓祭錄049-輓詞049

輓詞049

門人 承文院副正字 金泰廷

千聖相傳只此心。先生生晚極追尋。存¹⁾誠主敬根基厚，
精義修辭造詣深。未展全才付世道，空留妙²⁾訣作儒林。
勤勤當日開來志，有幾人懷我好音。
學子宗朱³⁾訓，民生望傳霖。致君違素志，明道遂初心。
雨露空恩數。風雲奈古今，斯文天所喪，餘規孰能任。
龍門許席心先醉。驪水歸帆⁴⁾恨不禁。祔禮依然留寄札，
春風那得更被襟。
苦被青衫縛，還違白馬臨。溪山春欲暮，何處浴歸吟。

▶ 金泰廷：1541-1588. 字는 亨彦.

1) 存：《逸集》‘尊’

2) 妙：《逸集》‘渺’

3) 朱：《逸集》‘周’[추가 ‘周’，一本作‘朱’.]

4) 帆：《逸集》‘帆’

輓祭錄050-輓詞050

輓詞050

門人 嘉善大夫 兵曹參判 柳景深

一生終始累朝榮，不改蕭然丘壑情。山似武夷當戶立，
溪分活水繞¹⁾階鳴。坐²⁾虛前席傾三接，天喪斯文奠兩
楹。慟³⁾迫楓震崇禮秩，未隨攀紼⁴⁾淚沾纓。

► 柳景深：1516~1571. 字는 太浩, 號는 龜村.

- 1) 繞：《逸集》‘遶’
- 2) 坐：《龜村集》‘座’
- 3) 慟：《龜村集》‘痛’
- 4) 紼：《龜村集》‘拂’

輓祭錄051-輓詞051

輓詞051

門人 宗親寺 主簿 曹駿¹⁾龍

昔年因海客，函丈問酬親。雲水篇盈篋，誠明¹⁾訓在紳。
常思留²⁾止宿，豈意負千春。懷祿未能去，終身愧古人。

▶ 曹駿龍：字는 雲伯。

1) 駿：《逸集》‘俊’

1) 誠明：《逸集》‘明誠’

2) 留：《逸集》‘遊’

輓祭錄052-輓詞052

輓詞052

門人 前成均館學錄 曹光益

玉色溫溫間氣鍾。談論菽粟與人同。旁通藝業多能事，
兩進明誠獨得功。魁斗望高星拱北，大川源遠水歸東。
丘園不是忘斯世，遇遜心懷問晦翁。

▶ 曹光益：1537~1580. 字는 可晦, 號는 聚遠堂·竹窩.

輓祭錄053-輓詞053

輓詞053

門人 金生溟

百藥難成已矣哉． 如何造物謾多猜． 國家爲慟元龜喪，
鄉邑同傷太¹⁾岳摧． 小子稽疑何問業． 諸生試藝孰掄才．
潛心濂·洛·關·閩學，可昔²⁾無人啓³⁾後來．

▶ 金生溟：1504~1577. 字는 士浩, 號는 訥齋.

- 1) 太：《逸集》‘泰’
- 2) 昔：《逸集》‘惜’
- 3) 啓：《逸集》‘繼’

輓祭錄054-輓詞054

輓詞054

門人 司果 姜文佑

望洋空恨落蹄涔，一進摳衣聽玉音。目擊儀刑¹⁾知道貌，
面承言論得真心。服膺早晚尋顏巷，灑淚蒼茫惜傳霖。²⁾
千載依歸何處托，陶山卓立洛江深。
獨抱幽貞弄玉琴，峨洋彈罷少知音。休官去國南歸日，
憂世思君北望心。墜緒深³⁾來承遠統，狂瀾收了救平沈。
斯文有賴微言析，功力何人記得心。⁴⁾

► 姜文佑：字ㄴ 汝翼，號ㄴ 菁山。

1) 刑：《逸集》‘形’

2) 霖：《逸集》‘林’

3) 深：《逸集》‘尋’

4) 心：《逸集》‘深’

輓祭錄055-輓詞055

輓詞055

門人 琴應夾

卜築溪山寂寞濱，圖書四壁志經¹⁾綸。清貧不改簞瓢樂，
終始²⁾能全³⁾道德身。⁴⁾ 密勿謀⁵⁾猷追稷·契，精微事業
繼關·閔。海東千載唯⁶⁾夫子，善學如今有幾人。
應運青丘⁷⁾得不傳。行藏舒卷肯違天。歸田一念江河決，
憂國深懷⁸⁾日月懸。扶植士林培正脈，倡明吾道續前賢。
無緣更侍春風座，獨向空山淚迸泉。

► 琴應夾：1526~1586. 字는 協之，號는 日休堂.

- 1) 經：《日休堂遺稿》‘彌’
- 2) 終始：《日休堂遺稿》‘明哲’
- 3) 全：《逸集》·《日休堂遺稿》‘傳’
- 4) 身：《日休堂遺稿》‘氣’
- 5) 謀：《逸集》‘謨’
- 6) 唯：《日休堂遺稿》‘惟’
- 7) 丘：《日休堂遺稿》‘邱’
- 8) 懷：《逸集》‘憂’，*《日休堂遺稿》‘誠’*

輓祭錄056-輓詞056

輓詞056

門人 通訓大夫 行 弘文館校理 知製教 金弼

名世生當五百年，分明一派紫陽傳。深源正自閒中得，
至樂長從靜虛全。久信行藏惟義命，誰將軒冕較林泉。
經帷三接還山去，此日新阡涕倍漣。

陪賞陶出日，揚舲漢水時。向來蒙繾眷¹⁾，何忍久分離。
擬作他年會，翻成此夜悲。一爲邦國痛²⁾，非但哭吾私。

▶ 金弼：1531~1580. 字는 景嚴, 號는 水村.

1) 眷：《逸集》‘繾’

2) 痛：《逸集》‘慟’

輓祭錄057-輓詞057

輓詞057

門人 吏曹佐郎 鄭芝衍¹⁾

千載斯文復大東。退溪雲水武夷同。宦情元自初年薄，
道味偏於老境融。描畫歐陽非一節。淵源尼父是全功。
經綸未展山頽遽，奈此吾人叫昊穹。
厚德高名比岳崇。凡庸如我受恩洪。曾叨鸚薦知欺鑑。
每服箴規荷擊蒙。無復餘生瞻北斗，謾將淫淚泝東風。
他年忍過陶山路，滿目烟霞慘淡²⁾中。

▶ 鄭芝衍：1527~1583. 字는 衍之, 號는 南峯.

1) 衍：《逸集》‘愆’

2) 淡：《逸集》‘檐’

輓祭錄058-輓詞058

輓詞058

門人 前 承文院判校 金彦琚

昨夜文星隕海東。青山何處起新封。¹⁾ 清忠一節時論重，
啓秦千言睿眷隆。諸士雖知道州翁²⁾，世人寧識龜山翁。
交遊平日情非淺，白首羊曇慟曷窮。
賃屋西域隅，從公³⁾朝復晡。文辭綴連璧，咳唾落明珠。
樑毀吾安仰。人亡道固癯。空令江海客，慟哭⁴⁾奠生葛。

► 金彦琚：1503~1584. 字ㄴ 季珍, 號ㄴ 漆溪.

1) 封：《逸集》‘峰’

2) 翁：《逸集》‘叟’

3) 公：《逸集》‘君’

4) 慟哭：《逸集》‘痛泣’

輓祭錄059-輓詞059

輓詞059

門下 通政大夫 禮曹參議 任鼎臣

清臞風骨雪霜姿，文行俱爲一¹⁾世師。緣病既能堅素節，
乞骸非是厭明時。安貧樂道同顏氏，立懦廉頑等伯夷。
六載宣城親炙久，摧櫟悲淚自交頤。
千年復見道來東，爭賀園陵降祚隆。四聖繼勤前席禮，
一身長作退溪翁。非無壽域蒼生念，空有斯文萬代功。
白首親情餘少恨，誰將崇級答窮通。

▶ 任鼎臣：1512~1588. 字는 調元, 號는 西河.

1) 一：《逸集》‘百’

輓祭錄060-輓詞060

輓詞060

門人 造紙署別提 權東美

吾道東歸日，先生岳降辰。窮淵開絕學，明理覺斯人。
蕭¹⁾灑陶山下，逍遙洛水濱。天淵臺上月，千古照光塵。
痛矣將安仰。斯文喪我東。粹盎無復見，模範已云空。
士失宗師望，邦懷殄瘁恫。鰥²⁾生曾荷寵，無路贖微躬。

▶ 權東美：1525~1585. 字는 子休, 號는 石亭.

1) 蕭：《逸集》‘瀟’

2) 鰥：《逸集》‘鰥’

輓祭錄061-輓詞061

輓詞061

門人 禮曹正郎 宋應漑

心法平生着力專，晚來心¹⁾得紫陽傳。明誠兩進功爲密，
體用俱全道不偏。直知²⁾盲聾開蔽塞，更抽關鍵發幽玄。
天心未欲興文運，惜與先生假數年。
養道林泉日月閒，有時憂國鬢毛斑。忠誠懇惻³⁾章疏際，
進退從容禮義間。士子傾心瞻北斗，民生加額望東山。
如何未展胸中蘊，一閉佳城夜正漫。

► 宋應漑：1536~1588. 字는 公溥.

1) 心：《逸集》‘深’

2) 知：《逸集》‘叩’

3) 惻：《逸集》‘側’

輓祭錄062-輓詞062

輓詞062

門下 林塘 鄭惟吉

間氣人爭識，微言衆莫聞。溫平菽粟味，燦¹⁾爛斗²⁾牛
文。進退依先正，尊崇荷聖君。山顏更安仰。剛厭世紛
紛。

名下追隨久。寮中獎誘偏。南樓枕書日，西郭擷芳年。
往迹空超電，餘生不直錢。重逢倘有地，應在玉皇前。³⁾

► 鄭惟吉：1515~1588. 字는 吉元, 號는 林塘·尙德齋.

1) 燦：《逸集》·《林塘遺稿》‘祭’

2) 斗：《逸集》‘北’

3) 名下……皇前：《逸集》에는 없고, [추가] 一本又有一首, ‘名下追隨久. 寮中獎誘偏. 南樓枕書日, 西郭擷芳年. 往迹空超電, 餘生不直錢. 重逢倘有地, 應在玉皇前.’]이 있다.

輓祭錄063-輓詞063

輓詞063

門下 折衝將軍行義興衛司猛 林芑

濂·洛淵源久已湮。慇懃疏鑿接通津。受隆師禮古三老，
繼絕學功令一人。心上獨能知進退，世間空復冀經綸。
曾蒙目擊開迷惑，遙奠生芑淚滿巾。
德稱才難古¹⁾昔然，先生於此獨能全。紅塵收跡忘軒冕，
黃券專心對聖賢。座上春歸天不吊，雪中人在道堪傳。
青山馬鬣空埋玉。萬古斯文白日懸。

▶ 林芑：未詳~1592. 號는 垂胡子.

1) 古：《逸集》‘自’

輓祭錄064-輓詞064

輓詞064

進士 申莫秀

月桂曾揮玉斧脩。青雲得路上瀛洲。閑中手把騷壇鉞，
靜裏身承學海舟。隔巷處時顏氏樂，廟堂居日范公憂。
稀年忽罷莊園夢。位極追恩永世休。

▶ 申莫秀：1549~未詳. 申光涉의 아들.

輓祭錄065-輓詞065

輓詞065

門人 前 參奉 裴紳

洙泗眞源歎絕流。天寒泰岳幾春秋。先生涵脈心無極，
後學沿洄志有求。探緒不傳懷霽月，揮前未發溯¹⁾滄洲。
斯文遽喪天何忍。長夜乾坤萬古愁。
功深人泯見天還。眞積中和自在閒。一本存存要顧諟，
千²⁾條燦燦³⁾任詳看。圖書至理三王統，禮樂文爲五帝
官。啓沃未終天不慙，邦家誰與補治安。
沿⁴⁾流憶昔拜柴門。玉色承顏栗又溫。細剔工夫全一理，
通論事業擊群昏。山尊酒美成眞率，心法精凝入道源。
豈料儀刑⁵⁾還冰隔。鰥生老淚徹純坤。
尋源九曲日何其。丁卯三春月晦時。仰仰⁶⁾喜瞻山立表。

► 裴紳：1520~1573. 字는 景餘, 號는 洛川.

- 1) 溯：《逸集》‘沂’
- 2) 千：《逸集》‘天’
- 3) 燦燦：《逸集》‘粲粲’
- 4) 沿：《逸集》‘沿’
- 5) 刑：《逸集》‘形’

溫溫忻接玉生輝，道通天地陰陽理，思透幽明動靜機。
承誨未終梁木毀，斯文慟⁷⁾極涕漣洏。

6) 仰仰：《逸集》‘抑抑’

7) 慟：《逸集》‘痛’

輓祭錄066-輓詞066

輓詞066

前 學官 權應仁

相公先生曾以參議辭退，明宗屢爵秩進階崇政累徵不起。今上特拜大提學辭不就，職仕于朝十閱月移疾還鄉。隆慶庚午十二月初八日卒于禮安之第享年七十。敦重溫雅清慎寡慾，博學多聞詞翰俱公爲，當代理學之宗。自號退溪。¹⁾

經學荒蕪更發揮。儒林根柢國著龜。功名事業三朝老，道德文章百世師。田里養閒忘寵辱，廟堂虛位繫安危。騎箕忽被天工奪，山月淒涼照武夷。

平生事業本經綸。時晦元非學隱淪。千駟未回伊尹志，萬鍾寧換子輿貧。精微自擬研窮力，道義終全進退身。零落〇煙霞長慟處，匣琴絃絕續無人。²⁾

▶ 權應仁：1517~未詳。字는 士元，號는 松溪。

1) 相公……退溪：《逸集》에는 없다.

2) 平生……無人：《逸集》에는 없다.

師友淵源洛與伊，多才餘事又能詩。驚人妙語江山助，
蓋世英名草木知。賜爵屢增休退日，抱痾終謝聖明時。
三年尚減宣尼壽，怨彼蒼天不憖遺。

輓祭錄067-輓詞067

輓詞067

司饗正 張應旋

不係榮枯世外身。釣臺風日坐垂綸。休將姓字求人識。
却恐兒曹損我真。富貴豈能移志操。清高猶自泰情神。
士林無錄斯文喪。遺草空驚手澤新。

► 張應旋：1499~未詳。字ㄣ 仲紀。

輓祭錄068-輓詞068

輓詞068

李良國

五百年來道始聞，如何還復喪斯文。東湖陣迹同舟別，
南嶺橫雲兩地分。畫弼¹⁾人間傳古像，箕明天上起新墳。
挽歌千里聲聲裂，曉露淒淒淚濕巾。

► 李良國

1) 弼：《逸集》‘鬻’

輓祭錄069-輓詞069

輓詞069

門人 迎曙察訪 驪江 李光軒

曾受提撕已廿齡，耳邊諄語尙如聆。工夫直指先居敬，
事業要看在自明。金玉遐心終遁思，珪璋粹面隔儀刑。¹⁾
身縻寸錄違情禮，奔恩²⁾延平愧考亭。

▶ 李光軒：1531~未詳，字ㄱ仲謹。

1) 刑：《逸集》‘形’

2) 恩：《逸集》‘赴’

輓祭錄070-輓詞070

輓詞070

門人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 崔顥

墜緒茫茫繼者誰。天生夫子¹⁾作宗師。退溪萬古同清洛，
陶阜當今卽武夷。廊廟共期興禮樂。江湖猶自係安危。
山頽此日人何仰。路斷依歸淚盡垂。
攀髯餘淚灑雲林。應召初年輔翼深。疏列治規留作鑑，
圖陳聖學用爲箴。七來本係蒼生望，一去寧忘魏闕心。
從此丘原²⁾無起日，九重何限憶商霖。
憶趨門下歲庚申。盡日叨陪座上春。數仞自慚虛卒業，
一言猶願佩終身。漢津舟急人從遠，嶺表書回墨尚新。
千里炙雞心又貧。題詞南望淚盈巾。

▶ 崔顥：1528～1582. 字는 景肅, 號는 南岡.

1) 夫子：《逸集》‘大老’

2) 原：《逸集》‘園’

輓祭錄071-輓詞071

輓詞071

通政大夫 弘文館副提學 盧禎

天欲喪斯文¹⁾，其如不憖遺。²⁾ 洛城曾³⁾再侍，江口暫相期。未遂親薰願，還吟殄悴⁴⁾詩。哀榮今日事，吾道竟何爲。

關⁵⁾·洛⁶⁾淵源學，高風百世師。兩朝優禮重，一代大名馳。胡⁷⁾奈經綸志，終無分寸施。樑摧慟⁸⁾忽⁹⁾亟，舉國盡傷咨。¹⁰⁾

▶ 盧禎：1518~1578. 字는 子膺, 號는 則菴·玉溪.

- 1) 喪斯文：《逸集》‘斯文喪’
- 2) 其如不憖遺：《玉溪集》‘今公不少遲’
- 3) 曾：《逸集》‘聊’
- 4) 悴：《玉溪集》‘瘁’
- 5) 關：《玉溪集》‘閩’
- 6) 洛：《逸集》‘閩’
- 7) 胡：《玉溪集》‘何’
- 8) 樑摧慟：《玉溪集》‘摧樑痛’
- 9) 慟忽：《逸集》‘忽痛’
- 10) 舉國盡傷咨：《玉溪集》‘天意儘難知’

輓祭錄072-輓詞072

輓詞072

嘉善大夫 禮曹參判 朴應男

河洛傳心法，從容汗簡中。誠明眞灑落，物欲任消融。
豎拂期通聖，探藏獨諳功。邇來知士學，扶翼正由公。
去年留洛日，扶策叩天關。苦恨閒人鬧，其如行李還。
承秋拜先墓，取路訪陶山，此計終歸左，難堪涕淚潛。

► 朴應男：1527~1572. 字는 柔仲, 號는 南逸·艮齋·退庵.

輓祭錄073-輓詞073

輓詞073

門人 白見龍

晦翁千載有陶翁。天運循環道又東。病廢林泉徵不起，
沈潛義理樂無窮。圖書左右明齋舍，提覺生徒發蔽蒙。
灑落襟靈通霽月，雍容氣度溢光風。著龜邦國稽疑定，
星斗斯文聖學隆。君子沛然爲善變，小人誰復逞姦兇。
微生幸蒙升堂拜，來往溪間¹⁾夏又冬。豈料夢楹天莫遺。
樛頹²⁾非獨士林忉。

▶ 白見龍：1543~1622. 字는 文瑞, 號는 性軒.

1) 間：《逸集》‘門’

2) 頹：《逸集》‘摧’

輓祭錄074-輓詞074

輓詞074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李後白

偏邦叔世事堪吁，哲士湮¹⁾沉正路蕪。天未喪文公舊起，
學惟爲己老勤劬。功嚴持敬操存熟，理入精思表裏俱。
憂樂在時終疾病，筭章論道只唐虞。川舟待濟期方切，
樑木其摧慟²⁾莫扶。哭罷士林還小慰，九重猶展舊屏圖。

▶ 李後白：1520~1578. 字는 季眞, 號는 青蓮.

1) 湮：《逸集》‘堙’

2) 慟：《逸集》‘痛’

輓祭錄075-輓詞075

輓詞075

通政大夫 兵曹參議 知製教 洪天民

吾道無存滅，斯文有屈伸。眞儒挺生世，前哲緬交神。
德業鳴南服，聲輝徹北宸。朝端留跡少，林下拂衣頻。
辭受皆由義，行藏豈染塵。沈潛窮性理，完養萃精純。
本是懷經濟，元非慕隱淪。共推山斗望，還與水雲親。
暫起緣明主，遄歸爲病身。脩門雖入夢，陋巷轉安貧。
學紹千聖統，名高一代臣。櫟顏¹⁾人失仰，峰折運羅屯。
抗疏忠如昨。成《圖》墨尙新。宗師嗟已喪，私淑悵何
因。未側樞衣列，難隨執紼賓。儀刑²⁾追莫及。風韻挹
甘珍，鳴咽濂溪水，淒涼鹿洞春。寒齋堆几案，幽經³⁾
鎖松筠。無復聞絃誦，空思薦藻蘋。含情吟殄悴，衰涕
倍沾巾。

► 洪天民：1526~1574. 字는 達可, 號는 栗亭.

1) 顏：《逸集》‘摧’

2) 刑：《逸集》‘形’

3) 經：《逸集》‘徑’

輓祭錄076-輓詞076

輓詞076

門人 通政大夫 工曹參判 沈義謙

鄒魯邈已¹⁾遠，大道真鹵莽。紛紛數千載，誰能免聾瞽。
皇天佑大宋，五星復奎聚。程·朱繼絕學，天日明率普。
邈矣我東土，彈丸愧大字。²⁾自從³⁾箕封後，用夏變夷虜。
泐襲事文章，敢闕⁴⁾聖門戶。幸有圃隱翁，建校陳篋簋。
卓卓數君子，嚶嚶師尼父，天意竟不助，興言淚阿睹。
惟公稟間氣，少稱能幹蠱。從事爲己學，不但理訓詁。
拾芬取科第，登揚躋臍臚。經帷勤啓沃，藝院煥黼黻。
天人漢董子，山斗唐之愈，兩聖繼陟方，慘慘多風雨。
色舉但見公，冥鴻誰得弩。謁來衡茅下，好學安貧窶。
下學而上達，入精乃自粗。博學而約禮，逢原左

▶ 沈義謙：1535~1587. 字는 方叔, 號는 巽菴·艮菴·黃齋.

1) 鄒魯邈己：《逸集》‘魯鄒迫己’

2) 字：《逸集》에는 없고 [추가 ‘字’字恐缺一字.]가 있다.

3) 從：《逸集》에는 없고 [추가 ‘字’下一本有‘從’字.]가 있다.

4) 闕：《逸集》‘窺’

右取。優遊禮法場，造次遵規矩。遂爲一代宗，頽波屹砥柱。蒼生怨不起，聖主思賢輔。鶴書幾赴隴。束帛來旁午。有誠必有感，幡然思袞補。八音遽遏密，天顏終未覩。茹痛⁵⁾返故廬，悵悵徒自苦。嗣王新繼明，爲學慕舜·禹。千載乃一時，公能起南土。誠深繼百王，意切忠新主。虛心前席問，所學期盡吐。指掌在《十圖》，毫分而析縷。契合動昭融，陶甄共蹈舞。如何起歸思，致治終不古。行止孰使之，用舍眞天數。再謁終南宅，一別廣津滸。平生景仰志，漠漠杳雲樹。樛木忽云頽，斯文更何怙。精神彌宇宙，萬古誰敢侮，揮淚寫哀詞，臨風拜傴僂。

5) 痛：《逸集》‘恨’

輓祭錄077-輓詞077

輓詞077

門下 承文院 副正字 成洛

先生生南州，氣宇何精爽。早悅河洛學，劬書劇熊掌。
遠懷君民志，中年薦金榜。翱翔白玉堂，論事益忠讜。
慨然君子儒，清標超世綱。宦道¹⁾損朱顏，故林思偃仰。
書歸陶山舍，研窮益遵養。聖主愛儒臣，講筵傷久曠。
玉札下山門，龍樓入夢想。一身四朝恩，廿載還復往。
眷眷當寧隆，玉汝深倚仗。嘉謨備章疏，聖學著圖象。
啓沃良已勤，進退古人倣。大義君亦許，漢水歸船放。
我家有山水，徜徉胷懷盪。舊學樂新功，世味驚疇眼。²⁾
沈潛仁義府，白首益自彊。浸浸敬義階，進退明誠兩。
尤推子朱子，自信不我罔。出處言動節，分明是一樣。
多士遠方至，邇來識趨向。人師雖不居，薰德各充量。

► 成洛：1542~1588. 字_ㄴ 士伸，號_ㄴ 南崖。

1) 道：《逸集》‘途’

2) 眼：《逸集》‘曩’

猗與我先生！學下能達上，千秋滄海東，名係³⁾斯文長。
奄忽風拔木，仁何壽不享。哲人生死關，天心亦憺怳。
小子極無狀，出入濫叨獎。山林阻追隨，京洛頗擾攘。
一病臥三春，未得送歸槩。閉門若有失，南望空惘惘。
長思林下歸，書齋陪几杖，變此愚魯質，平生荷矯枉，
將身官守拘，城市歌慨慷。那知事又謬，泰山歌起響。
朝野同一悲，沉慟⁴⁾迫吾黨。宸心甚哀悼，亦爲斯道⁵⁾
喪。風雨嗟何及，吞聲長惻愴。末路少所依⁶⁾，俛俛瞽
無相。一哭阻靈筵，何由會其葬。有若不勝衣，溫溫昔
儀像！中心已欽佩，卽今隔泉壤。一恨死不暝，卒業終
缺望。天地日榛蕪，未知稅歸鞅。

3) 係：《逸集》‘繫’

4) 慟：《逸集》‘痛’

5) 道：《逸集》‘文’

6) 依：《逸集》‘宜’

輓祭錄078-輓詞078

輓詞078

門人 戶曹佐郎 朴漸

先生挺海東，淑氣分星岳。含英又咀華，勵志紹絕學。
理窟躋程·朱，文章如甫·白。□□□□□¹⁾，士望斯文
作。視世不可爲，山林於晦迹。諸儒盛連²⁾裾，哀如會
白鹿。論道無音地，推原有象域。身雖臥嶺表，實是培
國脈。桐江一釣絲，豈非扶漢室。先朝盡盛禮，屢下徵
賢札。乘蒲至漢中，旋作遺弓哭。當寧望如渴，一就還
邁軸。霜風一夜起，玉芝俄摧折。皇惜鑑亡遽，人悲星
殞酷。天高莽未憑。道喪嗟何托。蒼生猶絕望，士林爭
抱泣。退溪悲春草，陶山愁落日。嗟余一湊學，夙歲資
扤拭。時承溪上書，宛侍先生側。如今不慙遺，此痛向
誰說。我病而誰砭，我蒙而誰擊。官守未執紼，情與禮
俱闕。南望一涕泗，悲風助幽咽。

▶ 朴漸：1532～未詳。字는 景進，號는 復庵。

1) 五字缺：《逸集》에는 [추가 ‘白’字下恐缺一隻.]가 있다.

2) 連：《逸集》‘聯’

輓祭錄079-輓詞079

輓詞079

門人 司諫院正言 知製教 尹卓然

展也天生德，巍然間世資。程·朱斯尚友，鄒·魯有餘師。次第明誠進，尋常敬義知。¹⁾工夫無隙漏，充積自根基。衆望歸星岳，高名聞乳兒。曾紆²⁾先代眷，偏荷嗣王知。勤講升堯殿，論思拜舜咨。《圖》成明指掌，章上盡箴規。臨老優筋力，當機炳蔡龜。辭榮從好遯，引養取貞頤。庵小依雲谷，回似武夷溪。³⁾四時饒得趣，萬事樂隨宜。庭草憐交茁，盆梅愛獨奇。簞瓢元綽綽，博約復孜孜。漸喜幽居穩，還甘卒歲嬉。云胡無妄疾，終使哲人萎。大木風初拔，中堂寢遽移。斯文今喪矣。吾道竟何其。士失治蒙望，人爲造物欺。我生嗟末世，何幸獲同時。壁泮⁴⁾瞻山立，天庭覩鳳儀。心雖願親炙，

► 尹卓然：1538~1594. 字는 尙中, 號는 重湖.

1) 知：《逸集》·《重湖集》‘持’

2) 紆：《重湖集》‘于’

3) 回似武夷溪：《逸集》·《重湖集》‘溪回似武夷’

身奈阻舉此.⁵⁾ 謂有重陪處，猶存後日期，未承堅固訓，
翻作隕沉悲。持底申餘慕，於何考大疑。陶山高且遠，
洛水浩無涯。賸馥難消歇。清飈不盡吹。只沾⁶⁾身後澤，
空⁷⁾對卷中辭。⁸⁾ 德宇生終訣，仙遊夢可追。邦人均是
厄，慟哭更吾私。

4) 泮：《逸集》‘畔’

5) 此：《重湖集》‘比’

6) 沾：《逸集》‘添’

7) 空：《逸集》‘還’

8) 辭：《逸集》‘詞’

輓祭錄080-輓詞080

輓詞080

弘文館校理 知製教 李海壽

簞瓢一樂謝纓簪，濂·洛源流自得深．畢竟行藏關氣數，
只應功業在來今．斷絃妙¹⁾曲人誰和．²⁾ 卒易餘齡天未
諶．晚隱寓名知自道．高風百世³⁾起人欽．

▶ 李海壽：1536～1599. 字는 大仲, 號는 藥圃·敬齋.

1) 妙：《逸集》‘渺’

2) 和：《逸集》‘化’에는 [추가 如‘和’.]가 있다.

3) 世：《逸集》‘代’

輓祭錄081-輓詞081

輓詞081

折衝將軍 行 忠武衛上護軍 李山海

蝴蝶驚梁木，蝦蟆蝕¹⁾壁纏。斯文今已矣，吾道竟誰傳。
凍雨迷南極，愁雲暗北天。傷心退溪畔，春草又新年。
衰白窮經日，黔蒼繫望時。一生雖並世，千里未摳衣。
道喪嗟何托，天高恨失依。空將無恨淚，揮灑數篇詩。

▶ 李山海：1539~1609. 字는 汝受, 號는 鵝溪·綜南睡翁.

1) 蝕：《逸集》‘動’[추가 ‘動’, 一本作‘蝕’.]이 있다.

輓祭錄082-輓詞082

輓詞082

前 淮陽府使 楊士彥

花潭身世悲張子，退老生涯哭晦翁。未信賦余初偶爾，
自知傳道¹⁾竟相同。文忠正學維將絕，河洛淵源泝²⁾已窮。
日月貞明天地久，聖賢心迹《十圖》中。

氣鍾崑崙無外始，學傳濂·洛下帷初。去時弔歡隨駕，
就處連茅喜拔茹。議禮舉朝同入告，積痼增發有歸歟。
波回泗水麟經斷，韶輟虞廷³⁾鳳閣虛。忠敬照餘三宿日，
淵源圖盡十成書。哀臨東海無從淚，忍過南溪一草廬。⁴⁾

► 楊士彥：1517~1584，字는 應聘，號는 蓬萊·完邱·滄海·海客。

1) 道：《逸集》‘受’[추가 ‘受’恐‘道’之誤.]

2) 泝：《蓬萊詩集》‘遡’

3) 廷：《逸集》‘庭’

4) 氣鍾……草廬：《蓬萊詩集》에는 없다.

輓祭錄083-輓詞083

輓詞083

姪 進士 吳守盈

續絃千載始興衰．古調彈來聽者稀．疏上嘉言陳¹⁾藥石，
圖傳聖學闡幽微．事功炳日光前後，世路從今有是非．
溪上·隴雲春寂寂²⁾，諸生何處更樞衣．

▶ 吳守盈：1521~1606，字_ㄴ 謙仲，號_ㄴ 春塘·桃巖．

1) 陳：《逸集》‘眞’

2) 寂：《春塘集》‘寔’

輓祭錄084-輓詞084

輓詞084

門人 通政大夫 守 江原道觀察使 朴民獻

敬爲徐夫子，恭焚一瓣香。潭齋今廢址，退老獨聯¹⁾芳。
絕學尋伊洛，傳心法紫陽。地時初不遠，風采蔚相望。
已矣三朝眷，堪嗟一鑑亡。山林幾日月，經幄極敷揚。
一筭人傳急，十圖睿獎亡。²⁾丘園依舊昔，齋舍覺悲涼。
垂老關東使，早從湖上堂。末由趨執紼，哭送海天長。

▶ 朴民獻：1516~1586，字는 頤正·希正，號는 正菴·瑟憫齋·醫俗軒·榜軒。

1) 聯：《逸集》‘緣’

2) 亡：《逸集》‘忙’

輓祭錄085-輓詞085

輓詞085

嘉善大夫吏曹參判兼藝文館提學 都總府副摠管

尹毅中

星岳當年此降精。圭璋聞望出群英。道從萃渭光前躅，
絕學¹⁾程·朱啓²⁾後生。進退隨時終有裕，存亡係國竟無
成。吞聲重爲斯文慟，遙向天南淚滿纓。

海東千載有斯人。翼道匡時在一身。人爵倘來星客漢，
天心難料歲逢辰。詩書餘澤猶流遠，禮秩追恩更荷新，
退水陶山渾寂寞。暮烟寒雨鎖殘春。

► 尹毅中：1524~1592. 字는 致遠, 號는 駱川.

1) 絕學：《逸集》‘學紹’

2) 啓：《逸集》‘憂’

輓祭錄086-輓詞086

輓詞086

門人 折衝將軍 忠武衛大護軍 金啓

坐挹¹⁾春風十載前. 望窮南斗意茫然. 叨陪盡日承清問,
政喜論思配古賢. 事興²⁾心衛³⁾身遂⁴⁾退, 道隨人喪學
誰傳. 升堂無復瞻泥塑. 《圖》·「疏」披來淚似泉.

▶ 金啓：1528~1574. 字는 晦叔, 號는 雲江.

1) 坐挹：《逸集》에는 金啓의 만사 앞에 ‘平生事業本經綸. 時晦元非學隱淪. 千駟未回伊尹志, 萬鍾寧換子輿貧. 精微自擬研窮力, 道義終全進退身. 零落煙霞長慟處, 匣琴絃絕續無人.’이 있다. 今按: 이 내용은 《輓祭錄》 輓詞 066 (權應仁)에 있다. 아마도 《逸集》에 落張이 있는 듯하다.

2) 興：《逸集》 ‘與’

3) 衛：《逸集》 ‘違’

4) 遂：《逸集》 ‘已’

輓祭錄087-輓詞087

輓詞087

門人 生員 金應生

茫茫迷路失趨步，歸拜門牆讀舊編。萬事人間無一策，
嗚呼夫子又中天。

▶ 金應生：1496~1555. 字는 德秀, 號는 明山.

輓祭錄088-輓詞088

輓詞088

門人 李珥

良玉精金稟氣純。眞源分派自關·閩。民希上下同流澤，
跡作山林老病¹⁾身。虎逝龍亡人事變。瀾回路闢簡編新。
南天渺²⁾渺幽明隔，淚盡腸摧西海濱。

▶ 李珥：1536~1584. 字는 叔獻, 號는 栗谷·石潭.

1) 老病：《逸集》·《栗谷全書》‘獨善’

2) 渺：《逸集》‘縹’

退溪先生文集 附錄上 誄文

輓祭錄089-誄文001

誄文001

生員 申澱¹⁾

亂飛陰陽，不歸三王，道絕其胤，醉生茫茫。襟裾育²⁾物，本然交戕，孰病長夜，克荷輝光？覆載寥寥，世盡聾盲。允矣先生，俶稟精英，天佑斯文，日東挺生。非師能悟，好學夙成。溯源洙·泗，接波伊·洛，沉潛蘊奧，惟日不足。曲暢旁通，尤好義易，動靜交養，必先寡欲，積躬孝悌，餘事文章。明良際會，懷抱虞·唐，身遭多難，國步遑遑。龍髯莫攀，二聖蒼梧，禍煽士林，兇邪欺誣³⁾，急流勇退，圖書是娛。清涼薇蕨，洛東蓴鱸，于採于釣，可以樂飢。夢斷軒冕，志扶民彝，歸而求之，

► 申澱

2) 育：《逸集》‘畜’

3) 誣：《逸集》‘巫’

聖賢爲師。恒懷遠紹，講劘靡遺。人爭問業，不啻川蜀，士願摳衣，誠同立雪。諄諄不倦，咸與振作，有薰幾千，聞風磨琢。逮遇明廟，徵書屢飛，黽勉就途，名繯瑣闥，清虛日入，引病辭歸。⁴⁾ 故山何許？臨水柴扉，揭額退溪，雅趣如何？皺看⁵⁾溷濁，葆節清姱。綸命隨至，起典菁莪。明析義·利⁶⁾，不爽毫髮，疊疊討論，指揮闔域。有疑來質，充然咸得，效優螟蛉，化速期月。道豈世容，唇舌諠諠，初心日切，解組翻然，松楸⁷⁾某丘，矢畢餘年。⁸⁾ 怡顏山水，寄興雲烟。年·德俱⁹⁾邁，踐履益篤。晚卜陶山，爰藏高躅。四時回薄，心隨以適。畎畝不忘，長往殊跡。末年輪臺，深悔往轍，褒嘉側席，以俟赴闕。繫望蒼生，進退不易，再三下旨，誠·禮俱備。扶病以就，舜殿即闕，悲號弓劍，俄致勞悴，匹馬歸來，人或有疑。嗣王初服，崇德恢規，庶得俊傑，斯可有爲。位隆賓師，夢想于茲，固辭不獲，寧憚數數。屢賜前席，先啓爲學，章奏勤勤，帝王作則。繼上《十

4) 歸：《逸集》‘退’

5) 看：《逸集》‘眉’

6) 利：《逸集》‘理’

7) 楸：《逸集》‘椒’

8) 年：《逸集》‘生’

9) 俱：《逸集》‘具’

圖》，開發未發，聖眷益傾，疇出其右，願識¹⁰⁾其面，景仰山斗。東家有丘，未免讒□□□叔世，動輒掣肘，時耶命耶？糾纏難知。孤帆三宿，江上遲遲。一夢摧樑，何遽至斯？大道一墜，天不憖遺。春回故園，百鳥哀音，草抽新阡，揔是傷心。小生忝隣，夙蒙規箴。賴以不獸，如疾得鍼。來往門牆，歲積于今。向道誠微，嗟未負笈。何意一夕，號¹¹⁾慟莫及。遙望南天¹²⁾，雙淚凝目。聊綴短篇，以抒罔極。

10) 識：《逸集》‘識識’

11) 號：《逸集》‘呼’

12) 南天：《逸集》‘天南’

輓祭錄090-誄文 002

誄文002

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權轍¹⁾

悲乎哉！公雖素罹羸病，今胡遽至於不淑？天其降罰¹⁾于斯文，孰不爲之痛惜？道學將誰使之講明，君德將誰使之輔翼？雖退休於林泉，人咸欽慕而有所感發，庶更進于朝著，而鴻羽之儀則，何素蘊之不展兮，奄長辭而使我悲號？宸衷震悼，愍邦國之殄悴²⁾，士林血泣，慟³⁾學絕而道消。伊我庸愚，宿慕清高，幸聯司馬，共登龍門，從遊玉堂，情義彌敦。覩前日箴規之書，尙燦⁴⁾然其手筆，況先塋豎碣以明其迹兮？寔惟公之撰述，粵去歲之玄枵，公胡爲乎夢想？指囟⁵⁾几之名言，宛警辭之可象。情相孚而義相同兮，悵儀刑⁶⁾之永⁷⁾隔，

► 權轍：1503~1578. 字는 景由, 號는 雙翠軒.

1) 罰：《逸集》‘割’

2) 悴：《逸集》‘粹’

3) 慟：《逸集》‘恫’

4) 燦：《逸集》‘粲’

5) 囟：《逸集》‘曲’

慘陶山之雲黯，悲退溪之流咽。職縻于朝，道阻且脩
兮，嘆不得執佛⁸⁾而就哭，雲樹千里。緘辭寓哀兮，詎
慟⁹⁾懷之有極？溯¹⁰⁾南風而於悵兮，淚不禁乎沾臆。

6) 刑：《逸集》‘形’

7) 永：《逸集》‘遽’

8) 佛：《逸集》‘紉’

9) 慟：《逸集》‘痛’

10) 溯：《逸集》‘徂’

輓祭錄091-誄文 003

誄文003

門人 鄭琢

陶之山兮仰彌高，洛之波兮流滔滔。道尊¹⁾德崇兮²⁾無與爲曹，英華發外兮竟不韜。陶之山兮日欲暮，洛之波兮逝不返。流光兮難挽，儀刑兮漸遠。陶之山兮竦而直，洛之波兮流不息。跂予望兮望不極³⁾，余心悲兮難掩抑。

▶ 鄭琢：1526~1605. 字는 子精, 號는 藥圃·栢谷.

1) 尊：《逸集》에는 없다.

2) 兮：《逸集》에는 뒤에 ‘尊’이 있고 [추가 ‘尊’字當入‘道’字下.]가 있다.

3) 極：《逸集》 ‘克’

輓祭錄092-誄文 004

誄文004

門人 生員 金晬

恭惟先生，天資近道，不俟師傳，早探蘊奧。¹⁾寤寐洙·泗，服膺濂·洛，卓乎其志，聖賢可學。大本既立，而優乃仕，將推所養，用大其施。²⁾天其未欲，傷哉運否。無寧卷³⁾懷，以求素志。瞻彼洛水，浩然而歸，道在是矣，舍此何之？山林日長，講學功深，左圖右箴，惟日欽欽。持敬窮理，二者不偏。精思力踐，兀兀窮年，造詣既深，所立卓然。青天白日，泰山喬岳，聖代真儒，天民先覺。布帛之文，菽粟之味，餘事心畫，亦超晉·魏。猗與⁴⁾先生！間世挺生，養深積厚，展也大成。聞風慕義，樞衣自遠，接之以和，誨之不倦。提撕教詔，

► 金晬：1537~1615. 字는 子昂, 號는 夢村.

1) 奧：《逸集》‘粵’[추가 ‘粵’, 一本作‘奧’.]

2) 施：《逸集》‘示’

3) 卷：《逸集》‘倦’

4) 與：《逸集》‘歟’

俾立根本，循循有序，發其蔽蒙。精深浩博，應對不窮。嗟惟聖學，綿綿一髮，先生得之，幾絕而續。成己成物，夫豈二致⁵⁾？博洽經傳，闡明義理，縷析毫分，凍解冰釋。紫陽一書，平生用力，刪繁撮要，入道之的。伊我後人，茲焉有獲，衛道詔後，我東之一。臯音遠徹，鳴騶⁶⁾入谷，難進易退，有召輒辭。仕止久速，惟義與時，畢義田園，豈其所期？《十圖》指學，「六條」論治，勤勤懇懇，一念邦國。龍德正中，厥施斯博。胡不憖遺，哲人之萎？嗚乎先生，而至於斯，殉身以歿，吾道非邪⁷⁾？國無柱石，世失著龜。先生之生，斯文之扶，先生之逝，斯文之孤。顧愚小子，幸蒙教育，曰在去歲，孟冬初吉，南歸掃門，坐春風中，從容函丈，啓迪盲聵。反覆諄諄，見勵深切，頑愚雖瘡，亦知矜式。相違幾何？曾未閱月。訃音遽至，撫膺摧慟。言猶在耳，若疑若夢。樑木既頽，吾黨何托？金精玉潤，已矣難覲。有疑誰質，有問誰答？墜緒茫茫，心胡不惑？顧以無狀，身不自獲，末由奔哭，永負臨穴。南望長號，心焉如怛。情·義兩乖，憾·愧來並。緘辭千里，以寓微誠。

5) 二致：《逸集》‘得己’

6) 騶：《逸集》‘雛’

7) 邪：《逸集》‘耶’

輓祭錄093-誄文 005

誄文005

門人 承文院副正字 李敬中

皇天之篤生哲人，將以衛扶¹⁾斯道。今胡爲乎夢夢，降凶禍而不吊？斯文兮靡托，多士兮安仰²⁾？墜緒兮茫茫，瑤琴兮自響。念先生聞道既早，到晚³⁾世而益篤。曰明·誠其並進，又敬·義之偕立，爰深造而上達，紹絕學於閩·洛。既和順之內積，燦⁴⁾英華之外發。開《十圖》而明理，進⁵⁾「六條」而論確。忠已切於告諭，功亦深於覺後。集群⁶⁾儒而大成，爲道學之領袖。然殉身不克大施，與⁷⁾世而相違。昔予⁸⁾之志于學兮，勤向風而

▶ 李敬中：1542~1584. 字는 公直, 號는 丹崖.

1) 扶：《逸集》·《波谷遺稿》‘夫’

2) 仰：《逸集》·《波谷遺稿》‘傲’

3) 晚：《逸集》‘萬’

4) 燦：《逸集》·《波谷遺稿》‘粲’

5) 進：《逸集》·《波谷遺稿》‘陳’

6) 群：《波谷遺稿》‘東’

7) 與：《逸集》에는 앞에 ‘前’이 있고, 《波谷遺稿》에는 앞에 ‘竟’이 있다.

8) 予：《逸集》·《波谷遺稿》‘余’

馳思。幸戊秋之在都，獲承顏而接辭，曾日月之未幾，抱江上之離懷。謂負笈於溪堂，庶承教而取裁，何昊天之不憖遺，奄樛摧而山頽？陶山空兮烟鎖，人已去兮春獨迴。梅吐芬兮誰賞，竹含翠兮誰翫覽？前⁹⁾物之如舊，痛儀刑¹⁰⁾之隔遠。顧貽書之丁寧，揭善誘以博約。時出篋而三復，佩德音之¹¹⁾愴惻。雖余質之昏愚，誓自勉於明¹²⁾諭。嗟職業之有繫，亦會葬之無路，空懷去而不果。望南天兮心若割，慟¹³⁾幽明兮永訣，綴¹⁴⁾哀辭兮盡一哭。

9) 前：《波谷遺稿》‘景’

10) 刑：《逸集》·《波谷遺稿》‘形’

11) 之：《逸集》·《波谷遺稿》‘而’

12) 明：《逸集》‘期’

13) 慟：《逸集》·《波谷遺稿》‘痛’

14) 綴：《逸集》‘掇’

輓祭錄094-誄文 006

誄文006

門人 生員 李養中

嗚乎先生，而至於斯。樑摧岳顛，吾道疇依？天何悠悠，理何茫茫？昔我先生，稟資溫良，不由師承，默與道契。謂理難知，研窮極詣，蚤絲牛毛，凍解冰釋。提掇此心，有惺惺法，兢存乾惕¹⁾，儼然若思。明·誠不偏，敬·義夾持，敬信朱書，開示工程。潛心羲《易》，講發尤精，學傳前賢，功垂後覺。德盛²⁾道尊，爲我東一。顧我小³⁾子⁴⁾，仰切星斗，束脩無因，擔箱⁵⁾莫遂。徂茲來都，獲侍杖屨，誨語諄諄，終日不倦。執經座右⁶⁾，庶回迂見，志與事違，一別三年。瞻望莫及，有

► 李養中：1549～1591. 字는 公浩.

1) 惕：《逸集》‘暢’

2) 盛：《逸集》‘聖’[추가 ‘聖’恐‘盛’.]

3) 小：《波谷遺稿》‘少’

4) 子：《逸集》·《波谷遺稿》‘生’

5) 箱：《逸集》‘相’

6) 右：《逸集》·《波谷遺稿》‘隅’

夢懸懸。去歲秋冬，再奉貽書，講論辨誨，反覆無餘。何圖此書而訣終天？失聲長號，淚落傾泉。⁷⁾有書在⁸⁾篋，墨光猶新，音容在眼，典刑⁹⁾難親。有疑誰¹⁰⁾質，有問誰答？今其已矣，撫躬¹¹⁾哽咽。歛不奔赴，葬不會哭，情·義兩乖，摧痛¹²⁾益切。聊寫血誠，寓此一幅。

7) 泉：《逸集》‘天’

8) 在：《逸集》·《波谷遺稿》‘藏’

9) 刑：《逸集》‘形’

10) 誰：《波谷遺稿》‘難’

11) 躬：《逸集》‘窮’

12) 痛：《波谷遺稿》‘慟’

輓祭錄095-誄文 007

誄文007

門人 生員 閔應祺

嗚乎哀哉！東土千年，士無中行，間有名世，一節纔鳴。行道有得，肇自先生，無文獨行，繼朱大成。群昏舉覺，長夜即明，不有天啓，孰茲尸之？有德必壽，將大有爲，身歿殉¹⁾道，彼蒼何心？嗟惟吾道，無古無今，散在三極，待人而弘，華不獨豐，夷豈嗇凝？是以先生，身自任責，晚起偏荒，早志大業。任重道遠，豪毅傑卓。慎言謹行，性於妙年，繩趨尺步，動法聖賢。行脩家闈，芳播鄉曲，伯叔敬重²⁾，友朋欽服。聯篇翰墨，騷雅鎮俗，窮格墳典，舉學眞實。不仕無義，未免試策，立揚本孝，非爲干祿。三釜·五鼎，親養難闕，一命·二命，王事益恭。身世叔季，志業夔·龍。積思實體，古人行

▶ 閔應祺：1530~未詳。字ㄴ 伯嚮，號ㄴ 尤叟·景退齋。

1) 殉：《逸集》‘徇’

2) 重：《逸集》‘仲’

藏，精義造約，分曉安詳。歷敷諳練，進退愈貞³⁾，中廟末年，浩然歸耕，卷懷研究，韜晦綸經。屢召病辭，相時而屈，無悶遯章，勢難韓惡。獨善既⁴⁾志，清脩亦吉。魚龍爲醢，鸞鳳增擊。黨議⁵⁾橫馳，蟠泰明哲。婆娑林壑，口絕臧否。高蹈丘園，身務操履，兢持循熟，擇執精密。宣寄⁶⁾言志，小技安事？蒐輯發揮⁷⁾，大任在是。稽疑義經，擴前未發，節要朱書，啓後遵式。上包純古，下及時王，經傳蘊奧⁸⁾，賢哲弛張，銖考寸覈，緒正表章。有限⁹⁾歲月，無窮理義¹⁰⁾，下帷發憤，孳孳亹亹。巖棲風月，茅棟泉石，謝世身憂，得前賢樂。逮透上面，查滓化却，中一外融，靜虛動直。才周道否，德高心謙。晏如屢空，益厲¹¹⁾介廉，晬於接面，咸飽和德，儒習頽靡，感見於色。古道高潔，好形於言，至明克己，毫釐莫存。至誠謙卑，德性愈尊。肉形而玉，人

3) 貞：《逸集》‘精’

4) 既：《逸集》‘已’[추가 或作‘豈’]

5) 議：《逸集》‘意’[추가 ‘意’，一本作‘議’]

6) 寄：《逸集》‘奇’

7) 揮：《逸集》‘輝’

8) 奧：《逸集》‘粵’

9) 限：《逸集》‘恨’

10) 理義：《逸集》‘義理’

11) 厲：《逸集》‘勵’

貌而理，土梗於朝，山斗於士。道大世隘，宜乎莫容。道閉賢隱，奈何不窮？徵辟踵門，難進已決，毀謗切身，素秉不挫。翛然道俱，卓爾壁立，小隱非事，大猷莫覲。嗚乎先生，衆固不識。加之數年，庶幾卒《易》，天奪竟速，厥理難詰。祺也小生，樞衣自弱，所營惟利，詎贅談道？提撕句讀，反覆精造。迨乎壯齡，以病中輟，夭骨再肉，實蒙救藥。間或承顏，名利內消，道閫莫窺，薰德自陶。自父逮孫，恩教兼及，常期病間，依歸卒業，豈料今者，奄看易簣？啓手調藥，愧乏盡力。國慟非我，私悶罔極。佳城一閉，萬古長隔。¹²⁾

12) 萬古長隔：《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096-誄文 008

誄文008

門人 藝文館奉教 金字宏

聖遠言湮¹⁾，正學秦²⁾蕪，洙·泗澤竭，伊·洛波枯。吾道東來，曰自箕「疇」，千載歸來，數三眞儒，道之大成³⁾，待我先生。出塵襟懷，天挺英明，志學初年，遠大是期。脫落世習，奮然有爲，膾炙圖書，芻豢義理，篤好沉潛，要以爲己。進德修業，道爲己⁴⁾責，理無不窮，書無不讀。年高德邵，晚益精熟，向理便⁵⁾辟，既博而約，惟敬作所，動靜貫徹。克復功深，誠明灑落，汗馬心地，卓然有得。惟仁是求，顏巷有樂⁶⁾，陶山之下，洛水之側，數間精舍，藏修之所。考槃之樂，永矢不告。人間

▶ 金字宏：1524～1590. 字는 敬夫，號는 開岩.

1) 湮：《開巖集》‘堙’

2) 秦：《逸集》·《開巖集》‘榛’

3) 成：《開巖集》‘備’

4) 己：《逸集》·《開巖集》‘已’

5) 理便：《開巖集》‘裏鞭’

6) 樂：《逸集》‘得’

榮寵⁷⁾，非我思且，出處義比，枉尺不爲。歷事四朝，易退難進，非果忘世，身惟道殉。命召朝勤，䟽箋夕奏，儻來雖崇，懷寶未售。唯有獻《圖》【即《聖學十圖》】⁸⁾，忠誠篤至。告老乞骸，言歸故里，欣迎志士，講論不輟，覲德聞風，士多奮發。嗟我先生，學正道醇，得其正宗，當世一人。嗟惟此學，所差毫釐，或驚於高，或趨於卑，正如程門，末失墮空。朱後派分，繳文義重。⁹⁾先生之學，平正坦夷，有的其緒，紫陽依歸，其學其文，與之一揆。觀其文者，謂是¹⁰⁾韓·柳，有德有言，匪文之務，觀其筆者，謂是¹¹⁾籀·隸，心正筆正，書及¹²⁾餘緒。見其廉退，服¹³⁾其高節，見其安分，嘆其清德。未見其全，只見一端，先生之德，北斗泰山。七十而化，進進聖域，加以數年，大成可集。如何一朝，遽爾楹夢？樑壤山頽，孰不爲慟？國失蓍龜，士誰就質？昔我拜床，不見取瑟。事與心違，雖負立雪，如不至是，虛過此生。棘

7) 寵：《逸集》‘辱’

8) 即聖學十圖：《逸集》에는 없다.

9) 重：《開巖集》‘中’

10) 謂是：《開巖集》‘是謂’

11) 謂是：《開巖集》‘是謂’

12) 及：《逸集》‘乃’，《開巖集》‘迺’

13) 服：《逸集》‘伏’

樂問禮，示我周行，勉所可¹⁴⁾及，賴免罪過。負牆樞衣，待我休假¹⁵⁾，今至於斯，已矣何及？淚落懸泉，摧慕空切。縻職難解，匍匐計違。斬板未會，幽明增悲。見誠無地，述情荒詞¹⁶⁾，庶幾陟降，神之聽之。

14) 可：《開巖集》‘不’

15) 假：《逸集》·《開巖集》‘暇’

16) 詞：《逸集》·《開巖集》‘辭’

輓祭錄097-誄文 009

誄文009

門人 中訓大夫行司諫院獻納知製教 金孝元

樑木之摧，吾道之窮。斯文靡托，多士疇¹⁾宗？爽惟盛美，佔畢²⁾難容。用敬持養，致知進學，兩進深造，夾持上達。進退比義，簞瓢有樂。潤身晬面，玉溫金精。析理指掌，星輝日明，源泝伊·洛，跡契考亭。自念顛蒙，幸接儀刑³⁾，向道誠微，雖阻臯比，知善可爲，實荷其賜。貽書在篋，敢忘誨諭？德宇永隔，祇切哀籲。職守有繫，奔走無緣。嗚呼已矣，彼蒼者天。

► 金孝元：1542~1590. 字는 仁伯, 號는 省菴.

1) 疇：《逸集》‘誰’

2) 畢：《逸集》‘蹕’

3) 刑：《逸集》‘形’

輓祭錄098-誄文 010

誄文010

門人 少者 柳根

自有吾東，孰傳箕「範」？詞華句讀，於是焉陷，知方蓋寡，卒業無聞。不有哲人，孰相斯文？猗歟先生，實天生德。稟賦¹⁾既異，完養無缺。質本溫恭，尤加遜志，氣實英敏，益致虛己。明·誠兩進，敬·義偕立，有事勿正。鳶飛魚躍，即物推極，牛毛²⁾蜚絲，初終不紊，鉅細靡遺。資深行備，業廣基拓，緒餘文詞³⁾，筆下心畫，悉本於理，各臻其極。當初志穀，直爲行義，旋退而休，父母之里。欲隱彌彰，屢被徵辟，或去或就，如是者數。紆恩實隆，乞身愈切，簞瓢蕭然，益專顏樂。迨其大成，所觸皆邇，謙虛純粹，縝密雍容。聞義能遷，不獨安安。晚得我所，水抱山環。師範尊嚴，靈襟灑落，憂時之懇，

► 柳根：1549~1627. 字는 晦夫，號는 西垞.

1) 賦：《逸集》‘負’

2) 毛：《逸集》‘尾’

3) 詞：《逸集》‘辭’

樂道之實。各止其止，並行無礙。念自先朝，爰暨當代，七往七來，惟義以之。禮謹難進⁴⁾，縱未專⁵⁾施，澤及斯世，寧論隱顯？「六條」言治，本末兼盡，《十圖》論學，前賢未發。今日之事，秋毫誰力？民將興義，士皆知學。矧自周衰，道不行世，真儒雖⁶⁾起，善治難啓。只托空言，以傳來裔，曰程曰朱，亦終於此。恭惟先生，實獲此義，任重雖⁷⁾剛，行止無必，所恃開來，以幸千百。嗚乎蒼天，曾是邈邈，曷不百年，楹夢有驗？啓衾知免，於公奚憾？喬岳之頽，殄悴之作。人心誰正，道脈誰續？況我童子，晚見門牆，時勢⁸⁾適礙，拜別何忙？厥後有書，教以勉之，方期再遊，以受鉗錘，何圖不幸，一至於斯？徒步是艱，已矣臨穴。罪貫幽明，痛刻心骨。玉色在目，金聲盈耳。緘辭⁹⁾敬寄，以寓誠意。

4) 進：《逸集》‘退’

5) 專：《逸集》‘聘’

6) 雖：《逸集》‘誰’

7) 雖：《逸集》‘誰’

8) 勢：《逸集》‘世’

9) 辭：《逸集》‘詞’

退溪先生文集 附錄下

祭文

輓祭錄099-祭文001

祭文001

文命凱

維隆慶四年，歲次庚午十二月甲午朔越庚戌日，門下七寸侄宣教郎權知校書館副正字文命凱，謹以村醪園果，敢奠于退溪先生之靈。天生夫子，運屬道東，三朝宿望，一代儒宗。清修苦節，陋巷顏氏，講明深功，考亭朱子。吁嗟闕里，退溪之濱。鈍敏皆歸，薰良幾人？病加勤誨，易簣斯亟。邦無典刑，士何矜式？天生何意，天奪何忙？魯悲樛頹¹⁾，唐哭鑑亡。吾道幾明，斯文復喪。朝野相吊，遠近咸愴。嗚乎夫子，何至於此？灑落

► 文命凱：字_ㄴ 子安，號_ㄴ 省克齋。

1) 頹：《逸集》‘權’

清通，儀刑誰似？出處行止，動靜語默，一生皆道，萬世可法。噫予愚陋，晚承難疑，未知向方，遽失依歸。往在戊辰，聖王新立，誠孚籲俊，先生入洛。是夏設科，小子亦參，恩深分俸²⁾，義重指南。庶幾發鍵，亟欲秉燭，乍赴東都，跡滯斗粟。碌碌三載，病而乞閒，呻吟度日，一歲³⁾將闌。何意先生，奄歸帝鄉？承訃皇皇，視天茫茫。奔赴後人，俯仰何顏？敢奠菲具，冀欽⁴⁾寸丹。

2) 俸：《逸集》‘捧’

3) 歲：《逸集》‘世’

4) 欽：《逸集》‘歆’

輓祭錄100-祭文002

祭文002

孫英濟

維隆慶四年，歲次庚午十二月甲午朔二十日癸丑，朝奉天¹⁾夫行禮安縣監孫英濟，謹以清酌庶品，祭告于退溪先生 李公之靈。²⁾ 嗚乎！晚生孤陋，獲親有道。高山景行，秉彝攸好。有疑不通，如筮發蒙，天不愍遺，考德無從。³⁾ 樛頹哲萎，含血所⁴⁾慟。⁵⁾ 矧我小子，實依爲重，有隕如瀉，儀刑⁶⁾杳邈。單杯薄具，奉獻明酌，庶或享之，鑑我衷曲。嗚乎哀哉！⁷⁾

▶ 孫英濟：1520~1588. 字는 德裕, 號는 鄒川.

- 1) 天：《逸集》‘大’
- 2) 維隆慶……之靈：《鄒川集》에는 없다.
- 3) 從：《鄒川集》‘終’
- 4) 所：[추가 ‘所’恐‘茹’之誤.]가 있다.
- 5) 慟：《逸集》·《鄒川集》‘痛’
- 6) 刑：《鄒川集》‘形’
- 7) 嗚呼哀哉：《鄒川集》에는 없다.

輓祭錄101-祭文003

祭文003

辛弘祚

維隆慶四年，歲次庚午十二月甲午朔丙辰日，姪辛弘祚等敬祭于叔父退陶先生尊靈。惟靈¹⁾質稟奎壁，位亞鼎台，扶天事業，蓋世英才，道高一代，氣充八垓。曰昔初年，教在嬰孩，言行綽綽，餘刃恢恢。于以從事，蠹簡麝煤，志篤聖功，名兼²⁾榜魁。儒家山斗，王國棟材。少無宦情，仕進誰媒？毫輕利祿，芥視豐財。欲奉庭闈，孝副訖祿，家貧親老，科製強裁，一揚天朝，聲譽振雷。風節所宗，編修兼該，慣讀道山，正義芸臺。韻士風趨，學者雲開。自泣慈恃³⁾，益厭塵埃，逸想凌⁴⁾鵠，困步擬駘。榮隆病增，以福爲災。官請外散，職嫌

▶ 李弘祚：1595~1660. 字는 汝廓, 號는 睡隱.

1) 惟靈：《逸集》에는 없다.

2) 兼：《逸集》‘謙’

3) 恃：《逸集》‘侍’

4) 凌：《逸集》‘陵’

內陪。綰章兩郡，乞疏九垓。樂彼泉石，浩然歸來。腰五斗陶，胸千卷崔。風月襟期，猿鶴何猜？碧澗之濱，白雲之隗，精廬初卜，佳卉列栽。軒壓淙潺，窓面嶠⁵⁾巍。左右壁虛，圖書山堆，憫處靜究，俗慮俱灰。興來步屨，隨意徘徊，山花杖藜，溪雨笠簑。雲林窈窕，藻翰氍毹。屏上球琳，卷裏瓊瑰。清⁶⁾透階竹，香契庭梅。學入精微，語絕譁⁷⁾詼。晝劇宵思，金鍊玉銳。瞬養息存，荆剪蘭培。引後提撕，輔友功俾，國家蓍龜，士林根蓂。養心鄒軻，安貧巷回，洙·泗探源，濂·洛泝洄，最慕武夷，心懸⁸⁾首擡。摳衣四集，降幣屢催，前王懇進，天日忽頽，今聖再禮，俄掛高桅。迹似儀鳳，壽期背鮐。巖棲獨樂，風景蓬萊。鴻能避弋⁹⁾，雉何罹罟？自謂晚隱，門掩蒼苔。陶育時雨，恩化春醅。一視親¹⁰⁾疏，均情輿儔。天理「剝」·「復」，人事往迴。座箴几銘，目擊手掇。戀極宸楓，憂及谷菴，不忘時變，常懼天裁。冀享遐齡，月宇雲疊，何料一疾，山頽¹¹⁾棟摧？邦家殄

5) 嶠：《逸集》‘崔’

6) 清：《逸集》‘青’

7) 譁：《逸集》‘華’

8) 心懸：《逸集》에는 없고 [추가 ‘心懸’]이 있다.

9) 弋：《逸集》‘戈’

10) 親：《逸集》에는 없고 [추가 ‘親’]이 있다.

悴¹²⁾，朝野歎歎。況我親屬，倍萬慟哀。天歟命歟，胡至此哉？嗚乎哀哉！時惟冬沍，冰凌雪皚。杜衾鐵冷，邵鑪不煨。奔走先祀，寒疾所胎。臥床何伴，盆梅一枚。魚鱗欲除，世事自哈。遺訓動人，可謂奇傀。門徒聚觀，孰不心埋？莫效進藥，奄夢倚槐。玉埋崑崗，松折徂徠。號天叫地，衆聲喧豗。弘祚等，情雖父視，服節總縗。景慕薰心，欽仰咸晦。近步匍匐，遠騎虺隤，誠以斂柩，敬以奠杯，各獻寸忱，酸淚盈¹³⁾腮。¹⁴⁾

11) 頽：《逸集》‘堆’

12) 悴：《逸集》‘瘁’

13) 盈：《逸集》‘橫’

14) 酸淚盈腮：《逸集》에는 뒤에 ‘呼鳴, 痛哉尙.’이 있다.

輓祭錄102-祭文004

祭文004

李文樑

維隆慶四年，歲次庚午十二月甲午朔三十日癸亥，前察訪李文樑，謹以清酌粢麩之奠，敬祭告于退溪先生李公之靈。¹⁾惟靈河岳孕秀，奎壁降精。生期²⁾運會，稟賦純清，冰霜節操，雪月襟靈。學究天人，研窮性情。既克修其天爵，初不屑乎科第。然懷寶不可以迷邦，盍一試于³⁾盛際？一舉摘髭，名登天階。四朝帷幄，出入獻替，聯翩臺閣，不以爲榮。辭富居貧，或典殘城。公才與學，可秉文衡。公之謀猷，可輔聖政。⁴⁾朝野屬望，士林交慶。荐加⁵⁾寵秩，沓致召命，牢辭不起⁶⁾，惟曰身

► 李文樑：1498~1581. 字는 大成, 號는 碧梧·綠筠.

1) 維隆慶……之靈：《碧梧集》에는 없다.

2) 生期：《逸集》에는 없고 [추가 缺處, 一本作‘生期’.]가 있다.

3) 于：《逸集》‘乎’

4) 既克……聖政：《碧梧集》에는 없다.

5) 荐加：《碧梧集》‘四朝’

6) 沓致……不起：《碧梧集》에는 없다.

病。上章⁷⁾請退，至於⁸⁾得遂，及蒙天許⁹⁾，秋天一鶴。賃舟歸臥，荊扉草屋。永斷東華之夢，還尋魚鳥之約。茲機務已解於身上，猶可以保養其餘日。豈知¹⁰⁾天心之¹¹⁾不祚，忽遭樑木之摧¹²⁾折？門徒失色而爭奔，鄉曲聞風而巷哭。¹³⁾ 文樑忝在葭莖之後，叨忝仁里之中¹⁴⁾，各占湖山之勝，相將猿鶴之友。自先公陪侍¹⁵⁾杖屨，連數世交深而分厚。春遊鏡潭之曲，秋泛汾江之月。我性頹靡，公能振拔¹⁶⁾，我才頑懶¹⁷⁾，公能自直。雖嫌寸莛之撞鍾，自許野人之爭席。嗚乎哀哉！公丁二豎，我在他鄉，還家未幾，即候暄涼，曰我衰耗¹⁸⁾，遭此重痒。感蛇弓於齋宿之夜，添感冒於族會之日。¹⁹⁾ 湖南遠友，問事而侔人，隣鄉學子，抱經而來集。扶持強

7) 上章：《碧梧集》에는 없다.

8) 至於：《碧梧集》에는 없다.

9) 及蒙天許：《碧梧集》에는 없다.

10) 永斷……豈知：《碧梧集》에는 없다.

11) 之：《碧梧集》에는 없다.

12) 木之摧：《碧梧集》에는 없다.

13) 門徒……巷哭：《碧梧集》에는 없다.

14) 忝在葭莖之後，叨忝仁里之中：《碧梧集》‘叨忝仁里之中，忝在葭莖之後’

15) 先公陪侍：《碧梧集》‘陪侍先人’

16) 拔：《逸集》·《碧梧集》‘發’

17) 懶：《碧梧集》‘慵’

18) 耗：《碧梧集》‘暮’

19) 日：《逸集》에는 없고 [추가 ‘日’]이 있다.

起，接應之不暇，不自覺沉痾之日篤。痰氣填胸，客熱交發，醫師劑藥而奔馳，多士蒼黃而祈效。²⁰⁾ 元氣已衰，精思不謬²¹⁾，傳家訓於嗣子，示喪制以儉素。俄風燭之轉迫，戢彌天於一樞。我失我公，如喪怙恃。茫然怵然²²⁾，如狂如癡。²³⁾ 有懷誰展，有疑誰釋？惟彼陶山之雲木淒涼，退水之冰²⁴⁾泉咽絕。盆梅窰竹，失主而逢春兮，誰賞方塘之曉月？蕭蕭白髮，無復往來於其間兮，挹餘風而彳亍。聊將一杯之清酌，薦此無窮之膈臆，靈其不昧，庶幾來格。²⁵⁾

20) 感蛇……祈效：《碧梧集》에는 없다.

21) 精思不謬：《逸集》‘精不思謬’[추가 ‘思’下, ‘不’上.]

22) 如喪……怵然：《碧梧集》에는 없다.

23) 癡：《逸集》‘稚’

24) 退水之冰：《逸集》‘退溪之水’，《碧梧集》‘退溪之冰’

25) 庶幾來格：《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03-祭文005

祭文005

李仲樑

同日¹⁾，折衝將軍龍驤衛大護軍李仲樑²⁾，嗚乎！公之存亡，關天地氣化之盛衰，國運否泰，斯文興喪隨之。今其亡也，凡有血氣者³⁾，孰不興⁴⁾悲？天喪之歎，予⁵⁾何贅焉？區區私怨，不得不呼于⁶⁾天。嗚乎哀哉！生同一鄉，系連天屬，年不相遠，辛壬癸甲，學不殊科，再忝⁷⁾同年。結廬相望，隔一山川，出入相隨，不朝則野。蓬麻之益，豈知變化？⁸⁾逮我先君，退老⁹⁾江湖，公以

▶ 李仲樑：1504~1582. 字는 公幹, 號는 賀淵.

1) 同日：《逸集》·《賀淵集》‘維隆慶四年，庚午十二月甲午朔三十日癸亥’

2) 李仲樑：《逸集》·《賀淵集》에는 뒤에 ‘謹以清酌粢麴之奠敬祭告于，退溪先生李公之靈.’이 있다.

3) 者：《賀淵集》‘其’

4) 興：《賀淵集》‘痛’

5) 予：《賀淵集》‘余’

6) 于：《逸集》에는 없다.

7) 忝：《賀淵集》‘參’

8) 豈知變化：《賀淵集》에는 뒤에 ‘中年背馳，詩以情瀉.’가 있다.

9) 退老：《逸集》·《賀淵集》‘老退’

病辭，寂寞山居，安貧自適，不謀而同。十有四年，
優¹⁰⁾樂相從，予¹¹⁾時鯉趨，兼候寵¹²⁾公。陪遊泉石，殆
無虛月。依巖傍溪，公不定宅，三遷其地，詩戲嘲評。
晚卜陶山，水麗山明，滄浪濯纓，左右翠屏。¹³⁾隔岸茅
舍，鳩拙經營。公來顧瞻，晚對是名。門挺孤松，四時
長青，公來撫之，增彩¹⁴⁾荒庭。徘徊忘返，歲寒有盟。
予¹⁵⁾以疏宕，浪跡浮¹⁶⁾萍，風埃汨¹⁷⁾沒，不廢夜行。有
時造拜，傾肺¹⁸⁾輸情，不用提撕，薰德襲馨，免我慳慳，
如醉而醒。賤迹有拘¹⁹⁾，流光不停，暫時違阻，鄙吝
復²⁰⁾萌。今年瓜滿，解綬歸耕，奉承德音，夙願將成。
重陽之會，約束丁寧，病不能遂，除夕爲²¹⁾期。如何一

10) 優：《賀淵集》‘憂’

11) 予：《賀淵集》‘余’

12) 寵：《逸集》‘龐’

13) 左右翠屏：《賀淵集》에는 뒤에 ‘雲棲霞捲，五潔冰清，舍傲武夷，大賢是經，千函萬軸，盡是湯銘，不出跬步，爲世義刑，多士雲趨，爲一山榮，中有至樂，人孰能爭.’이 있다.

14) 彩：《賀淵集》‘色’

15) 予：《賀淵集》‘余’

16) 浪跡浮：《逸集》‘跟跡如’

17) 汨：《逸集》‘汨’

18) 肺：《逸集》‘肝’

19) 有拘：《賀淵集》‘無恒’

20) 復：《賀淵集》‘輒’

21) 爲：《賀淵集》‘更’

疾，遽爾永辭？夢奠兩楹，山頽棟折。百代文脈，一朝而絕，自今奔流²²⁾，誰作砥柱？國失蓍龜，人喪父母。聞訃晚來，予²³⁾實慚惡。百身莫贖，奔走何及？菴室空²⁴⁾虛，院靜寮²⁵⁾寂。烟沉梅徑²⁶⁾，霧塞松局。書幌風淒，方塘月盈。蕭條杖屨，彷彿²⁷⁾平生，欲叫不聞，欲問無聲，俯伏几前²⁸⁾，有淚河傾。敬奠菲薄，只存一誠，靈其顧我，冀欽²⁹⁾薦觥。³⁰⁾

22) 流：《逸集》‘走’

23) 予：《逸集》·《賀淵集》‘余’

24) 室空：《賀淵集》‘空室’

25) 寮：《逸集》‘遼’

26) 徑：《逸集》·《賀淵集》‘逕’

27) 佛：《賀淵集》‘髣’

28) 前：《賀淵集》‘下’

29) 冀欽：《賀淵集》‘歆此’

30) 冀欽薦觥：《逸集》·《賀淵集》에는 뒤에 ‘嗚呼哀哉尙饗.’이 있다.

輓祭錄104-祭文006

祭文006

金生溟·朴士熹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越六日己巳，門人金生溟·朴士熹等，謹以清酌之奠，敬祭于¹⁾退陶晚隱 眞城 李先生之靈。²⁾ 嗚乎³⁾先生，江海精神，光岳⁴⁾正氣，才全行篤⁵⁾，道邵德備。白玉無瑕，冰壺出壑，沉潛性理，探究道學。李·杜詞章，鍾·王筆畫，尋常不言⁶⁾，言必中式。終日危坐⁷⁾，動遵禮法，⁸⁾ 伊川表儀，紫陽氣習。泉石膏盲，烟霞痼⁹⁾疾，如予無狀，以志爲尙。夙

▶ 朴士熹：1508~1588. 字는 德明, 號는 默齋.
金生溟：1504~1577. 字는 士浩, 號는 訥齋.

- 1) 于：《逸集》에는 뒤에 ‘故’가 있다.
- 2) 維隆慶……之靈：《默齋逸稿》에는 없다.
- 3) 嗚呼：《默齋逸稿》‘恭惟’
- 4) 岳：《逸集》‘嶽’
- 5) 篤：《逸集》‘獨’[추가 ‘獨’, 一本作‘篤’.]
- 6) 白玉……不言：《默齋逸稿》에는 없다.
- 7) 終日危坐：《默齋逸稿》에는 없다.
- 8) 法：《默齋逸稿》‘節’
- 9) 痼：《逸集》‘錮’

於門下，誘掖勸獎，許以忘年，叨陪函丈。野寺山房，無往不逐，四時藏修，從容講讀。鶯啼綠柳，花發春山，提絜壺榼，携引童冠。臨溪獵魚，登嶺採花，舉盃互飲，得句相哦。歲在甲午，乃擢科第，出入金馬，通籍是繫。隨波強從，非其本意，乞求外郡，欲退之志。丹山未幾，移任基川，二千石祿，弊屣棄捐。歸來退溪，田園如昨。出遊陶山，忘機伴鶴。數椽書堂，三間精舍，滿壁黃卷，尋繹無暇。蕭然忘倦¹⁰⁾，何間物我？¹¹⁾多士聞風，自遠方來¹²⁾。登接龍門，問道追陪，指導開曉，各因其材。¹³⁾明廟臨朝¹⁴⁾，七辟三徵，崇資顯品，日加月增，牢固辭讓，草芥富貴。貪位之徒，慕¹⁵⁾祿之類，顏厚面醜，神慄膽悸。今我聖上¹⁶⁾，至誠欲致，辟¹⁷⁾書踵門，驛騎喧谷。頃歲強起，趨拜北闕，時時引見，問難釋疑。天語怡愉¹⁸⁾，喜得明師，特加亞相，朝議僉同。《聖學

10) 倦：《逸集》‘卷’

11) 氣習……物我：《默齋逸稿》‘心法，沈潛性理，誘掖忘倦’

12) 自遠方來：《默齋逸稿》‘有來自遠，如予無狀，以志爲尙，叨陪函席。亟蒙勸獎，野寺山齋，携引童冠’

13) 登接……其材：《默齋逸稿》에는 없다.

14) 臨朝：《默齋逸稿》‘卽阼’

15) 慕：《逸集》‘冒’

16) 崇資……聖上：《默齋逸稿》‘嗣君初政’

17) 辟：《默齋逸稿》‘鶴’

18) 天語怡愉：《默齋逸稿》‘天顏咫尺’

十圖》¹⁹⁾，藥石聖躬，陳疏懇乞，去來菟裘²⁰⁾。如釋重負，安養體軀，非忘一世，庶激鄙夫。而今而後，鄉有先生，百年陪話，並將終齡。不幸²¹⁾先生，有斯疾也，諸生問候，奔走晨夜。造物多猜，百藥莫贖，慟矣一夕，遽爾易簀。子爲縣宰，孫亦生員，爲父何恨？爲祖何冤？悲時迫阨，去而騰騫，上界闕人，天脫其轅。玉京樓成，帝召修文，氛埃萬丈，肯顧囂煩。大小同悲，賢愚共惜，道伯上聞，九重恠²²⁾愕。眷憐嗟歎，追贈極爵，促遣內臣，別加褒揚。爲善得福，沒²³⁾而有光，國無斯人，我民無祿。²⁴⁾元龜一失²⁵⁾，吉凶誰卜？²⁶⁾泰山既²⁷⁾摧，小子奚仰？嗚乎已矣，曷不悽愴？²⁸⁾平日別墅，變作殯幕。余懷之傷，天地之識。繞廬三匝，爲慟何極。²⁹⁾

19) 聖學十圖：《默齋逸稿》‘十圖聖學’

20) 裘：《逸集》‘丘’

21) 不幸：《逸集》에는 [추가] 一本，無‘不幸’下‘先生’·‘斯’·‘也’·‘諸生’·‘奔走’八字.]가 있다.

22) 恠：《逸集》‘駭’

23) 沒：《逸集》‘死’

24) 去來……無祿：《默齋逸稿》에는 없다.

25) 一失：《默齋逸稿》‘既喪’

26) 吉凶誰卜：《默齋逸稿》‘宸衷震愕’

27) 既：《默齋逸稿》‘遽’

28) 曷不悽愴：《默齋逸稿》‘曷極爲慟’

29) 爲慟何極：《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05-祭文007

祭文007

金夢得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越七日庚午，伊山書院儒生金夢得等，謹以清酌庶羞¹⁾之奠，敬祭于退溪先生之靈。先生性稟高明，心本清純，溫如美玉，郁若和春。無師歸正，不友輔仁，超然自覺，動法古人。始學《魯論》，孝悌感發，纔見小塘，寓懷清活。隨事體察，自然妙合。光風霽月，茂叔胷襟。冰壺秋月，延平本心，不求名達，巍科斯至。無慕利祿，軒冕儻寄，士林風慕，朝著推重。然屢辭退，不貪天寵，志在明道，惟顏是希。築室退溪，士子如歸，日與講明，沉潛墳典²⁾。日月東土，領袖斯文，四朝顧問，重擬蓍龜。一進一退，輕重而隨，昭昭《十圖》，補導聖學。懇懇「六條」，黼黻袞

► 金夢得

1) 庶羞：《逸集》에는 없다.

2) 墳典：《逸集》‘典墳’

職，赤心求閒，白駒難繫。一歸陶山，數載優游，章甫影隨，絲誦春秋。猗歟陶山，今日孔里，庶幾薰陶，人才蔚起。奈何不幸，天奪斯速？泰山既頽³⁾，斯道何托？顧我伊山，實賴區畫，規模中正，制度平的。⁴⁾齋名堂號，記序扁⁵⁾額，字畫森嚴，寶墨流澤。潤色門楣，輝映簷壁，諷詠有所，講鮮切磋。況在頃年，華駕⁶⁾暫過，面承警覺，諄諄指示。追慕于今，丁寧在耳。自聞訃音，腸摧肝裂。荒辭⁷⁾薄奠，以寓寸赤，不亡者存，庶鑑心曲。⁸⁾

3) 頽：《逸集》‘堆’

4) 的：《逸集》‘酌’

5) 扁：《逸集》‘篇’

6) 駕：《逸集》‘蓋’

7) 辭：《逸集》‘詞’

8) 庶鑑心曲：《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06-祭文008

祭文008

南致利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越十四日丁丑，門人南致利敢昭告于先師退溪 李先生之靈。嗚乎哀哉！先生¹⁾氣鍾光嶽，質粹金玉。紹千載緒，開大東學。春風座上，秋月襟懷，早退丘園，心與道偕。仁必獲祐，謂享耇壽，何意終天，止不矩踰？²⁾山頽樛折，後學何依？小子摳衣，七年于茲。汨³⁾沒塵冗，如寐莫覺，終歸暴棄，祇增慚⁴⁾悼。今焉永隔，儀刑杳邈，伏哭柩前，五內如割。敬奠菲薄，用表微忱，不亡者存，庶幾⁵⁾鑑臨。⁶⁾

▶ 南致利：1543~1580. 字는 成仲, 號는 賁趾.

1) 先生：《逸集》에는 앞에 ‘惟我’가 있다.

2) 矩踰：《逸集》 ‘踰矩’

3) 汨：《逸集》 ‘汨’

4) 慚：《逸集》 ‘慘’

5) 幾：《逸集》 ‘其’

6) 庶幾鑑臨：《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07-祭文009

祭文009

李咸亨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十五日戊寅，門人李咸亨，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退溪李先生之靈。泰山崩矣，吾道何托？樑木摧矣，後學誰質？歲舍己巳，以予無狀，受命趨庭，摳衣函丈。諄諄誘掖，學始之方，敬承終始，幸不失常。言歸告寧，事故適結，一歲之餘，提命不獲。悠悠我思，靡月靡日，及陳悃幅，反承訃音。哀慟罔極，悲不自任，追思去秋，有誨已百。豈知斯言，終天永訣？病不湯藥，歿未掩溷。奔赴後人，死有餘恨，從遊未久，儀刑永隔。自茲以往，於焉卒業？言念至此，五內摧裂。仰表情素，敬奠清酌，不亡者存，庶幾欽格。

► 李咸亨：1522~1587. 字는 平叔, 號는 天山齋.

輓祭錄108-祭文010

祭文010

李龜壽 等

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十六日己卯，醴泉郡守
李龜壽，軍威縣監許從吉等，謹以薄奠，敬祭于退溪先
生之靈。嗚呼！天不憖遺哲人，嗟降割之甚酷。泰山崩
兮樑木摧，祥麟逝而彩鳳歿。道既不獲其小施，又下孔
子之壽兮三歲，孰謂大德之必得重？歎夫天道之昧昧。
先生之心兮，冰壺秋月，先生之道兮，北斗喬岳。陶山
兮蒼蒼，退溪兮深深。先生兮不見，雙淚落兮霑襟。

▶ 李龜壽：1524~未詳。字_ㄴ 瑞老。

輓祭錄109-祭文011

祭文011

李宗仁 等

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二十日癸未，醴泉縣¹⁾
山書院儒生李宗仁等，謹以清酌庶羞奉奠于退溪先生
之靈。惟靈清涼明秀，洛水澄泓，鍾英儲精，大²⁾人挺
生。金玉相貌，雪月精神，任係畏天，責當悲人。運逢
嘉會，志欲一行，割鷄武城，召對邇英。出處在世，行
藏隨時，進而致君，君子所期。退而講道，大賢當爲。
卷經邦手，賦歸田辭。築室退溪，構齋陶谷，波連伊水，
翠挹廬岳。非爲高蹈，貴於樂天，富貴浮雲，生涯林泉。
清挹³⁾首陽，節扶釣臺，沉潛道源，樂育英才。⁴⁾衣荷佩
蘭，逍遙偃息，飯蔬飲水，優遊自足。會程朱心，尋孔·

► 李宗仁

1) 縣：《逸集》‘龜’

2) 大：《逸集》‘丈’

3) 挹：《逸集》‘揖’

4) 才：《逸集》‘材’

顏樂，纓濯潭清，臺瑩雲天。光風浩浩，霽月娟娟，塵去明鏡，波靜玉淵。篤誠敬功，明消長理，閒中日月，靜裏天地。雲消雲起，高山獨青，波伏波興，止水自清。年高學精，道明德備，五百年來，吾道東矣。扶植儒林，處而兼善，新聖悅慕，如不克見。三聘慙慙，幡然而起，前席承對，只在四字。都俞一堂，豈非其意？孑孑獨立，誰與同志？況嬰膏盲，難以從事，故欲退休，養病田里。返駕故山，猿鶴爭喜，⁵⁾ 豈若沮·溺，果於忘世？常思孔孟，寓意經濟，那知一日，遘此二豎？命醫未及，樑木忽仆，土喪山斗，國失蓍龜。天未平治，何至於斯？朝野含慟，籲呼⁶⁾罔涯。昔遊雲院，叨陪清儀。既賜格言⁷⁾，又可荒詞？迨至季年，更拜于宅，請以學《易》，幸蒙一諾。飢寒亂心，向道未篤，終然暴棄，何雕朽木？到今追思，嗟臍何及？腐心焚腸，涕泗交頤。山昏帶愁，溪咽含悲。敢將菲薄⁸⁾，恭奠于楹⁹⁾，在上昭假，庶欽卑誠。¹⁰⁾

5) 喜：《逸集》‘戲’

6) 呼：《逸集》‘天’

7) 言：《逸集》‘語’

8) 菲薄：《逸集》‘薄具’

9) 楹：《逸集》‘靈’

10) 庶欽卑誠：《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10-祭文012

祭文012

朴大立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二十二日甲申，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朴大立，敬祭于贈議政府領議政退溪 李先生¹⁾之靈。光嶽氣全，篤生大²⁾賢，玉蘊金精，純粹稟天。志于正學，惟道是資，深究遺編，遠師濂·伊。外絕馳騫，內斯靜專，闡明義理，見得超然。慥慥功至，體用周通，進退有禮，出處用中。十年朝著，爲士表率，千里南還，作世矜式。先后玉汝，屢³⁾加寵秩，嗣聖求師，旁求宿德。黽勉暫起，申誥初服，辭病歸來，遯世獨立。隴雲光風，巖棲霽月，進爵彌崇，廉退益功。乾坤入手，萬古在目，婆娑丘壑，靜觀造物。一區陶山，數間精室，有來樞衣，諄諄誘掖。

► 朴大立：1512~1584. 字는 守伯, 號는 無違堂·無患.

1) 先生：《逸集》‘公’

2) 大：《逸集》‘名’

3) 屢：《逸集》‘累’

示此指的，明我彝則，奧義闡發，正理昭晰。功存吾道，學起墜地，丕示來今，遠接千載。斯文不幸，樛木其頽，宸心震悼，舉國號悲。恩隆贈賻，禮優存沒，天胡不憖？士皆無祿。道未盡布，壽不滿德。顧惟無似，曾被來賞。承乏咨詢，敢一進訪，方期後會，奄至永訣。抱痛齋誠，只薦菲薄，不昧者存，庶幾來格。⁴⁾

4) 庶幾來格：《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11-祭文013

祭文013

李碩幹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越二十四日丁亥，進士李碩²⁾幹等，謹以清酌蔬果，敬祭于退溪先生靈。嗚呼哀哉！皇天降割，我東不淑。哲人一萎，斯道無托。多士失聲，衆星無斗。既豐其德，胡嗇其壽？紫陽初年，夙鍾美質，祿仕之日，爲親而屈。遇遜之章，見幾而作。高蹈丘園，嚅嚅道脈。俯讀仰思，靜存動察。味人無味，樂衆不樂。超然造約，瑩爾透澈。玉潔騷雅，非先生至。簞瓢安貧，豈公盛美³⁾？清修一端，恬靖疏節。自任在道，所全惟德。明·誠兩進，敬·義偕立。由其誠至，是以合天。歷觀東土，豈無其賢⁴⁾？會極發粹，惟公渾⁵⁾全。況倡絕學，私淑荒偏。醒寤大寐，日月群

► 李碩幹：1509~1574. 字는 仲任, 號는 草堂.

2) 碩：《逸集》‘石’

3) 美：《逸集》‘味’

4) 賢：《逸集》‘傳’

昏，力倍闢墨，恐非虛言。聘幣鼎來，不釋莘耕，軒冕
倘來，詎嬰我情？吾儕小生，幸生近鄉，覲德有晬，望
道無方。血肉之軀，天理其相，黃河接笑，泰山景仰。
孰料如今，下世斯速？朋來遺跡，自此難復。恭奠情
薦，庶顧菲薄。

5) 渾：《逸集》‘混’

輓祭錄112-祭文014

祭文014

俞大修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二十七日庚寅，慶尙道都事俞大修，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¹⁾退溪先生判中樞府事贈議政府領議政李公之靈。伏以道喪千載，聖學幾絕，眞儒有作，人類乃立。超然獨詣²⁾，遠師程朱，仁具體全，道通萬殊。行藏有義，退守丘壑，功存明道，一世矜式。訃音忽聞，含血號悲。邦空士喪，櫟折山頽。大修追憶昔年，承命勉留，緬想長慟，爲一奠菑。³⁾

▶ 俞大修

1) 于：《逸集》에는 뒤에 ‘卒’이 있다.

2) 詣：《逸集》 ‘請’

3) 爲一奠菑：《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13-祭文015

祭文015

門人 李德弘

恭惟先生²⁾，純粹之資³⁾，和順之德，程朱道學，孔孟心法。沉潛敬義，涵泳⁴⁾仁智，規矩其行，金石其志。兩盡⁵⁾明誠，交養性情⁶⁾，外持肅肅，內守惺惺⁷⁾。表裏相維，動靜俱正。莠盡苗長，醅化醴醇。天君泰然，百物皆春。樂憂行⁸⁾違，隨遇而安。珠藏于淵，玉蘊⁹⁾于山。盤渦鷺浴，獨樹花發。濂溪光霽，延平壺月，首陽之風，陋巷之樂。養花經綸，軒冕土苴，祇祇山立，湛湛鑑虛。發語秋霜，接物春噓。允矣先生，展也大成。鴻濛又闢，

▶ 李德弘：1541~1596. 字는 宏仲, 號는 艮齋.

2) 恭惟先生：《逸集》에는 앞에 ‘退溪先生文’이 있다.

3) 資：《逸集》·《艮齋集》‘姿’

4) 泳：《艮齋集》‘養’

5) 盡：《逸集》‘進’

6) 性情：《逸集》·《艮齋集》‘情性’

7) 外持……惺惺：《艮齋集》에는 없다.

8) 憂行：《艮齋集》‘行憂’

9) 蘊：《艮齋集》‘韞’

長夜再明。茫茫墜緒，不師¹⁰⁾而得。考亭歸來，孰能是若？矧吾海東，箕後無傳。獨立衛道，啓後光前。著龜邦國，山斗斯文。一代所宗，百世攸尊。望門以趨，多士濟濟。進之以禮，勉之以序，誘掖提撕，不倦不已。忘飢忘寢¹¹⁾，不知老至。虛己受人，必擇菑蕘¹²⁾。惟彼美人，爲我心思，隴¹³⁾上白雲，不堪持贈。鶴書入谷，渭獵時應。「六條」嘉猷，《十圖》聖學。柄鑿不入，空言何益？卷懷乞骸，孤帆三宿。故山猿鶴，爭迎喜色。嗚乎！小子懵學¹⁴⁾，夙角趨拜。深蒙不鄙，猥忝勸戒。巖棲春和，亦樂秋涼。從遊杖屨，幾年徜徉？月瀾當日，中夜獨起。弘適在座¹⁵⁾，問敬字旨。¹⁶⁾曰正衣冠，曰一思慮。嚴肅整齊，不欺不慢¹⁷⁾，從事於斯，是之謂¹⁸⁾敬。自茲以往，可做賢聖。逮在去秋，傾旆伊洞。婆娑瑞日，吟詠鳴鳳。繼拜溪堂，雀羅門開。深衣大帶，

10) 師：《艮齋集》‘思’

11) 寢：《逸集》‘窮’

12) 虛己……菑蕘：《艮齋集》에는 없다.

13) 隴：《艮齋集》‘壠’

14) 嗚乎小子懵學：《艮齋集》‘顧余小子’

15) 座：《逸集》‘左’

16) 旨：《逸集》‘持’

17) 嚴肅整齊，不欺不慢：《艮齋集》‘不欺不慢，嚴肅整齊’

18) 之謂：《艮齋集》‘謂之’

程子冠裳¹⁹⁾ 適於冬初，弘在山西。人事多掣，阻謁月餘。驚聞疾革，奔走來候。仁者必壽，謂得神祐。至月念六²⁰⁾，²¹⁾ 命理諸書。仍進以面，語言如初。山樛忽墜²²⁾，萬事亡羊。叫天叩²³⁾地，涕淚滂滂。壽顏卅七，少孔三年。嗟嗟易簣，曷其亟邪²⁴⁾？天喪斯文，曷其亟耶？²⁵⁾ 聞道生順，得正歸全。如何衆謗，沒後更扇？²⁶⁾ 況²⁷⁾愚不敏，未解禮經，凡百喪制，揔²⁸⁾不如情。²⁹⁾ 服未加身，時月屢更³⁰⁾，恩均父視，禮闕猶子。誠乏築場，罪極天地。春回溪上，萬卉得時。山梅吐哀，澗柳含悲。朝烟悵悵³¹⁾，庭草悠悠。九泉茫茫³²⁾，典刑何求？幽明永隔，我業何終³³⁾？進哭柩前，天地³⁴⁾夢夢。退居

19) 崑：《艮齋集》‘巍’

20) 六：《逸集》‘八’

21) 至月念六：《艮齋集》‘臘月初七’

22) 墜：《艮齋集》‘摧’

23) 叩：《逸集》‘扣’

24) 邪：《逸集》‘耶’

25) 嗟嗟……亟耶：《艮齋集》에는 없다.

26) 如何……更扇：《艮齋集》에는 없다.

27) 況：《艮齋集》‘顧’

28) 揔：《逸集》‘總’

29) 情：《逸集》‘前’

30) 服未……屢更：《艮齋集》에는 없다.

31) 悵悵：《艮齋集》‘憾憾’

32) 庭草……茫茫：《艮齋集》에는 없다.

33) 終：《艮齋集》‘究’

溪齋，遺教佩躬。群疑滿腹，衆難塞胷，何時³⁵⁾更從，撥雲披霧？³⁶⁾言念及此，五內如割。謹具菲薄，以薦心血，不亡者存，庶幾昭格。

34) 地：《艮齋集》‘日’

35) 時：《逸集》‘氏’

36) 何時……披霧：《艮齋集》에는 없다.

輓祭錄114-祭文016

祭文016

李禎

維隆慶五年，歲次辛未月日，門人龜巖 李禎，謹遣孫虎燮，敢以清酌脯果之奠，敬祭于退溪 李先生之靈。嗚乎哀哉！¹⁾ 維我先生，天挺聰明，鍾祥毓秀，集粹會精。襟宇脫灑，玉色冰清。氣度全備，春融秋肅。行本孝悌，學求精一，無物不格，無書不讀。句句研究²⁾，字字尋覈。眞積力久，精義入神。天地之大，無極之眞，日月盈虛，陰陽³⁾消息。灑掃之細，綱常之極，下學工程，上達心法。體用顯微，精粗本末，冰釋的破，昭融無際。古今子集，璣衡遺制，莫不辨別，無爽毫髮。源流既正，疉翳復廓。仕止之節，或久或速。進退之宜，以禮以義。蹈繩履規⁴⁾，人或有議。道理在我，豈敢少渝？格君有

► 李禎：1512~1571. 字는 剛而，號는 龜巖.

1) 維隆慶……哀哉：《龜巖集》에는 없다.

2) 究：《逸集》·《龜巖集》‘窮’

3) 陰陽：《逸集》‘陽陰’

疏，聖學有圖。孚誠上通，聖旨允俞。引疾辭榮，豈是獨善？廉頑立懦，百代冠冕。箕教我東，逮及羅·麗。聖朝文明，千載一時。前後名賢，蔚然有聲。金聲玉振，實維先生。卓爾獨立，泰山喬嶽。龍德施普，遠近思服。眇末顛蒙，亦蒙訓迪。屈指樞衣，今二十年。牖牆警惰，提耳繩鞭。昔陪京洛，僦去⁵⁾一防，出入無違，訓⁶⁾誨⁷⁾有常。數年卯申，夫豈素志？浩然肥遯，宜仁舊里。忝守東都，宿春可止。⁸⁾趨拜⁹⁾杖屨，溪舍陶堂。圖書滿壁，千古遺¹⁰⁾芳。樂以忘憂，安以斯處。霽月冰壺。昔聞其語，和風甘雨，今見其人。斯受之量。不倦之仁，歷舉經傳，警誨丁寧。奉以周旋，如骨斯銘。陶山記詠，《傳疑》精絕。親啓箱篋，飽而¹¹⁾大德。受業未盡，官務又掣。惘然辭退，送我江曲，申戒勿畫，詩以勗之。坐春立雪，矢毋愆期，人事難諧，歲月如馳。怒焉¹²⁾南

4) 規：《龜巖集》‘矩’

5) 去：《龜巖集》‘居’

6) 訓：《龜巖集》‘諄’

7) 訓誨：《逸集》‘諄諄’

8) 止：《龜巖集》‘至’

9) 拜：《逸集》·《龜巖集》‘陪’

10) 遺：《龜巖集》‘流’

11) 而：《逸集》‘以’，《龜巖集》‘我’

12) 焉：《逸集》·《龜巖集》‘然’

還，八年于茲。昔人誠篤，徒步往學。有志不成，俯仰愧怍。只憑信便，質問疑晦。聯篇屢¹³⁾牘，都是鐫誨。悄悄有憂，戒以反求。悔尤或生，諭以勿留。敬受服膺，拳拳不休。庶覲勉進，稊稗有秋，豈意上天，鞠凶斯酷？邦國不幸，士林無福，後生何依？小子何托？東望慟哭，欲絕復續。病未能奔，葬不及會。情·禮兩乖，恩·義安在？幽明永隔，德容難再。有疑何問？有晦何質？微誠罔極，遠奠菲薄，不亡者存，庶幾來格。¹⁴⁾

13) 屢：《龜巖集》‘累’

14) 庶幾來格：《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15-祭文017

祭文017

趙穆

門人趙穆敬以酒果敢告¹⁾于先師退陶先生之靈。伏以瑞
日淪光，祥雲沉彩。百年依賴，一朝長辭。攀號莫追，
我心摧割。已矣已矣，天乎天乎！

▶ 趙穆：1524~1606. 字는 士敬, 號는 月川.

1) 敢告：《逸集》‘告祭’

輓祭錄116-祭文018

祭文018

金富弼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門人金富弼·李叔樑·趙穆·李元承·金富儀·金樂春·琴應夾·南夢鰲·琴蘭秀·金富倫·金箕報·具贊祿·金士元·琴應堧·金堧·金澤龍·金圻·張謹等，謹以清酌庶羞，敬祭于先師退陶先生之靈。¹⁾ 生民²⁾以來，未有夫子，顏·曾·思·孟，豈無所自？聖遠言湮，斯道廢久，不有周·程，誰³⁾能授受⁴⁾。不有張·朱，誰⁵⁾能繼⁶⁾開？口耳失真，五百年來。天相斯文，吾道東矣。洪爐帝⁷⁾鑄，先生是起。私淑諸人，

▶ 金富弼：1516~1577. 字는 彦遇, 號는 後彫堂.
琴蘭秀：1530~1604. 字는 聞遠, 號는 惺齋.

- 1) 維隆慶……之靈：《惺齋集》에는 없다.
- 2) 生民：《惺齋集》‘恭惟生民’
- 3) 誰：《惺齋集》‘孰’
- 4) 授受：《惺齋集》‘受授’
- 5) 誰：《惺齋集》‘孰’
- 6) 繼：《逸集》‘啓’
- 7) 帝：《惺齋集》에는 없다.

超然獨詣，深潛義理，餘事文藝。趙孟之貴，非其素志。中年以後，浩然歸思。簞食萬鍾，早擇斯二。皎皎白駒，亦難維繫。舊怨猿鶴，今迎童僕。終日儼然，危坐一室。左右簡編，何事所樂？⁸⁾ 泝流洙·泗，尋源濂·洛。諸子百家，泛濫出入。研窮經傳，《釋義⁹⁾》有作。考證《啓蒙》，《傳疑》有述。《心經》一編，手不釋卷。紫陽之學，矧乃所願？¹⁰⁾ 仰思俯讀，夜以繼日。至忘寢食，唯¹¹⁾恐不及。¹²⁾ 天命之微，人心之危。義理之辨，善惡之幾，毫分縷析，如別白黑。辭受取與，各當於¹³⁾理，語默動靜，皆適其義。表裏洞然，中外融澈。¹⁴⁾ 學已高明，慊然¹⁵⁾不足。不覩不聞，戒懼愈功，隱¹⁶⁾微幽獨，省察愈密。充養完粹，無復¹⁷⁾圭角，自然之中，若¹⁸⁾有成法。王佐之才，果若人言。門庭之間，恩義並

8) 趙孟……所樂：《惺齋集》에는 없다.

9) 義：《惺齋集》‘疑’

10) 心經……所願：《惺齋集》‘眞經朱全，手自抄節’

11) 唯：《逸集》‘惟’

12) 至忘……不及：《惺齋集》에는 없다.

13) 於：《惺齋集》‘其’

14) 中外融澈：《惺齋集》‘融會貫徹’

15) 慊然：《惺齋集》‘猶日’

16) 隱：《惺齋集》‘謹’

17) 無復：《惺齋集》‘不露’

18) 若：《惺齋集》‘曰’

敦。祭祀之際，誠敬必篤。賓客往來，靡不迎接。親戚吉凶，靡不調贖。¹⁹⁾ 至於自奉，而儉而朴。衣取蔽體，食取充腹。²⁰⁾ 環堵蕭然，只障²¹⁾風雨。若將終身，他又何慕？時勢所迫，翻然一改²²⁾。陳疏「六條」，宸寵²³⁾有戒，進《圖》十幅²⁴⁾，聖學無愧。寵秩雖²⁵⁾加，安能久此？一朝歸來²⁶⁾，陶山·洛水。同好鼎來，戶常滿履。請質差謬²⁷⁾，諄諄告諭。分別異同，群疑冰釋。²⁸⁾ 物格有說，喜其所得。論心未精，憂其所學。疾病支離，問難不輟²⁹⁾。³⁰⁾ 或深或淺，或高或下，隨其姿³¹⁾稟，誘掖無惰。吾黨小子，亦參摳衣，掃除門下，廿³²⁾年于茲。春回³³⁾庭草，魚躍盆池。鱣堂月明，絳帳³⁴⁾風吹。携卷

19) 調贖：《逸集》‘周恤’

20) 王佐……充腹：《惺齋集》에는 없다.

21) 障：《惺齋集》‘蔽’

22) 時勢……一改：《惺齋集》에는 없다.

23) 寵：《逸集》·《惺齋集》‘聰’

24) 進圖十幅：《惺齋集》‘書進十圖’

25) 雖：《逸集》‘誰’

26) 歸來：《惺齋集》‘辭歸’

27) 戶常……差謬：《惺齋集》에는 없다.

28) 群疑冰釋：《惺齋集》에는 뒤에 ‘四七有辨’이 있다.

29) 輟：《逸集》‘輟’

30) 喜其……不輟：《惺齋集》‘考據精詳，翰札笱束，常變疑節，學問造詣’

31) 姿：《逸集》·《惺齋集》‘資’

32) 廿：《惺齋集》‘卅’

33) 回：《惺齋集》‘深’

進退，幾承教詔？³⁵⁾ 縱未傳心，恩豈小³⁶⁾爾？承³⁷⁾奉指授，愚或可解³⁸⁾，³⁹⁾ 何意一夕，兩楹夢罷？易簣前日，招我由側，曰與諸君，群居講說。至此⁴⁰⁾追思，夫豈偶⁴¹⁾然？洋洋⁴²⁾在耳，哀淚如泉。頷禮之間⁴³⁾，拔木之時，天胡不慙，而至於斯？⁴⁴⁾ 遽使後學，失所依歸⁴⁵⁾，墜緒茫茫，予懷⁴⁶⁾之悲。聊憑几筵⁴⁷⁾，薦此菲薄，不亡者存⁴⁸⁾，庶幾昭⁴⁹⁾格。⁵⁰⁾

34) 絳帳：《惺齋集》‘講筵’

35) 携卷……教詔：《惺齋集》에는 없다.

36) 小：《逸集》‘少’

37) 承：《逸集》‘永’

38) 解：《逸集》‘受’

39) 承奉……可解：《惺齋集》에는 없다.

40) 至此：《惺齋集》‘而今’

41) 偶：《逸集》‘隅’

42) 洋洋：《惺齋集》‘教詔’

43) 問：《逸集》‘日’

44) 天胡……於斯：《惺齋集》에는 없다.

45) 遽使……依歸：《惺齋集》‘遽失所依，偃偃安歸’

46) 予懷：《惺齋集》‘小子’

47) 筵：《惺齋集》‘案’

48) 不亡者存：《惺齋集》‘伏惟尊靈’

49) 幾昭：《惺齋集》‘賜歆’

50) 庶幾來格：《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17-祭文019

祭文19

金富弼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初九日辛丑，司馬所
金富弼·李叔樸·金富儀·李寧·琴蘭秀·金富倫·琴應璫
等，謹以清酌饗麵之奠，敬祭于退溪先生之靈。¹⁾ 嗚乎！
周道衰微，是有宣聖，楊·黑肆行，乃生鄒孟。五朝昏
亂，周·程挺出，三綱紊舛，晦翁斯作。惟皇天生此聖
賢，必欲傾否而起廢。行道則雖斂²⁾於一時，明教則無
窮於萬世。矧吾東方，僻在遐裔，箕「疇」邈矣，文獻無
徵。倡道無人，異論並興。間有名賢，從³⁾事虛文。義
理⁴⁾莫辨，王伯⁵⁾誰分？私身私學，人各異門。偉哉先
生！於焉受命，稟惟純美，氣又清勁。學無承於闕里，

▶ 金富弼：1516~1577. 字는 彥遇, 號는 後彫堂.

1) 維隆慶……之靈：《後彫堂集》에는 없다.

2) 斂：《逸集》·《後彫堂集》‘歛’

3) 從：《逸集》‘都’，《後彫堂集》‘徒’

4) 理：《逸集》‘利’

5) 伯：《後彫堂集》‘霸’

興不待於文王，初不屑於科第，偶見縛於名纏。⁶⁾ 然所好不在彼兮，必辭尊而去華。⁷⁾ 彼洛上游⁸⁾，可以晤⁹⁾歌。結茅三椽，僅能容膝。泥塗軒冕，葛藜圖籍。雅言朱書，尤深《易》理。明·誠兩進，敬·義交致。窮理則毫分縷析，處事則繩直準平。文質得宜，野史難名，清和相濟，夷·惠無迹。人皆謂¹⁰⁾孝友出天，而不足以論先生之學，世爭慕恬退過人，而不足以盡先生之德。高官大爵，人以爲榮兮，自視欲然。蒲輪·玉帛，沓至丘園兮，其守彌堅。惟先生道大德宏兮，雖不得大施於當年，繼往聖而¹¹⁾開來學，實吾東之鼻祖。既眞積而力久，故養厚而施普¹²⁾，縱若無而若虛，自難掩其蘭馨。彼遠來而近悅，豈若道政而濟¹³⁾刑？變一國於至魯，夫孰非先生之力？是知幽居之事業，不比卯申之淺速。誠百代之大¹⁴⁾儒，信斯文之宗匠。況我門徒，幸同鄉黨，蓮

6) 纏：《後彫堂集》‘韁’

7) 華：《逸集》‘卑’

8) 游：《後彫堂集》‘兮’

9) 晤：《後彫堂集》‘寤’

10) 謂：《後彫堂集》‘爲’

11) 而：《逸集》에는 없다.

12) 普：《逸集》‘譜’

13) 濟：《逸集》·《後彫堂集》‘齊’

14) 大：《後彫堂集》‘眞’

會有舊，契修春秋。承風醉德，每忝¹⁵⁾陪遊，講道論文，幾年親炙？愛親敬長，是誰之化？粗知義方，莫非陶冶。謂必得壽，澤不止¹⁶⁾此。何意一疾，遽至不起？七十光陰，倏若驚電。¹⁷⁾ 嗚乎先生！已矣永遣。人未見聖，若不克見。亦既見之，猶不克由。凡人皆是，益歎吾儔。同時共井，千載一時，人謂我輩，必有異知。自顧枵然，可堪忸怩？有時造門，不過暄涼¹⁸⁾。有時請益，瑣¹⁹⁾屑徒煩，學之未究，理之不徹。思以就正，謂有來日。今既失之，方知所闕。自此疑難，其孰從質？嗚乎哀哉！²⁰⁾ 樛木²¹⁾之歎，世人所共，怙恃之喪，我輩尤慟。²²⁾ 幽明永隔，卒業無期。嗚乎先生！而至於斯。日月荏苒，負土將迫，挈榼來陳，語音莫接。噓噉無及，啜泣何益？²³⁾ 天長地久，此恨難洩。聯薦菲薄，庶幾欽²⁴⁾格。²⁵⁾

15) 忝：《後彫堂集》‘參’

16) 止：《逸集》‘至’

17) 七十……驚電：《後彫堂集》에는 없다.

18) 暄涼：《逸集》·《後彫堂集》‘涼暄’

19) 瑣：《後彫堂集》‘鎖’

20) 嗚呼哀哉：《後彫堂集》에는 없다.

21) 木：《逸集》·《後彫堂集》‘壞’

22) 慟：《後彫堂集》‘痛’

23) 噓噉……何益：《後彫堂集》에는 없다.

24) 幾欽：《後彫堂集》‘賜歆’

25) 庶幾來格：《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18-祭文020

祭文020

金克一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越十一日癸卯，通訓大夫星州牧使金克一，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退陶先生判中樞府事贈議政府領議政李公之靈。惟靈，冰雪之清，外著其溫，金玉之貞，內蘊其文。拚去匡異，動遵法則。其出而仕也，非貪利祿，其處而隱也，亦豈忘君？與道行止，有義有倫。一鄉稱其孝悌，四方服其德義。望其容者，邪氣不萌，聽其言者，敬心自至。賙贍²⁾窮族，親疏有等，誘掖蒙士，精粗必³⁾備。接人以溫，賢愚皆悅，處下以恩，卑幼咸喜。惡衣惡食，是先生文錦珍羞，佳山勝水，是先生雅意素志。聞人之善，猶⁴⁾恐不揚，聞⁵⁾人之惡，猶恕⁶⁾有傷。至如續程朱之絕

► 金克一：1522~1585. 字는 伯純, 號는 藥峰.

2) 贍：《逸集》‘賙’

3) 必：《逸集》‘畢’

4) 猶：《逸集》‘惟’

學，振洙·泗之微響，開後學之津梁，正一世之趨向，惟其所聞見者如是，其平生學問之淺深，恐非在堂下者之所能臆說也。克一生長隣鄉，昧道懵學，雖蒙繾綣之誨，未有分寸之得。不被棄絕之甚，每承顧遇之長，豈料去冬吟風弄月之軒，遽奠今日號⁷⁾天叩地之觴？嗚乎！清明端潔直方之體，雖不得以復見，中心藏之，何日忘之？

5) 聞：《逸集》‘見’

6) 猶恕：《逸集》‘惟恐’

7) 號：《逸集》‘呼’

輓祭錄119-祭文021

祭文021

柳誠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越十二日甲辰，校生柳誠·權昕·柳謙·具贊福·權伯麟·李繼·沈信·李彥民·孫興悌·金三近·權信敦·金鵬等，謹以清酌庶羞，敬祭于退溪李先生之靈。嗚乎先生，海東一人。道源洙·泗，學傳關·閩。不由師承，得之遺經。早自奮起，晚益德成。¹⁾事物之來，必窮必格，性情之發，即驗即察。義理悅心，至忘寢食，樂在其中，日復一日。浮雲富貴，膏盲泉石，品秩相公，生涯寒士。屢被徵命，或行或止，進必盡禮，退又合理。山雲悠悠，溪水冷冷，婆娑卒歲，夢斷京城。樞²⁾衣有問，輒叩兩端，反異要同，捨從無難。眞儒之業，大賢之功，邦家所倚，士林所宗。矧我

▶ 柳誠：柳宗智，柳宗日의 父.

1) 成：《逸集》‘盛’

2) 樞：《逸集》‘樞’

鄉人，如仰山嶽，將擬百年，永薰其德，如何一夕，遽云³⁾不淑？終喪斯文，天意難測。誠等俱以不才，夙入縣學，雖未從遊，承接已熟。春秋致膳，幾見禮容？昔臨黌序，鳳下梧桐。重新聖廟，莫非指誨。堂宇未就，梁木已壞。⁴⁾嗟嗟小生，何所依歸？會哭樞前，涕淚沾衣。敬奠菲薄，聊寫哀誠，庶幾⁵⁾一格，鑑我深情。⁶⁾

3) 云：《逸集》‘至’

4) 壞：《逸集》‘壞’

5) 幾：《逸集》‘希’

6) 鑑我深情：《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20-祭文022

祭文022

金廷憲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甲辰日，進士金廷憲·生員¹⁾金得礪等，謹奉清酌庶羞，敬奠于先生之靈。嗚乎慟哉！先生之生也，其得於天者，何若是非偶然也，而其寓於世者，何若是不假其年耶？扶彝衛道，展也君子，天則必速其逝矣。克己復禮，志存爲仁，天則不憖遺斯人。明明兮難期，漠漠兮無知。今於先生之沒兮²⁾，怨愈深而慟³⁾愈極，豈非修忠厚以召災，好復禮以促亡者哉？吾將誰咎乎？造物之罪。造物不受兮，推之眞宰。彼眞宰兮，奪人不悔，善惡同歸兮，勸懲何在？善如可贖，人欲身百。嗟嗟先生，永収其精。梁木

▶ 金廷憲：1516~未詳. 字는 公度

1) 生員：《逸集》에는 없다.

2) 沒兮：《逸集》‘歿也’

3) 慟：《逸集》‘痛’

之摧，多士之哀，元老之亡，朝野之傷。築場無因，愧殺古人。一奠菲薄，三杯永訣。

輓祭錄121-祭文023

祭文023

李憲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¹⁾癸巳朔十四日丙午，門人成均進士李憲，謹以清酌庶羞之奠，敢昭告于退溪先生之靈。伏以太師東封，吾道一初，繼者伊誰？鮮見醇如。夫子挺生，箕後一人。眞積力久，日新又新，敬以作所，終始孳孳。云爲中禮，去就合宜，潛心一室，左書右圖。春迴²⁾座上，月照冰壺，俯仰無忤，怡然自適。教誨不倦，愚蒙是擊³⁾，隨才養育，時雨之化。道明日月，德高泰華，一國尊親，賢愚同情。瞻前顧後，集厥大成。斯文不幸，彼蒼無知。山頽梁壞，小子疇依，晚忝函丈，最甚孤陋。濫蒙不鄙，庶幾披霧，夙志已乖，

▶ 李憲：1532~1592. 字는 子脩, 號는 栗里.

1) 二月：《逸集》에는 없다.

2) 迴：《逸集》‘回’

3) 擊：《逸集》‘繫’[추가 ‘擊’, 一本作‘繫’.]

摧慕益深. 祇薦薄物, 冀欽微忱.⁴⁾

4) 冀欽微忱 : 《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22-祭文024

祭文024

李窩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十四日丙午，猶子窩，謹以酒果粢麵之奠，敬祭于叔父退陶先生之尊靈。天地儲精，光岳孕秀，篤生君子，實惟先生。孝友出天，誠敬素履，上希孔孟，下學程朱。展也大成，吾道東矣。志蘊經濟，學究天人。格君誠深，衛道心切。《圖》獻十幅，疏陳「六條」。王國著龜，斯文領袖，浩然歸臥，晚隱巖棲。玩心高明，左右圖籍，清修苦節，扶植士林。門徒鼎來，教誨不倦。養真頤¹⁾性，宜享遐齡。天不憖遺，樑木已壞。宸加賻爵，士爭照²⁾臨。盛衰所關，哀榮備至。嗚乎慟³⁾哉！方其寢疾，窩在龜城。意謂偶然，佇其勿藥，馳來問候，曰感風寒。頑痰上升，客熱又劇，

► 李窩：1534~1595. 字는 君美, 號는 遠庵.

1) 頤：《逸集》‘潁’

2) 照：《逸集》‘甲’

3) 慟：《逸集》‘痛’

聞命驚起，奔走迎醫。厥疾涔涔，方藥無效。身騎箕尾，氣作山河。退溪烟沉，陶山雲暗，龍亡虎逝，鯀舞狐鳴。嗚乎慟⁴⁾哉！審家憫凶，早喪怙恃，零丁孤露，昧學無知。賴我父師，提掖⁵⁾諄懇，受恩罔極，粗知向方。遽失依歸，於何問業？恩深義重，禮當方喪。不肖病濕，痛未遵制。嗚乎慟⁶⁾哉！日月不⁷⁾邁，即遠有期。函丈既空，儀刑杳邈，哭以斯道，痛⁸⁾以吾私。墜緒茫茫，五內摧裂。修我薄具，薦我哀誠。⁹⁾

4) 慟：《逸集》‘痛’

5) 掖：《逸集》‘扼’

6) 慟：《逸集》‘痛’

7) 不：《逸集》‘于’

8) 慟：《逸集》‘痛’

9) 薦我哀誠：《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23-祭文025

祭文025

宋言愼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十五日丁未，後學孤孫宋言愼，遙拜遣人致奠于先生贈領議政行判中樞府事李公之靈筵。伏以天壤始判，青邱¹⁾別域，羲文不東，舜化靡及。民蒙彝則，道只在天。箕封幸被，「範」學無傳。羅季²⁾幾年，徒有文字，海東孔子，章句而已。理學祖者，有髮沙門，夷風未脫，大道奚問？倡學義理，終止³⁾節義，寥寥俯仰，孰承洙·泗？我朝培植，諸儒輩出，或遭奇禍，或罹困厄。其才其志，未究厥學，嗟哉我東，天胡獨嗇？經雖得譯，未見其人，先生一出，日月方新。宣尼不居，今復何悲？恭惟先生，能自得私⁴⁾。

► 宋言愼：1542~1612. 字는 寡尤, 號는 壺峰.

1) 邱：《逸集》‘丘’

2) 季：《逸集》‘麗’

3) 止：《逸集》‘至’

4) 私：《逸集》‘思’

孔⁵⁾經朱書，道在是矣。⁶⁾ 萬古一心，秋月照水。好爵不縻，惟道是縈，博而反約，自明而誠。大本斯立，萬殊一貫，體用同原，顯微無間。酬酢萬變，雨施雲行，金而玉之，允矣大成。退豈忘世？進必以義。丘林講明，樞⁷⁾衣有士。所樂在是，褒徵每加。明考末命，際會孔嘉。方期大用，弓劍忽遺。當寧繼述，崇恩乃垂。幡然入朝，風采丕變。政歸清明，士懷爲善。聖學將明，王道大建。言愼此時，獲趨人後。一夕從容，疑蒙指授。平實二字，對病良藥。知行兩事，發蒙活法，敢渝斯教？寢食憂惶。日月無幾，陛辭匆忙，大防一明，雖勵名場。孤舟歛惠，同胞⁸⁾如何？況我門徒，私懷孔多。臨違月潭，酸涕金波。自是以來，世累作魔。空負秋期，竟被衰麻。登堂計乖，一書方馳。前前⁹⁾九月，教報來思。再拜垢緘，誨無不切¹⁰⁾。操心之方，奉先之禮，即事即理，反覆教詔。別紙有言，病當思矯，向見志氣，激昂¹¹⁾軒輊，固勝委靡，必至傲物。不循軌度，有無限

5) 孔：《逸集》‘師’

6) 是矣：《逸集》‘六經’

7) 樞：《逸集》‘樞’

8) 胞：《逸集》‘飽’

9) 前：《逸集》‘年’

10) 切：《逸集》‘備’

病。須知自反，又肯自省。遜志屈首，密切敦厚。於義理學，加工自厚。變化弊習，消磨血氣。掃除百雜，一意專事。博文約禮，忠信篤敬。規矩自治，純熟爲正。斯爲可尙，惟在勉之。盥水三復，日復日爲，何料斯書，終天之訣？手澤尙新，寓目魂絕。方依緒餘，佇策歸宿。嗚乎先生，奈何不念？退未多傳，講業遽厭。若母提孩，將適千里，出門遽遺，兒將安至？謂事則同，情爲甚矣。雖然小子，已矣而已。奈何彼蒼，喪我斯文？墜緒茫茫，復何云云？儀刑迥失，卒業何門？長念及此，淚血迸泉。方居祖喪，奔赴無便，緇未參執，哭阻柩前。緘辭千里，死有餘慟¹²⁾，拜遣奴星，菲具¹³⁾與共。精靈有儼，庶鑑丹慙。¹⁴⁾

11) 昂：《逸集》‘仰’

12) 慟：《逸集》‘痛’

13) 具：《逸集》‘薄’

14) 庶鑑丹慙：《逸集》에는 뒤에 ‘嗚呼’가 있다.

輓祭錄124-祭文026

祭文026

李從仁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¹⁾癸巳朔十九日辛亥，豐岳書院儒生李從²⁾仁等，敢昭告于先師退溪³⁾先生之靈。惟靈，稟天地精，鍾山川秀，性本愷悌，德又渾厚。國家著龜，斯文山斗，溯波濂·洛，接統洙·泗。粵⁴⁾在甲午，學優而仕，千載嘉會，一堂魚水。入補袞闕，出守郡寄，忠由惓惓，政推慈祥。德著家邦，儀表冠裳，獻可替否，十載天閭。投簪捨笏，百年丘園，三椽精舍，數間茅窩。明窓晝靜，幽居趣多，玩樂齋中，濯纓潭上。潛心寂慮，惟意俯仰，諄諄不倦，勉進後學。無行不與，有疑必達，幾多狂簡，薰德善良？顧以生等，滯迹一

► 李從仁

1) 二月：《逸集》에는 없다.

2) 從：《逸集》‘宗’

3) 退溪：《逸集》‘退陶’

4) 粵：《逸集》‘越’

方，向道既晚，志學不銳。庶幾樞⁵⁾衣，以開錮蔽，天胡不憖，遽至易簣？山頽木⁶⁾摧，小子何托？天降先生，國有稽疑。天奪先生，嫡統誰依？非我哭私，爲吾道悲。儀刑緬邈，已矣難追，敬將薄具，薦此鄙誠。不亡者存，庶鑑寸情。

5) 樞：《逸集》‘樞’

6) 頽木：《逸集》‘堆水’

輓祭錄125-祭文027

祭文027

同日 進士安霽·權春蘭等

斯道之傳，有自來矣。人無繼絕，歷幾千祀？猗與¹⁾先生，天篤降材。扶植道脈，紹往啓²⁾來。嗟惟盛德，間世無比。精一之學，體法姚·姒。博約之教，式遵洙·泗。簞瓢不改，顏子所樂。春草映翠，秋月澄澈。從容和樂，自得其中。充養完粹，吾道有宗。緬我東方，文獻足徵。事業文章，影響相承。求之於道，鮮見其全。嗚乎³⁾先生，至純無愆。折衷群儒，集厥大成。昔有考亭，今見先生。士林之表，邦國之光。賢愚咸服，壽考不忘。天胡不吊，降割斯文？嗟吾小生，至陋無聞，沉痾積年，貿貿昏昏。掃除門下，庶幾服役，奄忽至此，長慟欲絕。金玉之容，愷悌⁴⁾之德，永昧難追，終天罔極。敬奉靈

► 權春蘭：1539~1617. 字는 彦晦, 號는 晦谷.

1) 與：《逸集》‘歟’

2) 啓：《逸集》‘繼’

3) 乎：《逸集》‘呼’

筵，仰薦菲薄，不亡者存，庶鑑心曲。

4) 愷悌：《逸集》‘豈弟’

輓祭錄126-祭文028

祭文028

趙振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二十三日乙卯，門生
衰經趙振，謹齋戒，敢昭告于退溪先生之靈。嗚乎哀
哉！天之生賢，蓋亦不數，運際河清，儲精山岳。宋德
千年，奎星欲晦，疊疊先生，誕生東國。道德文章，一
循前賢，謂當於時，必得其壽。天乎難諶¹⁾，遽至於此。
孔聖朱賢，壽踰稀年。合散屈伸，與化爲徒，古今一息，
曷計短長？而人之觀瞻仰慕，以爲當與日月爭明而不
滅，天地同流而不息。嗚乎先生，從心所欲，縱不踰矩，
壽不滿德。嗚乎哀哉！道既不明，世罕信者。蘊道溪堂，
婆娑丘林。雖蒙慈教，暫施於世，進行退藏，一遵時中。
堯·舜君民²⁾，數十餘年，春山秋水，無幽不窮，斯先生

▶ 趙振：1543~1625. 字는 起伯, 號는 壟隱.

1) 諶：《逸集》‘沈’

2) 君民：《逸集》에는 [추가 ‘君民’下一本有‘豈無其心，天地以否，命也何爲？玩樂齋中’十六字.]가 있다.

之樂也歟！迫於召命，時或出仕，道與時乖，位至崇品，亦何補於先生哉？司徒不施其夫子之道，待制無益於遜翁之時。嗚乎哀哉！積中道德，言行動止，不離規矩。有萬不同，愚昧無識，言語難形。振也小生，遠在湖西，十二月二十六日流聞訃音，蒼皇³⁾罔措，愴怳非眞。即欲奔赴，重服在身，未能匍匐，但有號泣。杯蛇之奇，終始未諳，疾革之時，舉扶無路。問⁴⁾訃之日，又未哭柩，終天罔極，死有餘憾。粗遣薄奠，以叙其哀，身未親往，代無子侄。事涉褻慢，無因致意。聊寄同門之生，庶幾將此微誠，不亡者存，諒鑑心曲。⁵⁾

3) 皇：《逸集》‘黃’

4) 問：《逸集》‘聞’

5) 諒鑑心曲：《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27-祭文029

祭文029

鄭士誠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癸巳朔二十三日乙卯，門下
鄭士誠，謹以酒果，敢昭告于退溪 李先生之靈。 嗚
乎！¹⁾ 天生大賢，間世不數，恭惟先生，實鍾光岳。 氣
質清明，道德高厚，²⁾ 吾東千古，卓乎僅有³⁾。 聖學再
熙⁴⁾，功配前哲，胡畀全德，而奪之速？ 元氣已污，世
運亦否，嗟嗟吾道，已矣墜地。 士誠趨⁵⁾拜，壬戌⁶⁾之
春，不蒙斥外，教誨諄諄。 仁義之說，性理之文，心雖
無得，耳竊有聞。 質本昏惰，不克自奮⁷⁾，時出時入，

▶ 鄭士誠：1545~1607. 字는 子明, 號는 芝軒.

1) 維隆慶……嗚呼：《芝軒集》에는 없다.

2) 道德高厚：《芝軒集》에는 뒤에 ‘明誠學透, 博約功遽, 謙而內光, 闇而喪著’가 있다.

3) 僅有：《芝軒集》 ‘寡儷’

4) 熙：《逸集》 ‘熙’

5) 趨：《逸集》 ‘追’

6) 壬戌：《芝軒集》 ‘辛酉’

7) 奮：《逸集》 ‘奪’

訓詁是聞.⁸⁾ 行不加修，業不益進，以至今日，貿貿寧論？空負厚恩，罪不可原，去歲夏季，暫侍山扃。耳目聰明，神氣康寧，豈料數月，疾病遽嬰？賤疾爲祟，不即進候，逮至委頓，奔走亦後。入門敬抑，精爽無錯，垂問丁寧，一如平昔。謂當痊復，冀或⁹⁾勿藥，纔經數晨，醫窮技殫。視天夢夢，孰詰其端？嗚乎哀哉！邦家殄¹⁰⁾瘁，士林疇依。儀刑永隔，慟¹¹⁾哭何追？謹具菲薄，來奠几筵¹²⁾。不亡者存，鑑此衷¹³⁾虔。¹⁴⁾

8) 聞：《逸集》·《芝軒集》‘問’

9) 或：《芝軒集》‘獲’

10) 殄：《逸集》‘疹’

11) 慟：《芝軒集》‘痛’

12) 筵：《芝軒集》‘前’

13) 衷：《芝軒集》‘哀’

14) 鑑此衷虔：《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28-祭文030

祭文030

孫興禮

維隆慶五年，辛未二月癸巳朔越二十四日丙辰，門人生員孫興禮，謹以清酌粢麵，敬祭于退溪先生之靈。¹⁾恭惟先生，純懿淑德，稟資自天，宮墻重仞，夙得其門。仁經義緯，孝敬淳深，率禮蹈謙，善誘善導。年高德就，理融義精，眞積既²⁾久，允造高明。嵩構忽頽，梁陰遽缺。嗚乎慟³⁾矣！天不憖遺。禮也小生，晚承提撕，學雖迷方，慕道猶⁴⁾篤。說言未久，遽含大慟⁵⁾，微言圯絕，考德于何？道猷靡奉，儀刑⁶⁾永隔，尙賴神鑑，相猶在茲。敬將菲薄，展⁷⁾此哀誠。⁸⁾

► 孫興禮：1548~1578. 字는 君立, 號는 三省齋.

1) 維隆慶……嗚呼：《三省齋逸稿》에는 없다.

2) 既：《三省齋逸稿》‘力’

3) 嗚乎慟：《逸集》‘呼嗚痛’，《三省齋逸稿》‘嗚呼痛’

4) 猶：《逸集》·《三省齋逸稿》‘惟’

5) 慟：《三省齋逸稿》‘痛’

6) 刑：《三省齋逸稿》‘形’

7) 展：《逸集》·《三省齋逸稿》‘奠’

8) 展此哀誠：《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29-祭文031

祭文031

金守一

維隆慶，歲次辛未二月二十五日丁巳，生員金守一，敢以清酌蔬果，敬祭于先生之靈。嗚乎！以先生之學，以先生之道，而至此極邪¹⁾？陽明在躬，鬼不得爲邪也，誠敬昭格，天不得不佑也。鬼不得爲邪，天不得不佑，而一疾之嬰，竟莫之救，是必其生也其死也，關時運之盛衰，係斯文之興喪，鬼不得不反而歸，而²⁾天亦無如之何也耶？原始反終，而晝夜一理，幽明無間，則於先生，固無損焉，亦無加焉。其如吾道何，士林何，國家何，蒼生何？天之生聖賢，蓋亦不數，自孔·顏·思·孟以來，歷千有餘年而後，儲精孕靈，周夫子乃出。自周子以來，閩·洛諸儒，相與傳授，集大成於考亭。夫子·

▶ 金守一：1528~1580. 字는 景純，號는 龜峯.

1) 邪：《逸集》‘耶’

2) 而：《逸集》‘以’

考亭既沒，迄于今四百餘祀，求諸中華，無有乎已。顧惟我邦，遠自殷師，吾道乃東，士得聞知，厥惟孔艱³⁾，是以殊邈。上下千有餘年間，節義之高·文章之麗者，則容或一二，而任斯道之責·明斯道之傳者，何其蔑蔑？先生之生，混淪⁴⁾再闢，先生之亡，泰山其頽。邈千有餘年之前，而不可得，歷千有餘年而後，乃有先生，以講明考亭之正學，爲百代宗師。而天喪斯文，奄至於斯，則曷爲而不使我號⁵⁾天而慟哭，失聲而長哀耶？小子無似，昧道懵⁶⁾學，曾忝⁷⁾函丈，難雕朽木。只有秉彝，好德之良⁸⁾心，敢忘頃刻？後先生千百載之下，亦足以起懦而敦薄，矧乎生並一世，面承提挈，欣悅誠服於風範氣像之間者久矣，而猶未免爲鄉人，如愚生者，死何以見先生於地下乎？悔不可追，益自悲號。初聞疾革，我往候之，病且少間，神所扶持。留俟二日，漸向其復，質之良醫，問諸侍側。指期治效，俱曰無疑。我信斯言，喜不可支。狀褥之上，恐或⁹⁾有違，進不告至，

3) 艱：《逸集》‘嘉’

4) 混淪：《逸集》‘崑崙’

5) 號：《逸集》‘呼’

6) 懵：《逸集》‘瞢’

7) 忝：《逸集》‘參’

8) 良：《逸集》에는 없다.

退不告歸。庶幾無疾，以待後日，還鞭朝舉，訃音夕出，蒼皇奔走，哀號何及？我實無知，只信其常，而¹⁰⁾不疑其變，自貽阻隔。既不得親承啓手啓足之命，又未及面請其儀禮¹¹⁾之參用，而乃至於大風拔木，洪流崩崖，則窮天之慟¹²⁾，寧有極乎，寧有極乎？來奠菲薄，如見儀刑，不亡者存，鑑此哀誠。

9) 恐或：《逸集》‘或恐’

10) 而：《逸集》에는 없다.

11) 儀禮：《逸集》에는 뒤에 ‘書儀’가 있다.

12) 慟：《逸集》‘痛’

輓祭錄130-祭文032

祭文032

門人¹⁾黃海監司尹斗壽

泯泯棼棼，哀我東方！士昧所學，墜緒²⁾茫茫。圃隱挺出，麗季有光，畢齋有意，專事文章。靜菴之學，寒暄實倡³⁾，遭時不幸，人之云亡。猗與⁴⁾先生，奮自南鄉，天資近道，不階升堂。餘事時文，早參賢良，爵祿非榮，義理膏梁。中歲⁵⁾引退，坐閱炎涼，優遊邑宰，摩撫痍瘡。意有不可，歸去徜徉，入哭助華，間筮⁶⁾鵠行。直道而行，權臣中傷，賴天之明，旋許趨蹌。薄言南歸，林下翱翔，左圖右書，采⁷⁾華擷芳。研窮性命，扶植綱常，乾端坤倪，鬼秘神彰。潛心着力，中夜靡遑。極其

▶ 尹斗壽：1533~1601. 字는 子仰, 號는 梧陰.

1) 門人：《逸集》에는 없다.

2) 墜緒：《逸集》‘緒墜’

3) 倡：《逸集》‘唱’

4) 與：《逸集》‘歟’

5) 歲：《逸集》‘世’

6) 筮：《逸集》‘造’

7) 采：《逸集》‘採’

精微，蚤絲毫芒。推其廣大，天濶海⁸⁾長，目牛皆虛，寧待投鉞？胸衿灑落，風月迷藏，味道之腴，身世兩忘。迨其季年，益大以昌，當宁眷注，擬置巖廊。司馬入來，衛士若狂，伊川坐講，始近御床。初政一䟽，實談皇王，《聖學十圖》，炳炳忠腸。官綴崇班，心所矜惶，引年乞骸，辭朝促裝。富貴浮雲，泉石膏盲，反棲陶山，永謝塵韁。想望風采⁹⁾，聞世麟鳳，講道于家，有來冠裳。屢滿戶外，春融座傍，有所矜式，衣被無疆。胡不百年，忽報以喪？遙望天涯，失聲蒼皇。¹⁰⁾ 嗚乎先生，胡不爲¹¹⁾祥？命之不融，誰實主張？合散消息，未可推詳，小智自私，較計彭殤。所貴聞道，夕死何妨？嗚乎先生，向已商量。嗟惟聖學，肇自虞·唐，偏邦罕傳，幾多搶攘？先生得之，身焉允臧，進不大施，退又斯忙。天若生之，胡遽毀梁？小子何知，久矣俛俛。自惟無狀，不識痛痒，貪祿早官¹²⁾，無異渴羌。逃聞高風，空自彷徨。歲在丁卯，獲拜齊房。未暇魯魚，安事宮

8) 天濶海：《逸集》‘海濶天’

9) 采：《逸集》‘彩’

10) 皇：《逸集》‘黃’

11) 不爲：《逸集》‘爲不’

12) 官：《逸集》‘宦’

墻？間多趨走，發問怠荒。中朝學派，象山餘潢，吾子戒之，長禾鋤稂。言猶在耳，忍付亡羊？漢上之別，遠于相將。江空目斷，我腸非剛。擬於來歲，因事聚糧。忽聞訃音，有涕浪浪。奔赴後人，來按首陽。儀刑永隔，地黑天蒼。遣人哭奠，庶欽一觴。

輓祭錄131-祭文033

祭文033

龍宮儒生張翼·玄太始·朴淵

天挺眞儒，日出之方，奎精岳氣，妙合禮鄉。道德性命，三綱五常，自誠而明，悠久無彊。筮仕行道，口含蘭香，江湖憂¹⁾樂，進退有章。睿眷寵極，累世明揚，在國著龜，在野鸞鳳。《十圖》獻規，啓沃贊襄，卷懷明時，尊道以藏。陶山精舍，武夷齊芳，周紹軻絕，二程連昌。能繼晦翁，道東而彰，清苦介節，冰月珪璋。聞風薰德，孰不以臧？難諶者天，仁不壽長。邦無規²⁾範，士失瞻望，³⁾賓師闕位，孰扶皇王？先生存沒⁴⁾，吾道興亡，迹阻杖屨，心倍悲傷。祇薦菲薄，欲叫茫茫，爲斯文慟，非但沾裳。不泯者存，欽此我將。⁵⁾

▶ 張翼

1) 憂：《逸集》‘優’

2) 規：《逸集》‘奎’

3) 望：《逸集》‘仰’

4) 沒：《逸集》‘歿’

5) 欽此我將：《逸集》에는 뒤에 ‘龍宮儒生, 張翼·玄太始·朴淵’이 있다.

輓祭錄132-祭文034

祭文034

門人 裴三益

恭惟¹⁾先生，受氣之清，稟質之異，如金之精，如玉之美。不由師承，妙悟至理，不知²⁾不措，精思力踐。勤苦刻勵，循循勉勉，存省³⁾之功，頃刻不輟。義理⁴⁾之分，毫釐必察，明物察倫，行必中正。維⁵⁾學之純⁶⁾，維⁷⁾德之盛⁸⁾，謙謙不足，日新不已。辭受取予，義之與比，用⁹⁾捨¹⁰⁾行藏，一聽於天。胷襟洞澈，表裏渾然，

▶ 裴三益：1534~1588. 字는 汝友, 號는 臨淵齋.

1) 恭惟：《逸集》에는 앞에 ‘維隆慶五年，歲次辛未壬戌朔初八日己巳，門人裴三益，謹以香燭酒果麵餅哭奠于退溪先生之几筵.’이 있다；《臨淵齋集》에는 앞에 ‘謹以香燭酒果麵餅哭奠于退溪先生之几筵.’이 있다.

2) 知：《臨淵齋集》‘得’

3) 省：《逸集》‘誠’

4) 理：《臨淵齋集》‘利’

5) 維：《臨淵齋集》‘惟’

6) 純：《臨淵齋集》‘醇’

7) 維：《臨淵齋集》‘惟’

8) 盛：《逸集》‘善’

9) 用：《逸集》‘盛’[추가 ‘盛’, 一本作‘用’.]

10) 捨：《逸集》·《臨淵齋集》‘舍’

春溫接物，雨潤教施。¹¹⁾ 雅志林壑，遠迹城市，召命雖勤，辭退益切。瀝血陳言，幾¹²⁾多啓沃？四朝元老，一介書生。簞瓢陋巷，頤¹³⁾養性情，景仰濂·洛，尊崇¹⁴⁾考亭。《傳疑》既作，《易》道復明，《十圖》乃成，聖學有傳。繼往開來，不讓前賢，陶山蒼蒼，退溪涓涓¹⁵⁾。方乞休致，以終餘年，¹⁶⁾何意一疾，而至於斯？士失宗師，國無著龜，嗚乎哀哉！三益生晚隣鄉，嘗¹⁷⁾無見知。於歲庚申，始得聞詩，受¹⁸⁾恩函丈，十有年¹⁹⁾奇。顧惟愚陋，貿貿迷路，前歲之秋，再奉杖屨。爰將²⁰⁾箋狀，付余西歸，亦復裁書，遠寄京師。曾幾何時，奄至此極？係官于朝，未即匍匐。南來有日，事故牽掣，菲薄之奠，亦後於人。生平愧負，重我傷神，伏哭柩前，奉陳以辭。不亡者存，庶幾鑑²¹⁾茲。²²⁾

11) 施：《逸集》‘示’

12) 幾：《逸集》에는 없다.

13) 頤：《逸集》‘頤’

14) 崇：《臨淵齋集》‘信’

15) 涓涓：《臨淵齋集》‘溶溶’

16) 年：《臨淵齋集》‘齡’

17) 嘗：《臨淵齋集》‘惜’

18) 受：《臨淵齋集》‘承’

19) 有年：《逸集》·《臨淵齋集》‘年有’

20) 將：《臨淵齋集》‘命’

21) 幾鑑：《臨淵齋集》‘其監’

22) 庶幾鑑茲：《逸集》에는 ‘庶歆我觴’[주기 ‘歆我觴’, 一本作‘其鑑茲’.]로 되어 있고,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33-祭文035

祭文035

門人 奉列大夫行安城郡守 徐崦¹⁾

嗚乎！青山旁園，白水橫瀉，數間茅屋，嗒然靜坐。軒
冕浮雲，功名弩牙，所存者天，纖滓不加。溯洛正脈，
接洙真源，用溉我根，洗彼塵昏。嗚乎！崦夙奉道袂，
再謁幽廬，山罇一醉，風清月孤。今承楹夢，哀莫我窮。
遙緘酒果，奉效微衷。

► 徐崦：1529~1573，字_는 鎮之，號_는 春軒。

輓祭錄134-祭文036

祭文036

門人 生員 金應生¹⁾

嗚乎！我東千載，紫陽復明，萬彙順成，五氣凝精。冰壺之潔，秋月之清，澄澈襟抱，蕭灑神精。歷覽萬古，無物不明，趨趨並進，士友甚衆。武夷之曲，洙·泗之上，小子負笈，十年于今。諄諄誘掖，在釋一念，功利浮雲，義理芻豢。王國棟梁，吾黨標準，唐·虞日月，堯·舜乾坤。頑夫之廉，匹婦之智，家誨戶誦，孰無此學？上才既導，下愚亦移，吁余懵滯，幾恐不置？歲在戊辰，猥忝上舍，伏聞狀辭，再陳乞骸。聽論中外，天命益重，窈窕溪山，風月無定。決意勇退，買舟何日？哀我無似，多失向方。滌兒澣浣，昨拜門屏，不屑而留，有誨丁寧。天不永配，泰山云崩，長夜無曉，宇宙蒼蒼。而永今夕，惟我哭私，先生在茲，庶顧平素。

► 金應生：1496~1555. 字는 德秀, 號는 明山.

輓祭錄135-祭文037

祭文037

同日 門人 通政大夫兼忠順衛 李壽千¹⁾

紫陽一晦，大東無曉，元氣之丕，綱常之頽。挺出大老，天不喪斯。氣質清粹，冰壺秋月。天地儲精，鬼神不惑，人倫之正，王道之復。勇進決退，幾見機惡？高臥邱林，七旬如一。心傳孔·孟，道紹閩·洛，風咏溪山，鳶魚活潑。蕭灑胷襟，高明澄澈，沉默圖書，領略今古。盲聾視聽，愚頑廉恥，小子摳衣，歲將十四。晨夕面命，赤心誘掖，耳雖有聞，心何無得？近思義理，《易》學象數，【缺】那知今夕，父母云殤。

► 李壽千

輓祭錄136-祭文038

祭文038

許曄

維隆慶五年¹⁾辛未²⁾三月³⁾十二日⁴⁾，折衝將軍行虎賁衛上護軍⁵⁾許曄，遣⁶⁾男箴⁷⁾，致告于退溪 李先生之靈。惟靈，天賦⁸⁾純粹，濟以問學，懇懇其誠，溫溫其德。豈不欲行？遭⁹⁾時否隔，每告引退，惟邱¹⁰⁾惟壑。沉潛典墳，芻豢道腴，接引成就，多士爭趨。晚乃遭遇，幡然來斯，「六條」之疏，《十圖》之詞。庶幾大行，回世隆平，事有不然，棲遲計成。追送江津，竊觀德樣，精

▶ 許曄：1517~1580. 字는 太輝, 號는 草堂.

- 1) 維隆慶五年：《逸集》에는 없다.
- 2) 辛未：《草堂集》‘歲次辛酉’
- 3) 三月：《逸集》·《草堂集》에는 뒤에 ‘壬戌朔’이 있다.
- 4) 十二日：《草堂集》에는 뒤에 ‘癸酉’가 있다.
- 5) 折衝將軍行虎賁衛上護軍：《逸集》‘癸酉’
- 6) 遣：《逸集》‘謹遣’
- 7) 箴：《逸集》·《草堂集》‘許箴’
- 8) 賦：《草堂集》‘威’
- 9) 遭：《逸集》‘造’
- 10) 邱：《逸集》‘丘’

明充實，壯年無讓。謂到耄期¹¹⁾，更進以時，誰料天心，遽不憖遺？路隔千里，奔哭何能？未瀉一慟，怒焉¹²⁾如蒸。隻鷄壺酒，聊陳微悃，不亡者存，俯欽¹³⁾菲薄。¹⁴⁾

11) 期：《逸集》‘斯’

12) 焉：《逸集》‘言’

13) 欽：《逸集》·《草堂集》‘歆’

14) 俯欽菲薄：《逸集》·《草堂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37-祭文039

祭文039

李湛

隆慶五年，歲次²⁾辛未三月壬戌朔十二日癸酉，折衝將軍行護軍李湛，嘽³⁾哀致誠，謹使人遠奉香燭時羞之奠，敬祭于近故陶山⁴⁾先生眞城 李公靈几之前。南望拜哭，起而言曰：天高而明，地厚而平，五氣序行，萬彙順成。凝眞結精，挺出聰明，眷茲大東，先生⁵⁾篤生。懿德⁶⁾茂行，外廓中宏，肫肫其器，曄曄其英。冰壺之潔，秋月之清，蓋世文章，卓冠西京。歷覽萬古，駕風鞭霆，探討六經，森羅日星。悅我芻豢，浮雲利名，身世兩忘，惟道之享。窮深極微，義熟仁⁷⁾精，玩索天機，汎⁸⁾濫地

► 李湛：1510~1574. 字는 仲久, 號는 靜存齋.

2) 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3) 嘽：《逸集》‘銜’

4) 陶山：《逸集》‘退溪’

5) 先生：《逸集》‘我公’

6) 德：《逸集》에는 없다.

7) 義熟仁：《逸集》‘仁熟義’

經．日月之光，鬼神之情，山川之秀，草木之榮，人倫之正，王道之貞，一以貫之，萬理露呈．縷析分殊，馬騎牛耕，混融體用，月色風聲．希賢希聖，自明而誠，清通和樂，物莫能嬰．迨其季年，齒尊德馨，濟濟樞衣，開發聾⁹⁾盲．嗟惟此道，絕塞晦暝¹⁰⁾，先生奮起，心得躬行．進不克施，哀我民眚，退未及傳，後生零丁．殉身□歿，天道¹¹⁾胡寧？吾黨疇依，有隕如傾．嗚乎哀哉！慟矣慟矣！靖廟好善，登崇俊良，先生之忠，王庭于揚．而我無似，志迷學荒，獲陪¹²⁾後塵，接袂隨行．並直西省，共讀湖堂，公不我遺，其¹³⁾色之康．晦¹⁴⁾我以義，示我以方，諄諄切切，德音不忘．融融衍衍¹⁵⁾，樂且¹⁶⁾無央，何期運否，遭時不祥？我落南¹⁷⁾荒，炎海之傍，公分郡符，枳棘之凰．音書阻絕，兩地相望，

8) 汎：《逸集》‘泛’

9) 聾：《逸集》‘聾’

10) 暝：《逸集》‘明’

11) 道：《逸集》에는 [추가 ‘道’上恐有一字.]가 있다.

12) 陪：《逸集》‘拜’

13) 其：《逸集》‘而’

14) 晦：《逸集》‘誨’

15) 衍衍：《逸集》‘愆愆’

16) 且：《逸集》‘此’

17) 南：《逸集》‘我’

我乃北旋，于漢之陽。公亦歸來，于梓于桑，我時家食，以糟以糠。公應弓旌，旅宿西庄，相逢握手，雙鬢蒼蒼。歡笑平生，吐出心腸，虛堂晝靜，北牖風涼。蕭然四壁，圖書一床，秋巒論命，其說壽張。我又談玄，其理杳茫，先生一辯，如客還鄉。先生所道，倫理經常¹⁸⁾，先生所學，內聖外王。¹⁹⁾ 相期從事，庶望門牆，浩然東歸，衡泌洋洋。陶山蒼蒼，退水泱泱，²⁰⁾ 茅棟新成，有臺有塘。或採于山，或漁于梁，玩樂時習，逍遙徜徉。驛使傳信，梅蘂芬芳，翩翩割錄，解句分章。王降召幣，山林之光，屈指²¹⁾重起，鼎湖雲黃。²²⁾ 聖明嗣服，倚以棟梁，「六策」·《十圖》，聖謨張皇。抗章乞退，意懇語詳，王曰俞²³⁾哉，聖寵彌彰。朝庭失倚，士林俛俛，僉曰先生，既仁且剛。言旋舊廬，壽考且臧，云何不淑，奄忽而亡？嗚乎哀²⁴⁾哉！慟矣慟矣！忠孝出處，先生大節，道學尊性²⁵⁾，先生丕烈。江上分携，向我有說，千里送人，

18) 經常：《逸集》‘常經’

19) 王：《逸集》‘賢’

20) 泱泱：《逸集》‘泱泱’

21) 指：《逸集》‘志’

22) 黃：《逸集》‘荒’

23) 俞：《逸集》‘諭’

24) 哀：《逸集》‘痛’

25) 尊性：《逸集》‘存盛’

終成一別。那知此言，是爲永訣？繼以寓吟，酬我八絕。那知此篇²⁶⁾，是爲絕筆？歛不憑棺，窆不臨穴。生死虧恩，只益哽咽，緘辭遠奠，淚盡繼血。明靈不昧，微誠可徹，嗚乎²⁷⁾哀哉！痛矣痛矣！

26) 篇：《逸集》‘編’

27) 乎：《逸集》‘呼’

輓祭錄138-祭文040

祭文040

鄭崑壽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三日甲戌，門人進士²⁾鄭崑壽，竊聞退溪先生大葬有期，而病不能前，謹遣酒果奠于靈筵。南望拜哭而言曰：嗚呼痛哉！先生而至於斯邪³⁾？是何人事之不可恃，而天意之不可知邪⁴⁾？斯文何托，後學疇依？茫茫天地，俛俛無歸。然則曷爲不使我失聲而永號⁵⁾，呼天而慟⁶⁾哭邪⁷⁾？嗚呼慟⁸⁾哉！先生之生，間氣鍾粹，英明灑落，洵美且異。不由師承，蚤悟正學，邇洵從之，道在濂·洛。從事於

▶ 鄭崑壽：1538~1602. 字는 汝仁, 號는 栢谷·慶陰·朝隱.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進士：《逸集》에는 없다.

3) 邪：《逸集》‘耶’

4) 邪：《逸集》‘耶’

5) 號：《逸集》‘呼’

6) 慟：《逸集》‘痛’

7) 邪：《逸集》‘耶’

8) 慟：《逸集》‘痛’

斯，專精致力，晚好朱書，神會心得。窮深極微，日造高明，表裏清通，渾然而成。冰壺秋月，玉潤金精，顥顥昂昂，令聞令望。出而仕矣，曰鳳其祥，憂則違之，匪龜而神。義以進退，時哉屈伸，德與年隆，道積于身。全晚節而究大業，視諸古而鮮倫。學問之正，道德之懿，實我東之一人。奈何昊天之不憖，奄一夕而長終？泰山其頽，梁木其壞，已矣！吾道之窮也。嗚乎慟⁹⁾哉！竊念小子之親炙，寔在乙丑之仲春。偕同志而請益，挹庭草之芳塵。謂可教之無類，導蹇步於康莊，示余以操心檢身之要，教余以矯輕警惰之方。雖愧朽質之難¹⁰⁾雕，竊仰義重而恩深。幸惠音之屬耳，遡南風而開襟，逮召命之再承，喜德宇之重窺。顧私冗之掣多¹¹⁾，侍閒居之幾時¹²⁾？哀小子罪逆之不追，慘酷罰之荐罹。所遭者變而又變，情禮從而相防。頻往復而稽疑，荷參詳之允當。屬去¹³⁾歲之仲冬，發賤俘於星鄉，奉候起居之寒暄，兼¹⁴⁾質祥禪之節文，泊報緘之旋至，辱手翰之慙

9) 慟：《逸集》‘痛’

10) 難：《逸集》‘莫’

11) 掣多：《逸集》‘多掣’

12) 時：《逸集》‘日’

13) 去：《逸集》‘玄’

14) 兼：《逸集》‘謙’

懃。始言困倦於應接，繼以痰疾之峻發，又言伏枕而度日，且苦憂患之煎迫。至於別紙之所稟，亦皆一一以諄復，仰歎盛意之委曲，私恠字畫之異昔。驚惶悶慮，竊不自勝其區區，而豈謂此筆之終爲永訣，而不復得覩其儀刑也邪¹⁵⁾？嗚乎慟¹⁶⁾哉！惟小子一心以嚮往，每祝壽考而康寧，早晚願從於山中，陪杖屨而承警效，庶振¹⁷⁾發乎昏憤，畢當年之餘誨，誰料人事之難期，天不助¹⁸⁾於時運，當我祥後之七日，奄承駟訃之來聞？神魂喪其如隕，肝膽爲之摧裂，憫鮮惑之誰因，悵卒業之無日。痛余哀之莫泄，但涕泗之沾臆，嗚乎慟¹⁹⁾哉！日月有制，佳城已卜。屬引伊邇，痛傷彌切，義當匍匐奔走，展深慟於臨穴。其奈瘳疾之餘生，紛疾病之交感，行李將戒而復已，死猶有其遺憾。敬緘辭於千里，聊以寓夫一酌，不亡者存，冀歆鑑於衷赤。²⁰⁾

15) 邪：《逸集》‘耶’

16) 慟：《逸集》‘痛’

17) 振：《逸集》‘盡’

18) 助：《逸集》‘造’

19) 慟：《逸集》‘痛’

20) 冀歆鑑於衷赤：《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39-祭文041

祭文041

同日 安東府儒生 生員 康倫¹⁾等

嗚乎!²⁾ 先生而至於斯耶? 斯文將喪, 吾道其衰. 山頽安仰, 樑壞疇依? 顧惟我邦, 昔爲裔夷, 吾道之東, 實惟殷師. 厥後不傳, 聖學榛蕪, 寥寥千載, 孰爲眞儒? 天地儲精, 山川孕靈³⁾, 先生是稟, 純粹清明. 不齊不楚, 匪前匪後, 王國是生, 天其我厚. 少而志學, 聖賢爲期, 寒鄉晚出, 能自得師. 超然獨詣, 孰禦其勇? 時分是惜, 夙夜矜竦. 讀書窮理, 進德修業, 參乎三省, 回也四勿. 體認切至, 敢渝毫忽? 伊·洛深源, 關·閩正派. 浚導⁴⁾䟽鑿, 功不少⁵⁾懈, 明·誠兩進⁶⁾, 敬·義夾持.

▶ 康倫

1) 倫 : 今按: ‘崙’의 잘못된 듯하다. 康崙(1517~未詳)은 康希哲의 아들이며 李滉의 문인이다.

2) 嗚乎 : 《逸集》에는 앞에 ‘辛未三月壬戌朔十三日甲戌, 安東生員康崙等, 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退溪李先生之靈.’이 있다.

3) 靈 : 《逸集》 ‘秀’

4) 導 : 《逸集》 ‘道’

5) 少 : 《逸集》 ‘小’

表裏交正，動靜不違，道積厥躬，此外何慕？惟利所在，衆人奔走，先生掉頭，巖棲數椽。爵祿之榮，群蟻慕羶，先生背馳，林壑窈窕。事君之道，豈必在朝？義明七退⁷⁾，士爭樞衣。開導啓迪，惟日孜孜，飲河充量，孰不欣悅？領袖士林，元氣一國，以此⁸⁾報君，厥施斯博。仁者必壽，天道之常，孰謂今朝，遽爾云亡？孔壽減三，天何茫茫？崙⁹⁾等，質愚才下，難雕朽木。幸忝隣鄉，欽仰幾日，親炙函丈，固已誠服。或未承顏，亦可興起，免爲禽獸，伊誰之賜？非¹⁰⁾奠愧遲，至亶一酌，英靈不昧，庶昭肝肺。【鄉儒李容等五十九人。】¹¹⁾

6) 進：《逸集》‘盡’

7) 七退：《逸集》에는 [부전지 ‘忠見《十圖》，風聲所樹，世道可扶，標準所立’，當‘七退’下.]가 있다.

8) 此：《逸集》에는 없다.

9) 崙：《逸集》에는 없다.

10) 非：《逸集》에는 뒤에 ‘薄’가 있다.

11) 鄉儒李容等五十九人：《逸集》에는 없다.

輓祭錄140-祭文042

祭文042

金復一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²⁾十三日甲戌，權知成均館學諭金復一，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退溪先生之靈。嗚呼！師友淵源，惟洛與伊，寥寥千載，繼者伊誰？先生挺生，吾道乃東，神會洙·泗，心契晦翁。靜坐一室，尚友千古，敬以持己，動遵³⁾規矩。誠以接人，和氣薰襲。沉潛聖學，志道彌篤。痛刮浮華，心就本實，⁴⁾ 眞積力久，學造高明。日用云爲，恭安坦平，出非循⁵⁾人，處豈忘世？辭受進退，惟義與禮，溪流潑潑，陶山崇崇。松窓竹牖，霽月光風，隨材⁶⁾成就，憤

▶ 金復一：1541~1591. 字는 季純, 號는 南嶽.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朔：《逸集》에는 뒤에 ‘越’이 있다.

3) 遵：《逸集》 ‘導’

4) 實：《逸集》 ‘室’[추가 ‘室’, 一本作‘實’.]

5) 循：《逸集》 ‘徇’

6) 材：《逸集》 ‘才’

悱啓發，教成於家，化行於國。菽粟斯文，梯航絕學，
儒林領袖，邦國著龜。存亡所關，時運盛衰，楹夢忽亟，
斯道何托？嗚乎⁷⁾先生！一⁸⁾至此極。小子昏愚，學昧
趨向。山頽梁壞，安仰安杖？夙志已違，雖悔⁹⁾曷追？
淒涼寒月，獨照武夷，迸淚一奠，無以寄情。英靈昭格，
庶鑑微誠。¹⁰⁾

7) 乎：《逸集》‘呼’

8) 一：《逸集》‘而’

9) 悔：《逸集》‘悟’

10) 庶鑑微誠：《逸集》에는 뒤에 ‘嗚呼痛哉’가 있다.

輓祭錄141-祭文043

祭文043

柳雲龍

維隆慶五年，歲次辛未三月朔壬戌十五日丙子¹⁾，門人柳雲龍，謹以清酌菜果，敢昭告于先師退溪先生之靈。²⁾惟靈，出塵之標，高世之識，早透利關，多少休歇。超然迥拔，外累何嬰？商 綺雖邈，願與同盟。誠深祿養，志³⁾切彩榮，勉屈雅⁴⁾尚，俯試⁵⁾常途。⁶⁾東華幾歲，計違都俞？悠悠遲暮，惕然警省。盍反初服，中心耿耿，浩然歸來，寂寞之境。陶丘峨峨，退水活活，闢開榛⁷⁾荒，可以棲息。三椽風雨，一草乾坤，曲肱簞瓢，樂其

► 柳雲龍：1539~1601. 字는 應見, 號는 謙菴.

1) 維隆慶……丙子：《謙菴集》‘維年月日’

2) 維隆慶……之靈：《逸集》에는 없다.

3) 志：《逸集》에는 없다.

4) 雅：《逸集》‘伸’[추가 ‘伸’, 一本作‘雅’.]

5) 試：《謙菴集》‘就’

6) 試常途：《逸集》‘常道’[추가 ‘俯’下, 一本有‘試’字.]

7) 榛：《逸集》‘塵’

中存。曰惟聖道，千載無傳，不有嗣⁸⁾承，孰援滔天？我振其綱，我接其緒，毅然擔荷，確⁹⁾然自處。進修之方，作聖之序，惟我考亭，重指諸掌。求之則是，舍此焉仗？聖模¹⁰⁾洋洋，左圖右書。仰思俯讀，又投遊虛，益見端的，優入平實。循序而進，不差毫末，涵養之功，造次顛沛。肅然對越，常目不昧，焚香危坐，澹慮凝¹¹⁾神。提掇惺惺，惟日新新，照¹²⁾管動靜，表裏洞澈。知行並進¹³⁾，如鳥斯翼，無微不窮，無顯不格。近取諸身，遠取諸物。旁通曲暢，燭照龜卜。明彼曉此，如辨黑白，不得不措，夜以繼日。真是真非，卒歸于一，知之則行，行之則篤。沛然由之，若決河瀆，卑以應物，儉以處約。虛以服義，剛以制欲，見惡如臭¹⁴⁾，聞善易色。人倫之懿，日用之常，無細¹⁵⁾無大，咸理之當。勉勉孜孜¹⁶⁾，如恐不及，積銖畜守，累歲¹⁷⁾計月。及其養深，煥然有

8) 嗣：《逸集》‘師’

9) 確：《逸集》‘握’

10) 模：《逸集》·《謙菴集》‘謨’

11) 凝：《逸集》‘擬’

12) 照：《逸集》‘昭’

13) 並進：《逸集》‘兼盡’

14) 臭：《逸集》‘具’

15) 細：《逸集》‘仞’

16) 孜孜：《謙菴集》‘孳孳’

成，施於四體，著於容聲。謙恭¹⁸⁾敦厚，冲淡簡¹⁹⁾潔，豈弟平易，慈詳惻怛。雍容和順，閒靜無違，清暴秋陽，妍²⁰⁾照春輝。言如理絲，玉振金鳴，形²¹⁾如瑋璧，海蘊何²²⁾盈？拱而徐趨，鶴舞鸞翔，休²³⁾而燕息，山峙梅香。即之也溫，望之也莊，有而若無，愚者效得。崇而不高，見者忘爵。不問賢愚，有問輒發。竭²⁴⁾其兩端，提耳傾腸，狂夫驕士，僇戾狘²⁵⁾猖。一望門牆，已自遜抑，各充其心，鄙吝冰釋。不怒而威²⁶⁾，爲惡者勅，不言而信，爲善者法。兒童誦名，走卒知恪。國家元氣，斯文喬²⁷⁾岳。道尊德立，義精仁熟，上接洙·泗，下繼濂·洛。猶以任重，不遑寢食。加之數年，造詣尤極。天胡不憖，降禍孔酷？不傳之統，已續還絕。復有何人，能紹此學？天實喪之，吾道之窮。攀號莫追，五內如

17) 歲：《逸集》‘世’

18) 恭：《逸集》‘恐’

19) 簡：《逸集》‘澗’

20) 妍：《逸集》‘研’

21) 形：《逸集》‘刑’

22) 蘊何：《逸集》‘蘊河’，《謙菴集》‘蘊河’

23) 休：《逸集》‘體’

24) 竭：《逸集》에는 앞에 ‘有’가 있다.

25) 狘：《逸集》·《謙菴集》‘披’

26) 威：《逸集》‘成’

27) 喬：《逸集》‘爲’

烘。嗚乎哀哉！昔我先王，晚年側席，寤寐宿休²⁸⁾，綸音相屬。一入脩門，舜殿奄空，逮至今日，恩命益隆。僉勉更起，庶乎可行，或圖或疏，瀝血殫誠。疾病連仍，旅進²⁹⁾何益？徒崇爵祿，反深³⁰⁾懼忤。寧還舊棲，畢義耕鑿。三宿而出，委³¹⁾遲而歸。天不欲平，世復何希？嗚乎哀哉！小子無似，猥登龍門，得侍左右，接聞緒³²⁾論。含堊捨³³⁾過，惟³⁴⁾務提撕，免我坎險，示³⁵⁾我坦夷。十年于今，不進日退，空負厚恩，難堪愧悔。去歲之冬，暫立庭雪³⁶⁾，賜語欸欸³⁷⁾，鐫誨猶昔。末後賜詩，有鏡不磨，承教瞿瞿，之死靡他，復期負笈。惟今之春，離違數日，兩豎遽因，奔趨省問。已不及瘳。撫膺奈何？哀淚空流。自今以後，何所憑依？惟賴神明，誓無³⁸⁾大非。將此哀詞³⁹⁾，薦此微⁴⁰⁾幅，不泯⁴¹⁾

28) 寤寐宿休：《逸集》‘帝悟昧宿儒’，《謙菴集》‘寤寐宿儒’

29) 旅進：《謙菴集》‘進亦’

30) 深：《逸集》에는 없다.

31) 委：《逸集》·《謙菴集》‘逌’

32) 緒：《逸集》‘餘’

33) 捨：《謙菴集》‘舍’

34) 惟：《逸集》‘猶’

35) 示：《逸集》‘視’

36) 雪：《逸集》에는 없다.

37) 欸欸：《謙菴集》‘款款’

38) 無：《逸集》에는 없다.

者存，其祐⁴²⁾菲薄⁴³⁾

39) 詞：《謙菴集》‘辭’

40) 微：《逸集》‘悲’

41) 泯：《謙菴集》‘昧’

42) 祐：《謙菴集》‘右’

43) 其祐菲薄：《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 門人 柳雲龍’이 있다.

輓祭錄142-祭文044

祭文044

同日 門人 金隆

先生¹⁾，氣稟其清，百夫之特，溫其如玉，眞純其質。孝悌忠信，出天²⁾由己，學字³⁾髫年，已覺性理。從事本領，靡他其適，興起斯文，早許己⁴⁾職。先民是程，大猶⁵⁾是經，以天行健，強不息誠。修天爵盡⁶⁾，人爵從之，朝野顙望，咸擬鳳儀。堯·舜君民，此可期兮，如何皇天，未欲平治？遭時不淑，疑謗屢加，公孫碩膚，德音不瑕。爲國一念，懸懸不弛，時政有失，戚然不喜。國勢不振，感⁷⁾慨不已，雖然守義⁸⁾，辭受⁹⁾必別。謹難

▶ 金隆：1549~1594. 字는 道盛, 號는 勿巖.

1) 先生：《逸集》에는 앞에 ‘辛未三月壬戌朔十五日丙子，門人金隆，謹以清酌庶羞之奠敬祭于退溪先生之靈.’이 있고, 《勿巖集》에는 앞에 ‘恭惟’가 있다.

2) 忠信出天：《逸集》·《勿巖集》‘出天忠信’

3) 字：《逸集》‘自’

4) 己：《勿巖集》‘己’

5) 猶：《逸集》·《勿巖集》‘猷’

6) 修天爵盡：《勿巖集》에는 없다.

7) 感：《逸集》‘憾’

進禮，厲¹⁰⁾易退節，一官之拜，力辭抗疏。一語不合，奉身亟去，渫井不食，懷玉未試。勤¹¹⁾勤懇懇，章奏而耳。¹²⁾ 卷歸舊隱，甘老巖壑。旌招雖頻，凝然不作。頽然一室¹³⁾，野老田夫¹⁴⁾。¹⁵⁾ 泉石膏盲，義理參芻。¹⁶⁾ 一部《心經》，終身之樂¹⁷⁾。居敬窮理，不偏功力，知行兩進，終期詣¹⁸⁾極。工專裏面，外慕寧奪？顏瓢屢空，真樂自如。平生受用，一編朱書。動靜語默，一貫其旨。畢竟所得，前後一揆。¹⁹⁾ 委兒²⁰⁾影從，戶屢盈止。提耳警覺，生²¹⁾立基址。隨其才²²⁾質，雨露恩霈²³⁾。小底成小，大底成大。²⁴⁾ 俾尊德性，且道問學。

8) 朝野……守義：《勿巖集》에는 없다.

9) 受：《逸集》‘守’

10) 厲：《勿巖集》‘礪’

11) 勤：《逸集》‘謹’

12) 一官……而耳：《勿巖集》에는 없다.

13) 室：《逸集》‘堂’

14) 夫：《逸集》에는 없다.

15) 旌招……田夫：《勿巖集》에는 없다.

16) 泉石……參芻：《勿巖集》‘參芻義理，膏盲泉石’

17) 一部……之樂：《勿巖集》에는 없다.

18) 期詣：《勿巖集》‘其詣’

19) 工專……一揆：《勿巖集》에는 없다.

20) 委兒：《勿巖集》‘多士’

21) 生：《勿巖集》‘主’

22) 才：《勿巖集》‘材’

23) 霈：《勿巖集》‘澤’

常戒口耳，每慮空寂。俾我後人，如夜復日。我東群賢，雖曰繼出，集厥大成，先生其獨。中原道脈，先生是續²⁵⁾，東國²⁶⁾孔孟，今日朱·程。何幸叔²⁷⁾季，庶開聾²⁸⁾盲，無何一夕，泰山忽頽²⁹⁾？少³⁰⁾三孔壽，強半舜年。仁而未壽，彼蒼者天。道學櫟摧，大廈柱折。著龜逝矣，嫌³¹⁾疑誰決？日月晦矣，昏蒙誰開？民之無祿，邦國之灾。³²⁾吁嗟聖學，其不復明，興於先生，絕於先生。已矣龍亡，鱗鱗其舞，已矣虎逝，狐狸其聚。³³⁾不肖無狀，幸生一世，相去不遠，朝發夕戾。摳衣有志，未遂幾歲，十年浪走，貪戀名利。昨幸愧悟³⁴⁾，擇吉具刺。瞻³⁵⁾拜臯皮³⁶⁾，欣襲春風。從遊屢³⁷⁾月³⁸⁾，幾³⁹⁾

24) 小底……成大：《勿巖集》에는 없다.

25) 中原……是續：《勿巖集》에는 없다.

26) 國：《勿巖集》‘方’

27) 叔：《逸集》‘淑’

28) 聾：《逸集》‘聾’

29) 頽：《逸集》·《勿巖集》‘傾’

30) 小：《逸集》‘少’

31) 嫌：《逸集》‘謙’

32) 道學……之灾：《勿巖集》에는 없다.

33) 已矣……其聚：《勿巖集》에는 없다.

34) 昨幸愧悟：《勿巖集》‘幸而回頭’

35) 瞻：《逸集》‘瞻’

36) 皮：《勿巖集》‘比’

37) 屢：《逸集》·《勿巖集》‘累’

38) 月：《勿巖集》‘年’

煩發蒙。下愚不移，諄⁴⁰⁾復徒勤。自擬萬⁴¹⁾年，變化陶薰，那意昊天，未相斯文⁴²⁾，不吊至此，罔極至此？⁴³⁾ 孑孑無依，哀我小子，思有所塞，孰能斷⁴⁴⁾示？去歲來斯，丁寧承誨，今歲來斯，未聞警效。⁴⁵⁾ 言念當日，潛然寒⁴⁶⁾淚。從前示諭，雖未遽至，至于今日，其敢諉兮？終恐辜負，敢不勉言。荒辭⁴⁷⁾薄奠，寓哀瀝血，上爲公慟，下爲私哭。⁴⁸⁾

39) 幾：《逸集》‘豈’

40) 諄：《勿巖集》‘反’

41) 萬：《勿巖集》‘晚’

42) 相斯文：《逸集》‘喪斯門’[추가 ‘喪’·‘門’，一本作‘相’·‘文’.]

43) 不吊……至此：《勿巖集》에는 없다.

44) 斷：《逸集》‘繼’，<《勿巖集》‘開’

45) 效：《逸集》‘咳’

46) 寒：《勿巖集》‘有’

47) 荒辭：《逸集》·《勿巖集》‘蕪詞’

48) 私哭：《逸集》에는 뒤에 ‘嗚呼’가 있고, 《勿巖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43-祭文045

祭文045

李完

姪進士李完，維先生，稟質純粹，玩心高明，外峻清節，內植純誠。少小積學，晚益慥慥，敬·義偕立，明·誠兩造。道體之微，日用之細，隨處洞然，目擊心契。蓋其降生，前哲已遠，不由師承，得之經傳。鄒·魯之言，濂圖洛訓，寢嚙與俱，融會貫穿。於維考亭，歲千地萬，心法之洵，符合板印。全書載道，海涵地負，鉤深撫要，芻豢我口。資之既厚，體用克全，發揮道妙，啓後光前。小子雖汙，敢容阿私？人亦有言，嫡傳在茲。宮鍾之響，徹于上天，鶴書鼎至，禮遇桀勤。維其素節，進難退易。以言事君，古人之義。「六條」之疏，《十圖》之進，治謨學訣，無蘊不闡。王用寵嘉，契合魚水，惟其許退，亦出禮遇。収一國望，浩然歸來，蕭蕭蝸舍，于洛之隈。有水沄沄，有山峨峨。優遊天放，或詠或歌。

► 李完：1512~1596. 字는 子固, 號는 樂山·企庵.

遊目引興，開襟成趣。山林之樂，盡爲己有。體安神清，沉痾輕消。從容閒雅，聖賢爲徒。有來自遠，問質莘莘。推誠誨諭，叩竭兩端。小子無狀，亦荷諄諄，謂獲帡幪，期以百年。那知一夕，奄啓手足？泰山之頽，梁木之折。舉國興哀，況我子姪？叫天叩地，無所訴臆。幽明茫茫，長痛欲死。嗚乎叔父，吾道已矣。

輓祭錄144-祭文046

祭文046

吳守盈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六日丁丑，姪進士吳守盈，謹以清酌²⁾粢麴之奠，敬祭于退陶叔主先生之靈。³⁾惟靈，氣全⁴⁾光岳，學究天人，冰壺秋月，灑落精神。聲身律度，孝友天性。待人以恕，持己以敬。鍾·王翰墨，李·杜騷壇，不屑科第，無悶飢寒。⁵⁾聖賢事業，是度是程，早歲發憤，篤志力行。先天羲《易》，經世邵書，覃精⁶⁾研思，愛惜居諸。寢食俱忘，因以嬰疾。婆娑田園，放情丘⁷⁾壑。幾年優遊，善養天真？三

► 吳守盈：1521~1606. 字는 謙仲, 號는 春塘·桃巖.

-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 2) 酌：《逸集》‘果’
- 3) 維隆慶……之靈：《春塘集》에는 없다.
- 4) 全：《逸集》·《春塘集》‘專’
- 5) 鍾王……飢寒：《春塘集》에는 없다.
- 6) 精：《春塘集》‘情’
- 7) 丘：《春塘集》‘邱’

十而立，親老家貧。策命觀國，始志于仕，然素心非，反顧自耻。分符兩邑，嶺外東西。歛惠專施，蘇我群黎。猗歟伯氏，間世英傑，庭蘭玉樹，驚世駭俗。如篴如璫，儷美聯芳，立朝蹇蹇，振肅鵷行。迨至龍·蛇，二聖繼陟，凶⁸⁾邪煽亂，士林殲滅。伯氏見背，亦被污黷⁹⁾，太行世路，九疑人腹。黽勉從事，求退尤切，白駒難繫，竟返空谷。霞明洞口，有夢先歸，以藏以修，樂以¹⁰⁾棲遲。睠彼陶山，洛¹¹⁾水之涯，幽貞所廬，允協于懷。觀瀾有軒，時習有齋。巖棲谷汲，考盤在阿¹²⁾。¹³⁾一區幽居，九重興嗟，圖畫以進，眷顧益加。士子摳衣，遠近奔波。嘉遯屢¹⁴⁾年，散逸泉林。¹⁵⁾嗟我海東，賢聖所臨，千載言湮¹⁶⁾，道學誰識？蟬噪蛙鳴¹⁷⁾，斯文無托，先生晚出，慨然志學。欲回狂瀾，遠泝¹⁸⁾伊·洛，茫茫

8) 凶：《逸集》‘云’

9) 幾年……污黷：《春塘集》에는 없다.

10) 以：《春塘集》‘而’

11) 洛：《逸集》·《春塘集》‘汾’

12) 阿：《逸集》‘墜’

13) 巖棲……在阿：《春塘集》에는 없다.

14) 屢：《逸集》‘季’

15) 嘉遯……泉林：《春塘集》에는 없다.

16) 湮：《逸集》‘臨’

17) 賢聖……蛙鳴：《春塘集》에는 없다.

18) 泝：《逸集》‘訴’

隆緒，尋得其傳。萬軸牙籤，一室蕭然，嘐嘐尚友，硤硤窮年。周情孔思，曾省顏勿，從容禮法，涵養道德。浩吟風月，俯仰天淵。¹⁹⁾道既入室，目牛無全²⁰⁾。《十圖》聖學，一篇《傳疑》，立言著書，啓蘊闡微。陳疏納約，伊戒傅沃，憂國如家，進退如一。儒林山斗，國家柱石，天假其年，永世無期。何意一疾，遽爾長辭？嗚乎哀哉！²¹⁾先生在世，吾道之寄，先生下世，吾道之否。會散消息，誰實尸之？嗚乎先生！而至於斯。盈也小生，卅角登門，諄諄誘掖，發其蔽昏。先生遘疾，我方南轅，在堂偏親，八十其齡。相離屢²²⁾月，心切趨庭，亡父之忌，又在旬四²³⁾，于時我行，亦不得已。踵門告辭，使寂諭意，萬里南天，好歸好來。出宿于縣，行邁遲徊，昏而佯候，明發乃回。謂證無加，勢漸差歇，恃天有監，冀²⁴⁾至勿藥。八日之夕，我至苞山，假寐逆旅，悅²⁵⁾惚承顏，閭閻笑語，宛若平生。那知是夜，永訣幽

19) 淵：《逸集》‘然’

20) 浩吟……無全：《春塘集》에는 없다.

21) 天假……哀哉：《春塘集》에는 없다.

22) 屢：《逸集》‘累’

23) 在堂……旬四：《春塘集》에는 없다.

24) 冀：《春塘集》‘期’

25) 悅：《春塘集》‘恍’

明？朝野無祿，昊天不佑。迥隔天涯，奔²⁶⁾走²⁷⁾亦後。病母在床，哽咽²⁸⁾失聲。相對哭泣，涕淚縱橫。嗚乎哀哉！福善禍淫，天道之經，今何反施，乃至乖戾？梁頽數月，冢婦繼逝，諸孤輿櫬，權厝宅邊。兩殯相望，血泣號天，云何漠然，竟無聞焉？嗟我先生，而至此極。卜其真宅，于彼東麓，恩賻特²⁹⁾施，典禮亦足。方上下里，凡百具備。遺教叮嚀，再至封事，天不許允，靈實未寧。³⁰⁾今我來奠，冀效³¹⁾微誠。伏哭柩前，有淚如傾。烟沉吟石，水繞花巖。儀刑³²⁾永隔，影響難尋。贅以哀辭，展盡心曲，精靈兮歸來，庶歆兮菲薄。³³⁾

26) 奔：《逸集》‘赴’

27) 奔走：《春塘集》‘聞訃’

28) 哽咽：《春塘集》‘相對’

29) 特：《逸集》‘持’

30) 相對……未寧：《春塘集》에는 없다.

31) 效：《春塘集》‘歆’

32) 刑：《春塘集》‘形’

33) 菲薄：《逸集》에는 뒤에 ‘嗚呼’가 있고, 《春塘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45-祭文047

祭文047

鄭惟一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八日己卯，門人孤哀子鄭惟一，謹以清酌之奠，敬祭于退溪先生之靈。²⁾嗚呼！吾³⁾東方自箕子之後，學絕道喪，吾道之所寄，不越乎言語文字之間，以至于今⁴⁾，泯泯如也。先生生於數千載之下，不由師承，超然獨得。其學之博也，察古⁵⁾今之變，窮天地之理，精粗畢⁶⁾備，巨細不遺。其反之約也，以身體之，以心驗之，實踐力行，固執深造。其道之大⁷⁾也，俗學之陋，不累于心，異端之說，不入

▶ 鄭惟一：1533~1576. 字는 子中, 號는 文峯.

-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 2) 維隆慶……之靈：《文峯集》에는 없다.
- 3) 吾：《逸集》에는 없다.
- 4) 今：《逸集》에는 없다.
- 5) 古：《逸集》 ‘故’
- 6) 畢：《逸集》 ‘必’
- 7) 大：《文峯集》에는 [소주 一字缺.]이 있다.

于耳。其行之正也⁸⁾，規圓矩方，繩直準平，表裏如一，終始不貳。不急於近效，不安於小成，任重道遠，聖域爲期。所志不其大乎？望之如泰山，即之如陽春，和順積中，榮⁹⁾華發外，所養不其厚乎？義理公私，析之於秋毫，禍福得喪，付之於度外，其信之不亦篤乎？一去一就，唯義與比，或遲或速，從心所安，其出處不亦正乎？主斯文之盟¹⁰⁾，壽吾道之傳，非先生而¹¹⁾其誰¹²⁾？而天不憖遺，僅¹³⁾得中壽，則天命固難諶也。先生之道，雖不大行於一時，而先生之說，亦可垂示於萬世。行於一時者，有限而難久，垂於萬世者，無窮而愈遠。則使先生，安居林下，卒究大業，以明斯道，以惠後學，是亦殆天意也邪¹⁴⁾？惟一樞衣函丈，二十年于茲，而魯¹⁵⁾莽滅裂，大辱師門¹⁶⁾之教，終爲小人之歸。又方斬焉¹⁷⁾，在衰服之中。先生之疾，既不聞啓¹⁸⁾足之戒，

8) 也：《逸集》에는 없다.

9) 榮：《逸集》‘英’

10) 盟：《逸集》‘盥’

11) 而：《文峯集》에는 없다.

12) 誰：《逸集》‘壽’

13) 僅：《逸集》‘謹’

14) 邪：《逸集》‘耶’

15) 魯：《文峯集》‘鹵’

16) 師門：《逸集》‘斯文’

先生之沒¹⁹⁾，又不與²⁰⁾飯瑒²¹⁾之列，先生之葬，又將不得執紼而哭送，則其終負先生之罪，至此而益深矣。儀刑永隔，萬古長辭，天地茫茫，泣涕漣漣。²²⁾

17) 焉：《逸集》‘然’

18) 啓：《逸集》에는 앞에 ‘其’가 있다.

19) 沒：《文峯集》‘歿’

20) 與：《逸集》‘如’

21) 瑒：《逸集》·《文峯集》‘攄’

22) 泣涕漣漣：《逸集》·《文峯集》에는 뒤에 ‘嗚呼痛哉’가 있다.

輓祭錄146-祭文048

祭文048

朴民獻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七日戊寅，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朴民獻，敬備清酌²⁾庶羞之奠，使人托金別坐就礪，祭于退溪先生之靈，而告之曰：先生之學，的有所傳，雖欲贊揚，如管窺天。先生之道，既大以鬼，雖欲形³⁾容，若⁴⁾蠡測海。粵我何人，公傳道之。顧有微懇，先叙吾私。往在乙卯，寓在京師，欲還故山，未免遲疑。我時贊決，浩然言旋，去留既異，孰知其然？究厥本心，肯容落殊。我雖屢蹶，乃獨諒愚。今滯關東，皓首何爲？心焉內疚，顏厚忸怩。嗚乎哀哉！女容悅己，士死知己。心實相知，世

▶ 朴民獻：1516~1586. 字는 希正·頤正，號는 正菴·瑟偶齋·醫俗軒·槁軒.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清酌：《逸集》‘酒果’

3) 形：《逸集》‘刑’

4) 若：《逸集》‘如’

不一二．顧我蠢愚，謂得依歸⁵⁾，今既⁶⁾已矣，有淚難
晞．叨守封疆，不敢遽辭．末由趨哭，愧負我知.⁷⁾

5) 依歸：《逸集》‘歸依’

6) 既：《逸集》‘其’

7) 愧負我知：《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47-祭文049

祭文049

鄭琢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八日己卯，門人鄭琢，謹以酒果，敬告于退溪先生之靈。惟靈，溯派²⁾伊·洛，窮源洙·泗，道尊德崇³⁾，所立卓爾。三韓千載，吾道在是。緬惟平日，進退惟⁴⁾義。志與時違，云何吁⁵⁾矣？陶山峨峨，下有洛水。汙汙其流，萬古不止。宅幽勢遭⁶⁾，退溪之矣。于以棲遲，邱⁷⁾壑之美，滿架圖書，百年計活。風月無邊，庭草濃綠，謂享遐壽，永爲依歸。云胡一疾，與世長辭？日月已⁸⁾流，儀刑漸邈。⁹⁾小子

▶ 鄭琢：1526~1605. 字는 子精, 號는 藥圃·栢谷.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派：《藥圃集》‘波’

3) 崇：《逸集》‘盛’

4) 惟：《逸集》·《藥圃集》‘由’

5) 吁：《藥圃集》‘吁’

6) 遭：《逸集》·《藥圃集》‘阻’

7) 邱：《藥圃集》‘丘’

8) 已：《藥圃集》‘易’

摳衣，夙承親炙，恩同尼父，禮愧端木。聊奠菲薄，淚落如泉。不昧者存，庶紆格焉。¹⁰⁾

9) 漸邈：《逸集》‘永隔’

10) 庶紆格焉：《逸集》·《藥圃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48-祭文050

祭文050

金富弼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八日己卯，門人金富弼，謹訣祭于退陶 李先生之靈。人之所難辭者，莫甚於爵祿，爵祿不能淫先生之節。人之所難堪者，莫切於飢寒，飢寒不能移先生之樂。爵祿飢寒，皆不足以動其心，則何不進退之綽綽？百年事業，²⁾ 道德³⁾義理，青邱⁴⁾千載，一人而已⁵⁾。景星慶雲，孰不望止？泰山喬嶽，孰不仰止？一朝頽壞，天胡忍此？後塘與卜，敢望蔡氏？惟⁶⁾當即遠，斬板可期⁷⁾。會幾千人，非獨先

▶ 金富弼：1516~1577. 字는 彥遇, 號는 後彫堂.

-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 2) 維隆慶……事業：《後彫堂集》‘嗚呼，先生傳授心法’
- 3) 道德：《後彫堂集》‘時措’
- 4) 邱：《後彫堂集》‘丘’
- 5) 已：《逸集》에는 없고 [추가 ‘而’下一本有‘已’字.]가 있다.
- 6) 惟：《後彫堂集》‘今’
- 7) 期：《逸集》‘冀’

哲. 三爵之椒, 一榼之飴, 非敢焉⁸⁾奠, 薦此微誠.⁹⁾

8) 焉 : 《逸集》 ‘爲’

9) 斬板……微誠 : 《後彫堂集》 ‘儀刑永隔, 祗哭我庶, 私冀歆格’ ; 《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49-祭文051

祭文051

金富儀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八日己卯，門人金富儀，謹以清酌饗麵之具²⁾，敬祭于退陶先生之靈。泰山雅望，冰壺胸次。篤志力學，精微純粹。潛心濂·洛，服膺洙·泗。窮理反躬，默契考亭。博約兩至，東方大成，道尊德立，愈謙益勉。雅意林泉，泥塗軒冕，陋巷簞瓢，至樂陶陶。安樂蓬蓽，風雨蕭蕭。誘掖後學，循循有序。彌縫袞衣，聖賢法語。動靜之分，理氣之別。無極之釋，格致之說，研窮剖析，不差毫末。物我無間，曾不吝³⁾惜，事至隨應，虛明洞澈。⁴⁾精思實體，所造卓爾，人咸聳慕，士爭欽企。⁵⁾最後歸來，宸許其退，優

► 金富儀：1525~1582. 字는 愼仲, 號는 挹清亭.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饗麵之具：《逸集》‘之奠’

3) 吝：《逸集》‘忍’

4) 澈：《逸集》‘徹’

5) 欽企：《逸集》‘摠衣’

游丘園，謂至百載。一夕禍大，兩楹夢摧，斯文其喪，維⁶⁾岳其頽。小子何幸，生同魯·鄒，早自卅角，獲望芝字。堂奧未覩，猶切景仰，詞章陋習，久廢函丈。每蒙勸誨，策勵庸鄙，往來門下，但候動止。雖或有聞，出門墮落。悠悠泛泛，虛負教育。去歲易東，晚承訓迪，一部指南，諄諄反復。院深人靜，梧陰晝碧。將期改⁷⁾心，永陪杖屨。豈料今日，問業無路？生榮死哀，頃刻而非⁸⁾。孑孑一世，無所於歸。日月⁹⁾荏苒，已卜幽宅。溪山慘慘，天地漠漠。單杯敬奠，淚落如雨。薤露曲悲，一訣萬古。¹⁰⁾

6) 維：《逸集》‘惟’

7) 改：《逸集》‘段’

8) 非：《逸集》‘悲’

9) 日月：《逸集》‘月日’

10) 一訣萬古：《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50-祭文052

祭文052

琴應夾 等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九日庚辰，門人琴應夾·應堧等，謹以清酌粢麵，敬祭于先師退陶先生之靈。伏惟尊靈，稟天地精，鍾²⁾山河氣，資既純粹，志亦弘毅。篤學力行，唯務爲己，循序而進，勉勉³⁾不已。內外交養，動靜不違，眞積力久，闇然光輝。面晬背盎，玉溫金精。非由師得，自明而誠。行而爲法，言而爲則。民薰其德，士慕其學。激昂興起⁴⁾，莫不善良，功垂萬世，澤及四方。中歲決科，只⁵⁾爲祿仕，晚年幡然，非貪寵利。進退去就，惟義與比，求道一心，終始無貳⁶⁾。樂而忘憂，寢食不遑。咸謂大德，壽考無疆⁷⁾。

► 琴應夾：1526～1596. 字는 夾之, 號는 日休堂.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精鍾：《逸集》‘鍾精’

3) 勉：《日休堂遺稿》‘進’

4) 起：《逸集》‘氣’

5) 只：《日休堂遺稿》‘非’

那知一夕，奄至易簀？斯文失傳，後學無托。天意茫茫，號慟⁸⁾罔極。小子等，樗櫟之材，鹵莽之質。叨奉杖屨，出入門庭。不倦之誨，反復丁寧。憤悱未至，變化不得。追思今日，徒增悔⁹⁾惡。庶拾舊聞，服膺無斁，教我之恩，沒世難忘。不肖無狀，又負築墻¹⁰⁾，填咽摧腸，敬奠一觴。

6) 貳：《日休堂遺稿》‘二’

7) 彊：《逸集》‘強’

8) 慟：《逸集》·《日休堂遺稿》‘痛’

9) 增悔：《逸集》‘憎誨’

10) 墻：《逸集》·《日休堂遺稿》‘場’

輓祭錄151-祭文053

祭文053

孫宏濟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九日庚辰，密陽司馬所生員孫宏濟，謹以蔬果清酌，敬祭于退溪先生之靈。惟我先生，誕生東國，道大德宏，義精仁熟²⁾，爲國典刑，作士表率。筮仕先朝，浩然投紱，樂彼陶山³⁾，爰得我直。婆娑邱壑，卓爾獨立，遠近登門，諄諄誘掖。生等不幸，遠在遐陲，慕道不誠，未蒙提撕。尙冀⁴⁾他日，一獲摳衣，天胡不慤，大慟斯亟？道路脩復，齊趨有闕，抱慟緘辭⁵⁾，敬奠菲薄。不亡者存，庶幾歆格。⁶⁾

▶ 孫宏濟：1531~未詳. 字는 德元.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熟：《逸集》‘孰’

3) 山：《逸集》‘土’[추가 ‘土’, 一本作‘山’.]

4) 冀：《逸集》‘期’

5) 辭：《逸集》‘詞’

6) 庶幾歆格：《逸集》에는 뒤에 ‘嗚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52-祭文054

祭文054

許箴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九日庚辰，後學許箴，謹以清酌時羞，敢昭告于退陶先生之靈。恭惟先生，生稟間氣，學究天人。²⁾心傳先聖，行臻古賢。言教動法，外義內敬，精明純粹，道尊德盛。發明義理，立我大本，節要朱書，啓我關鍵。諄諄誘掖，懇懇警訓。俗學一洗，賁然文獻。功光箕子，百世是蒙。於戲先生，我東晦翁。展厥所蘊，謂將致澤，孰知一疾，遽至易簣？斯文復地，吾黨何依？胡不憇遺，昊天疾威？昔余小生，曾獲摳衣，聞風興起，況覲其德？溫溫玉色，乃敦余薄。謂受教詔，以治邪慾。向道不篤，歲月悠悠。遽值此極，悔將誰尤？山頽樑壞，孰不驚恐？顧余私

▶ 許箴：1548~1612. 字는 功彥, 號는 岳麓·山前.

1) 歲次：《岳麓集》에는 없다.

2) 天人：《岳麓集》‘人天’

心，益切摧慟。有志莫遂，有誠莫薦。含哀千里，敬³⁾
將薄奠。終天茫茫，暫伸禮情。菲具非羞，尙鑑微誠。⁴⁾

3) 敬：《岳麓集》‘茲’

4) 尙鑑微誠：《岳麓集》에는 뒤에 ‘嗚呼哀哉,尙饗’이 있다.

輓祭錄153-祭文055

祭文055

李弘器 等

維隆慶五年，歲次辛未三月壬戌朔十九日庚辰，星州川谷院生李弘器等，謹以脯醢雞酒之奠，敬祭于退溪先生之靈。²⁾ 嗚乎！天地鍾精，河岳孕靈，厥惟生賢，大道是經。氣惟³⁾精明⁴⁾，質惟溫懿，斯文之寄⁵⁾，寔天所畀。夙潛心學，篤全⁶⁾爲己。投紼⁷⁾歸來，隱居求志。玩樂幽閒，妙契天機。居敬造約，精義窮微。天理⁸⁾健順，人事五常，上下合一，隱微昭彰。芻豢義理⁹⁾，膾炙圖書，德盛心下，道實若虛。充實光輝，宣著發越。進位

▶ 李弘器：1531~1582. 字는 伯容, 號는 容齋.

2) 維隆慶……之靈：《逸集》에는 없다.

3) 惟：《逸集》‘稟’

4) 明：《逸集》‘白’

5) 寄：《逸集》‘期’

6) 全：《逸集》‘專’

7) 紼：《逸集》‘紱’

8) 天理：《逸集》‘千里’[추가 ‘千里’似‘天理’.]

9) 義理：《逸集》‘理義’

明時，鴻漸之翼．壇席神明，朝著元龜．蒼生有望，如渴如飢．時命之乖，天實爲之．獨抱遺經，浩然歸復¹⁰⁾．講議函丈，斯道攸托，儒林山斗，多士準程．¹¹⁾ 何期一夕，山梁忽頽¹²⁾？士無依歸，朝失大老．誰意先生，不享胡考？進不克施，退未及博．吾道之窮，如何昊天？弊院何幸，夙蒙提掖．書疏求教，往來反復．創院立名，象賢崇德．自始逮終，咨稟惟悉，勤誨不倦，示我精當．祀儀尙闕，學規未遑，商略酌定，先生是望．擬進承教，遽見斬板．感念平昔，悲淚潛潛．淒風一奠，萬古心情．不昧者存，鑑此卑¹³⁾誠．¹⁴⁾

10) 復：《逸集》‘後’

11) 程：《逸集》‘呈’

12) 頽：《逸集》‘傾’

13) 卑：《逸集》‘早’

14) 鑑此卑誠：《逸集》에는 뒤에 ‘嗚呼’가 있고, [추가 ‘生員’上一本有‘星州川谷書院儒生’八字, 姓諱下有‘等’.]이 있다.

輓祭錄154-祭文056

祭文056

洪胖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九日庚辰，門人洪胖，謹以清酌脯果之奠，敢昭告于退溪先生之靈。世遠人亡，道緒久絕，紛紛異論，各守偏聞。先生應期，趨向復定。曠世爲慕，孰不依歸？胖也幸而，生並一世，面承規訓，親炙威儀。傳習何能？祇自興感。然念愚惑，雖未頓開。且免夷蠻，實是恩力。常擬再詣，以質以疑。云胡昊天，奪之斯速？私傷學業，公慟斯文。胖函丈從遊，深荷恩義，敬奠微禮，以訣終天。²⁾

▶ 洪胖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2) 以訣終天：《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55-祭文057

祭文057

郭之關 等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十九日庚辰，玄風
振東書院幼學郭之關²⁾·生員郭起³⁾·羅世縑⁴⁾·朴惺⁵⁾·
郭趨⁶⁾·金潤德⁷⁾·裴綉⁸⁾·郭趨⁹⁾·嚴有悅¹⁰⁾·許世福¹¹⁾·
郭趨等，遣生員朴瑜¹²⁾·幼學朴思昌，謹以果醴脯醢之
奠，敬祭于退溪李先生之靈。天眷海邦，生我先生，資
稟之粹¹³⁾，學問之精。造詣所極，已至大賢。嗚乎天喪，

▶ 郭之關

-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 2) 郭之關：《逸集》에는 뒤에 ‘生員都慶雲’이 있다.
- 3) 郭起：《逸集》 ‘生員郭起’
- 4) 羅世縑：《逸集》 ‘生員羅世縑’
- 5) 朴惺：《逸集》 ‘生員朴星’
- 6) 郭趨：《逸集》 ‘幼學郭趨’
- 7) 金潤德：《逸集》 ‘幼學金潤德’
- 8) 裴綉：《逸集》 ‘幼學裴綉’
- 9) 郭趨：《逸集》 ‘幼學郭趨’
- 10) 嚴有悅：《逸集》에는 없다.
- 11) 許世福：《逸集》 ‘幼學許世復’
- 12) 郭趨……朴瑜：《逸集》에는 없다.

維嶽其顛。先生之生，吾道其東，先生之沒¹⁴⁾，吾道其窮。生等俱以無似，迹陋志卑，未及樞衣，亦切傷悲。臨穴一奠，萬古長辭。

13) 粹：《逸集》‘秀’

14) 沒：《逸集》‘歿’

輓祭錄156-祭文058

祭文058

金富倫

維隆慶五年，歲次¹⁾辛未三月壬戌朔二十日辛巳，門人金富倫，謹以粢麵之奠，敬告²⁾于退陶先生之靈。³⁾道之大原，實出乎天。體之者聖，明之者賢⁴⁾。上自⁵⁾洙·泗，下及關·閩，著書立言，開示後人。恭惟先生，早有心⁶⁾得，倡明絕學，一變東國。其在世也，瑞日之昇，其沒⁷⁾世也，泰山之崩。樂在曲肱，壽至從心。儒林慟⁸⁾極，國家憂⁹⁾深。嗟我小生，居魯無取，不敢請禱，徒

▶ 金富倫：1531~1598. 字는 惇毅, 號는 雪月堂.

- 1) 維隆慶五年歲次：《逸集》에는 없다.
- 2) 告：《逸集》‘祭’
- 3) 維隆慶……之靈：《雪月堂集》에는 없다.
- 4) 賢：《逸集》‘聖’[추가 ‘聖’, 一本作‘賢’.]
- 5) 上自：《逸集》‘自上’
- 6) 有心：《雪月堂集》‘自有’
- 7) 沒：《逸集》‘歿’
- 8) 慟：《雪月堂集》‘痛’
- 9) 國家憂：《雪月堂集》‘邦國瘁’

忝啓手．文喪緒墜，淚落聲失．情同杖起，禮闕經出．
今當即遠，益增摧傷．永訣千年，祇¹⁰⁾薦一觴．¹¹⁾

10) 祇：《雪月堂集》‘敬’

11) 祇薦一觴：《逸集》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57-祭文059

祭文059

琴蘭秀

維隆慶五年，歲次辛未三月壬戌朔二十日辛巳，門人琴蘭秀，謹以酒果，敬祭于退陶先生之靈。¹⁾ 伏惟先生，光岳氣全，間世挺興。私淑獨詣²⁾，豈有師承？追蹤³⁾ 孔·孟，瓣香程·朱，德崇道尊⁴⁾，爲世宗⁵⁾儒。春風氣度，秋月襟靈，我東千載，斯道復明。⁶⁾ 蘭秀幸生一時⁷⁾，又同鄉垌，小少⁸⁾樞衣⁹⁾，得奉杖屨，卅¹⁰⁾載周旋¹¹⁾，偏承眷愛。¹²⁾ 提耳教詔，諄諄不已。其教維何，

▶ 琴蘭秀：1530~1604. 字는 聞遠, 號는 聞遠·孤山主人.

1) 維隆慶……之靈：《逸集》·《惺齋集》에는 없다.

2) 私淑獨詣：《逸集》‘資近生知’

3) 追蹤：《逸集》‘傳心’

4) 德崇道尊：《逸集》‘道崇德尊’

5) 宗：《逸集》‘眞’

6) 斯道復明：《惺齋集》‘聖學大明’

7) 時：《惺齋集》‘世’

8) 小少：《惺齋集》‘少年’

9) 樞衣：《逸集》‘及門’

10) 卅：《惺齋集》‘卅’

主敬窮理.¹³⁾ 西山眞訣, 朱書微旨, 反復參究¹⁴⁾, 誘掖不鄙.¹⁵⁾ 雖我昏庸¹⁶⁾, 實感中¹⁷⁾情, 生我父母, 誨我先生. 將期百年, 恃有所¹⁸⁾歸, 山頽梁毀¹⁹⁾, 吾道之悲. 儀刑²⁰⁾永隔, 前道²¹⁾晦塞.²²⁾ 我病誰砭, 我疑何²³⁾質? 伏哭柩前, 五內摧裂. 奉奠一卮, 庶幾歆格.²⁴⁾

11) 周旋：《惺齋集》‘門下’

12) 偏承眷愛：《惺齋集》‘幾承眷顧’

13) 提耳……窮理：《惺齋集》‘篤信爲己，主敬窮理。提耳教詔，諄諄不已。’

14) 西山……參究：《惺齋集》‘嗟我愚庸，終負至意’

15) 誘掖不鄙：《惺齋集》‘不鄙誘掖’

16) 雖我昏庸：《惺齋集》에는 없다.

17) 中：《逸集》‘衷’

18) 恃有所：《逸集》‘有所依’

19) 毀：《逸集》‘壞’

20) 刑：《逸集》‘形’

21) 道：《逸集》‘途’

22) 吾道……晦塞：《惺齋集》‘夫我何依’

23) 何：《惺齋集》‘誰’

24) 庶幾歆格：《逸集》에는 뒤에 ‘二十日辛巳門人琴蘭秀’가 있다.

輓祭錄158-祭文060

祭文060

朴頤

門下參奉朴頤，伏以【二句失傳】，稟精河岳，正氣純陽，
穆穆理學，鄒·魯家庄。鍾氣嶠南，道德文章，德源所
在，既曰玄遠。□恩綸誕宣，蔚然文獻。浩浩其心，寬
容之德，慶【缺】師門，千秋無斁。逮我□聖明，錫以嘉
謚，前後表章，士林爭備。海東夫子，退溪先生，一國
崇慕，日月長明。兩世問學，豈曰偶然？路雖極遠，意
結門前。猗歟德容，如在羹牆。於穆之氣，山高水長。
【下缺八句.】

輓祭錄159-祭文061

祭文061

李珥

蓍龜既失¹⁾，父母既歿。龍虎云亡，景星沉光。²⁾ 袞衣皇皇，孰補其闕，赤子嗷嗷，孰援其溺。變恠百出，孰設嚴防，長夜漫漫，孰曝秋陽？³⁾ 繄公之生，間氣所鍾，溫然如玉，有粹⁴⁾其容。志貫皎⁵⁾日，行潔秋水。樂善好義，無間人已。俛首下學，妙思精研，縷析毫分，洞見幽玄。衆說參差，洪纖異宜，折衷會一，紫陽是師。急流勇退，出類離群，守道山樊，富賢⁶⁾浮雲。⁷⁾ 在邦必達，休聲澈天。宸衷虛佇，寵命聯翩。⁸⁾ 幽居入圖，高

▶ 李珥：1536~1584. 字는 叔獻, 號는 栗谷·石潭·愚齋.

1) 蓍龜既失：《栗谷全書》에는 앞에 ‘嗚呼哀哉’가 있다.

2) 景星沉光：《栗谷全書》에는 뒤에 ‘歲序遷流, 今已再周’가 있다.

3) 孰曝秋陽：《栗谷全書》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4) 粹：《栗谷全書》 ‘粹’

5) 皎：《栗谷全書》 ‘皦’

6) 賢：《栗谷全書》 ‘貴’

7) 富賢浮雲：《栗谷全書》에는 뒤에 ‘閒中日月, 靜裏乾坤’이 있다.

8) 寵命聯翩：《栗谷全書》에는 뒤에 ‘公惟考槃, 確乎不拔’이 있다.

掛紫闥．嗣聖繼明，側席如渴．祥鳳來儀，經幄生輝，
《十圖》啓沃，探隱闡微．輿望日隆，謙退愈卑，三章
辭闕，浩然而歸.⁹⁾ 惟進與退，繫國安危．寂寞之濱，
有來捫衣¹⁰⁾．微言昭揭¹¹⁾，耿光長新．進不澤民，退啓
後人.¹²⁾ 小子失學，貿貿迷方，悍馬橫馳，荆棘路荒．
回車改轍，實賴¹³⁾啓發．有初鮮克，哀我滅裂.¹⁴⁾ 自擬
負笈，庶幾卒業，天不憖遺，哲人遽萎.¹⁵⁾

9) 浩然而歸：《栗谷全書》에는 뒤에 ‘調羹之手，卷而懷之’가 있다.

10) 有來捫衣：《栗谷全書》에는 뒤에 ‘惟公不倦，兩端斯竭，知德者鮮，統緒誰接’이 있다.

11) 揭：《栗谷全書》‘載’

12) 退啓後人：《栗谷全書》에는 뒤에 ‘嗚呼哀哉’가 있다.

13) 實賴：《栗谷全書》‘公實’

14) 哀我滅裂：《栗谷全書》에는 뒤에 ‘公辭端委，余謝簪笏’이 있다.

15) 哲人遽萎：《栗谷全書》에는 뒤에 ‘公之易簀，余在西陲，疾病纏綿，道路阻脩，承訃一慟，萬事謬悠，斂不飯含，葬不執紼，心期百違，竟未奔哭，嗚呼此生，辜負幽明，緘辭泐酌，遠寓微誠，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60-祭文062

祭文062

盧守愼

嗚乎先生，而至斯耶¹⁾？至大之道，至正之學，至精之辭²⁾，至高之行，既不復³⁾得而見之，已而已而，慟矣慟矣！成就君德之器，誘掖人材之才，黜伯行王之術，難進易退之節，終豈復得而聞諸，已而已而，慟矣慟矣！如守愼⁴⁾者，蚤⁵⁾免葉尹之問，晚篤了翁之知。聯被西掖，資麗澤之多時，偕假東湖，受尋顧其幾夜。自論道講性之外，惟憂國愛士之誠。一敗塗地，萬事聽天，賞予不挫，勉予不止。⁶⁾白首歸來，復瞻德範，方且倚以⁷⁾

► 盧守愼：1515~1590. 字는 寡悔，號는 蘇齋·伊齋·十青亭·暗室·茹芝老人。

1) 斯耶：《蘇齋集》‘於斯’

2) 至正之學，至精之辭：《蘇齋集》‘至精之辭，至正之學’

3) 既不復：《蘇齋集》‘今不可得’

4) 如守愼：《蘇齋集》‘若余’

5) 蚤：《蘇齋集》‘早’

6) 賞予不挫，勉予不止：《蘇齋集》‘責余不止，勉余不挫’

7) 以：《蘇齋集》‘而’

稽疑，庶可從而補過。何此計之不諧⁸⁾，遽此計之相及？已而已而，痛矣慟矣！一慟二慟，三慟而止。天實爲之，謂之何哉？⁹⁾有老在堂，永失一臨。此懷惇惇，又復一慟。遙奠綿漬，尙克歆思。

8) 不諧：《蘇齋集》‘莫遂’

9) 天實爲之，謂之何哉：《蘇齋集》에는 없다.

輓祭錄161-祭文063

祭文063

奇大升

嗚乎痛哉!1) 梁²⁾木之壞³⁾，而泰山之頽乎，吾復何以爲懷也？上悼斯文之墜地，下憐晚學之失依。曷爲不使我骨驚而魂飛也？嗚乎痛哉！粵在去歲仲冬之初，委拜一書以問起居矣。俄於便中，獲奉惠書，至月⁴⁾十五日所裁，而托鄉⁵⁾邑子弟，轉寄以來。⁶⁾ 既警我以稜角之太露，又申之以時事之可虞。矧乎物格無極之訓釋，繳紛徃反⁷⁾而不克合者，竟同歸而並趨，感幸之忱，慰滿之衷，言固不可⁸⁾喻，而心亦不能以容也。以爲如此，雖

▶ 奇大升：1527~1572. 字는 明彦, 號는 高峯·存齋.

1) 嗚呼痛哉：《高峯集》에는 앞에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初四日丁卯，後學高峯奇大升，遠具酒果之奠，再拜哭迸，敢告于退溪先生靈座之前曰’이 있다.

2) 梁：《高峯集》‘樑’

3) 壞：《高峯集》‘摧’

4) 至月：《高峯集》‘蓋十月’

5) 鄉：《高峯集》‘隣’

6) 來：《高峯集》에는 뒤에 ‘也’가 있다.

7) 反：《高峯集》‘返’

未得陪杖屨而承謦咳，亦足以滌離愁而發愚蒙也。繼於是月之望，因李生 咸享之侔，仰修一狀，以達區區之下情焉。逮夫賤侔之言旋，乃眷手翰以還答。始言憂患之煎迫，益致憊倦於應接，終⁹⁾言胷痰之暴起，挾以他證而呻伏，卒嘆請老之不遂，勉我久閒而靜學。私竊恠字畫之異昔，而未始覺神氣之愆瘁，妄謂舊痼之偶動，當見勿藥而有喜。夫豈知其爲永訣之筆，而不復更承¹⁰⁾教指也耶？嗚乎痛哉！臘月二十日，適在錦城之西村，忽得李生之報，伏聞先生易簣於初八之昏。驚呼失聲，痛徹心膂，不自知此身之生而存也。併得令孫氏¹¹⁾之書，乃知先生寢疾之詳，又知後來仰修之一狀，以先生疾而不遑披達於几案之傍也。茫茫天地，會晤無從，惟有畢餘生而¹²⁾遊地下，庶或有以接儀刑而躡遺蹤也。嗚乎慟¹³⁾哉！竊念頑鄙之資，實蒙誘掖之至，恩旣深而義重。每用嚮往而不敢置思。欲乞郡於¹⁴⁾嶺外，儻得躬

8) 可：《高峯集》에는 뒤에 ‘以’가 있다.

9) 終：《高峯集》 ‘又’

10) 承：《高峯集》에는 뒤에 ‘於’가 있다.

11) 氏：《高峯集》 ‘上舍’

12) 而：《高峯集》 ‘以’

13) 慟：《高峯集》 ‘痛’

14) 於：《高峯集》에는 없다.

造於門墻，慨日月之逾¹⁵⁾邁，恒祝道體之壽¹⁶⁾康。何人事之不可期，遽承音於不祥？恒摧慕以永號，懷鬱鬱以¹⁷⁾增傷。緘辭千里，以寓一酌，悲不能悉我之情也。伏惟先生英靈之如在，尙冀有¹⁸⁾以鑑此微誠也。¹⁹⁾

15) 逾：《高峯集》‘愈’

16) 壽：《高峯集》‘鬱’

17) 永號……鬱以：《高峯集》에는 없다.

18) 有：《高峯集》에는 없다.

19) 也：《高峯集》에는 뒤에 ‘嗚呼痛哉，尙饗’이 있다.

輓祭錄162-祭文064

祭文064

具鳳齡

恭惟道緒，邈乎淵源，一言授受，昭揭大原。洙·泗光
闡，會之有元，遭秦不燼，逮宋而明。海東千載，粵有
先生，賦質之純，稟氣之英。學自心得，不由師承。深
思力踐，動準規繩。終乃大成，浩然其歸。表裏交正，
動靜莫違。精金美玉，絕無瑕愆。冰壺秋月，炯出天然。
喬岳屹峙，瑞星澄輝。云胡不淑，而至於斯？嗚乎我
邦，僻處裔陲，箕化已緬，文獻無聞。羅季入唐，始事
藝文。松都蔚興，儒教彬彬，豪傑迭出，代不乏人。自
茲以降，奮厲愈新，群賢濟濟，震耀光塵。顧惟嫡統，
莫究似續，亦厄于時，有不施設。天相斯文，委有宗托，
曷不遐壽，慘禍斯酷？嗚乎世遠，士多歧惑。高悟性
命，絕廢文字。卑或沈淪，徒徇外志。認用爲體，疑真
誰晰。放言驚俗，闊無階級。洵流瀾漫，古今所惜。不

► 具鳳齡：1526~1586. 字ㄴ 景瑞，號ㄴ 栢潭·圭峯.

有先覺，孰啓來學？澼澼¹⁾之分，毫釐必析。瑤璞之混，織芥必擇。反本窮原，捐華討實。車輪鳥翼，極精致一。赤幟一豎，不煩辭說。繼開之偉，昔賢同烈。嗚乎哀哉！誠正之學，敬義之功，克²⁾養純粹，積累從容。格君之訖³⁾，衛道之篤，明白的確，忠正⁴⁾懇切。進揚王庭，國有著龜，退講于家，人有宗師。今其已矣，慟⁵⁾哭何追？嗚乎哀哉！余以小生，晚窺門牆。治心之要，讀書之方，獎掖諄至，俾免榛棘。竊念鴛庸，質魯心塞，中年廢棄，沈痼乘之，榮名熏肺，又苦奔馳。至于今日，貿貿頑肉。庶收桑榆，以補黥刑，人事變遷，祇增哽咽。嗚乎哀哉！去歲冬初，祇謁溪居，德宇睟⁶⁾盎，神思晏如。笑語怡愉，心閒氣舒。指陳術業，言不暇餘，亦及時事，憫迫歔歔。曾幾日時，忽焉違隔？斯文之喪，斯道之孽。邦國之瘁，士林之戚。⁷⁾山頽梁毀，痛冤寧闕？嗚乎哀哉！方寢危苦，徃拜于室，首言年齡，衰悴之端，眞元竭盡，

1) 澼：《栢潭集》‘楚’

2) 克：《栢潭集》‘充’

3) 訖：《栢潭集》‘忱’

4) 正：《栢潭集》‘直’

5) 慟：《栢潭集》‘痛’

6) 睟：《栢潭集》‘粹’

7) 戚：《栢潭集》‘憾’

暴疾遽干。次言平日，講會之難，感念疇昔，意何拳拳？豈知此言，而訣終天？儀刑永昧，後期何緣？潛思至此，五內摧煎。敬薦菲素，曷罄寸心？長呼⁸⁾一聲，冀賜昭臨。⁹⁾

8) 呼：《栢潭集》‘號’

9) 冀賜昭臨：《栢潭集》에는 뒤에 ‘嗚呼痛哉’가 있다.

輓祭錄163-祭文065

祭文065

申澐 等

【成均館生員申澐·李純仁·李應虬·中學生李應進·東學生鄭純復·南學生閔宗彬等】猗與先生，天資純靜。不由師承，早事誠·敬，晦庵書中，惕然有悟。俯讀仰思，弗得弗措。紬繹四子，益加精力。晚而好《易》，玩心無數。研深極微，理無不格。全體實踐，義精守約。優入道閨，謙若不足。望之可敬，充養外達，霽行潦止，聖賢爲則。身危道窮，自信愈篤。學子鼎來，講論不輟。¹⁾士知向方，殆變舊學。道全德備，爲世矜式。昔我先王，待士有誠，念茲作人，爰擇老成。龜山雅望，允屬先生。左訓右箴，教²⁾告諄至。未克授室，旅病爲祟。所好不在，宦情如寄。陶山依舊，寓樂衡宇，婆娑丘林，歲月遲暮。眞積

► 申澐：1532~未詳。字는 景恬

李純仁：1533~1592。字는 伯生·春卿，號는 孤潭。

1) 輟：《孤潭逸稿》‘掇’

2) 教：《孤潭逸稿》‘敬’

力久，造詣尤極。心傳河洛，絕學復續。迨其季年，應召入城，滿朝注想，如待神明。「六條」草奏，剴切治道，《十圖》昭揭，開發妙奧。存誠講筵，庶幾啓沃，志與時違，懇乞骸骨。遲遲孤帆，江上三宿。歸來故居，竟遂初志。七進七退，以禮以義，士夫高仰，指爲依歸。謂當暫愒，【缺】³⁾誰謂一疾，乃訖于斯。士失宗師，國無著龜。吾道何托？嗟哉吾黨！一團和氣，永隔座上，摳衣何日，更升塾堂？天之將喪，墜緒茫茫。我慟非私，惟道之孤。道路脩復，末由齊趨，遠具菲薄，執事有恪。千里寓辭，敬奠一爵，感此哀誠，尙其昭假。⁴⁾

3) 【缺】：《孤潭逸稿》‘尋復召追’

4) 尙其昭假：《孤潭逸稿》에는 뒤에 ‘嗚呼痛哉’가 있다.

輓祭錄164-祭文066

祭文066

鄭述

【萬曆丁未三月，赴安東任所，時祭墓文。】 惟我東土，地偏以荒，士不知學，惟聘詞章。寒暄有作，繼則靜菴，始以道倡，斯文指南。猗歟先生！稟精光嶽，夙慕前修，功專志確。明·誠兩進¹⁾，敬·義夾持，體用俱備，莫之或遺。雲谷塗轍，先生是嗣，後死有賴，百代不墜。述也小生，幸早及門，提掖之厚，敢望隆恩？惟其魯莽，白首無憑，顧省平生，慙悼何勝？披省宿草，如奉儀刑。²⁾一酌奠誠，庶格冥冥。

► 鄭述：1543~1620. 字_는 道可，號_는 寒岡。

1) 進：《寒岡集》‘盡’

2) 刑：《寒岡集》‘形’

輓祭錄165-祭文067

祭文067

琴輔

元氣之會¹⁾，篤生大德。純粹之質，中正之學，淵源洙·泗，羹牆濂·洛。續千載緒，爲百世師，士瞻喬嶽，國有蒼龜。卓立東荒，考槃在阿，退水活活，靈芝峨峨。爰結三椽，命曰寒棲，仰思俯讀，左圖右書。肅然對越，終日乾乾，力踐心得，不由師傳。紬繹四子，研窮易學，無微不燭，無物不格。不言而信，不怒而威，曝之秋陽，藹然春輝。²⁾ 小子弱冠，幸窺門牆，獎掖諄至，粗知義方。³⁾ 中年遊泮，顛沛是虞。于時先生，被召入都，叨

► 琴輔：1521~1584，字는 士任，號는 梅軒·柏栗堂。

1) 元氣之會：《梅軒集》에는 앞에 ‘嗚呼’가 있다.

2) 藹然春輝：《梅軒集》에는 뒤에 ‘風光月露，山立淵澄，接應事物，氣平神凝，卽之也溫，望之也莊，芻豢義理，爵祿是忘，先王側席，恩命屢至，出處有道，霽行潦止，自家而國，準平繩直，際會文明，雍容經幄，道揭十圖，誠殫六條，七進七退，顯揚三朝，軒駟孔阜，自視器器，歲暮丘林，迺修初服，白首謝恩，歸帆三宿，酌彼漢水，臨分寫愁，天不欲平，人將何尤，河海量深，衆瀆所聚，近遠鴻碩，立雪軒右，從容講討，窈窕陶丘，書疏溢篋，手答如流，疑賸冰解，義利毫析，繼往開來，昔贊同烈.’이 있다.

3) 粗知義方：《梅軒集》에는 뒤에 ‘脫我坑塹，道我坦夷，自顧駑庸，坐成不移.’가 있다.

陪南爲，執策前之。歸來補過，築室溪湄，日星明訓，詩以勉爲.⁴⁾ 庶奉周旋，無或墜失。欲報之恩，天地罔極.⁵⁾

4) 詩以勉爲：《梅軒集》에는 뒤에 ‘杜門求志，抱卷質疑，得免小人，此外何求，居必薰炙，駕輒陪遊，佳山勝水，杖屨周流，蓮臺夜闌，鼇潭月明，暢我心志，悟我神精’이 있다.

5) 天地罔極：《梅軒集》에는 뒤에 ‘嗚呼哀哉，豈意一疾，爲斯道棼，邦國之瘁，士林之戚，神龍其逝，鱗介靡依，儒宗其亡，吾黨誰師，運旣極矣，痛哭何追，終天永隔，此恨未涯，薦此菲素，庶冀格思，嗚呼哀哉.’가 있다.

輓祭錄166-祭文068

祭文068

林芸

維隆慶五年，歲次辛未二月甲午朔十八日辛亥，門下生恩津 林芸，遙拜，遣人致祭于退陶 李先生之靈。伏以
【以上缺】，惟我先生，箕後一人，沉潛敬義，涵泳智仁。金玉相貌，雪月精神，富貴浮雲，生涯林泉。乾坤一草，風雨三椽。累被□徵命，或行或止。進必盡禮，退又合理。邦國著龜，士林山斗。獨立衛道，光前啓後。濟濟多士，望門以趨。隨其才分，諄諄告諭。小子摳衣，今五星霜。生我父母，誨我先生。去歲初春，暫拜屏軒。神氣康寧，謂曰百年。那知今日，叩地叫天？已矣已矣！痛矣痛矣！奈何彼蒼，喪我斯文？茫茫墜緒，復何云云？嗚乎哀哉！邦家疹瘁，士失依歸。山頽樑壞，小子安依？微誠罔極，遠奠菲薄。不亡者存，庶幾歆格。

► 林芸：1517~1572. 字는 彥成，號는 瞻慕堂·蘆洞散人。

